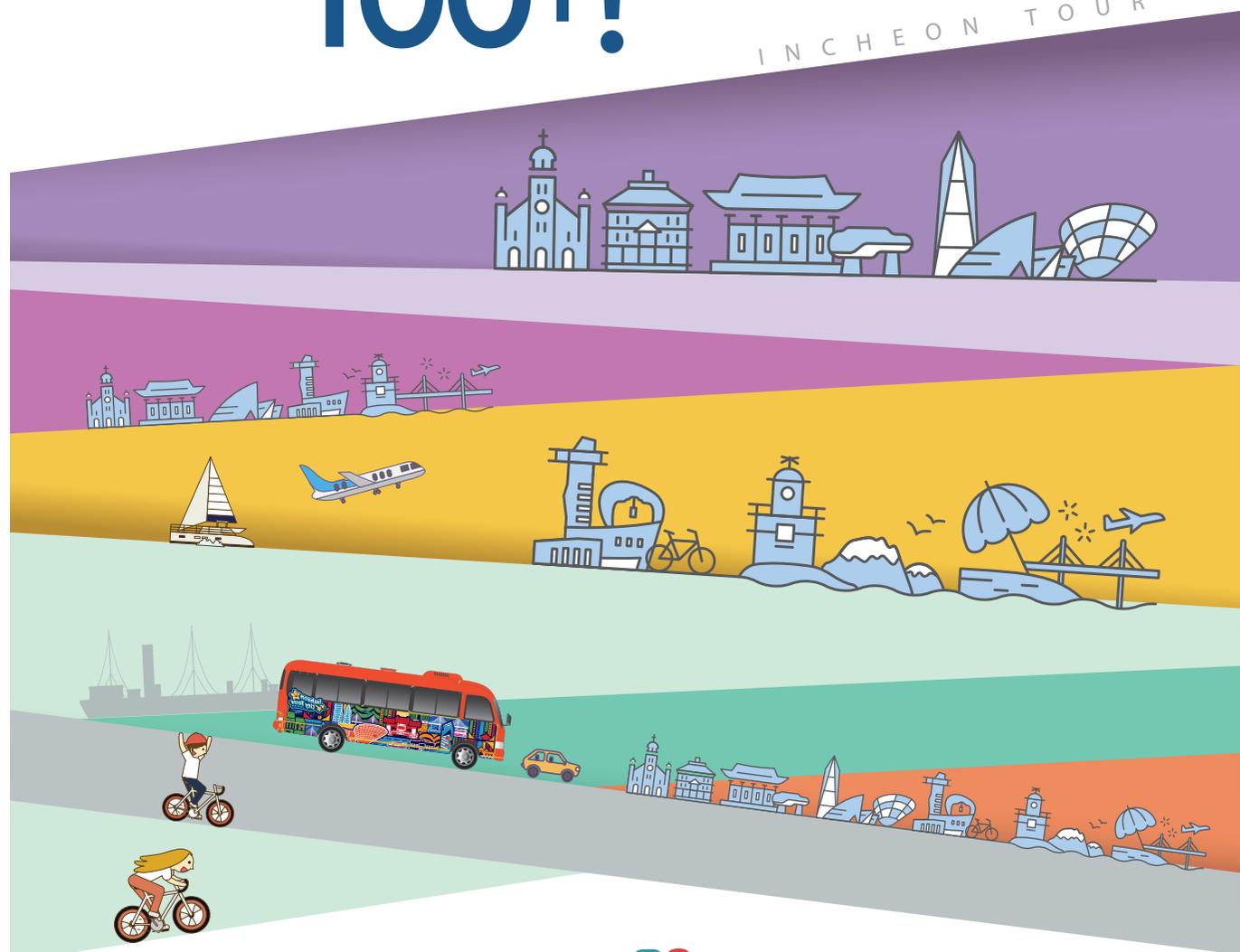


인천관광 100+!

INCHEON TOUR



인천관광
100+!



인천의 무한한 가치를 발견하세요!



인천관광 100+!



목차

Contents

PART I 역사·문화 History & Culture 01~24

- | | | | |
|--------------------|-----------------|-----------------|----------------------|
| 01 강화산성 · 06 | 02 강화지석묘 · 08 | 03 개항장거리 · 10 | 04 계양산성 · 12 |
| 05 고려궁지 · 14 | 06 교동향교 · 16 | 07 갑곶돈대 · 18 | 08 대한성공회 인천내동교회 · 20 |
| 09 내리교회 · 22 | 10 녹청차도요지 · 24 | 11 능허대지 · 26 | 12 답동성당 · 28 |
| 13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 30 | 14 마니산 참성단 · 32 | 15 부평도호부청사 · 34 | 16 원인재 · 36 |
| 17 인천도호부청사 · 38 | 18 인천중동우체국 · 40 | 19 자유공원 · 42 | 20 전등사 · 44 |
| 21 인천차이나타운 · 46 | 22 광성보 · 48 | 23 연미정 · 50 | 24 화도진 · 52 |

PART II 자연경관 Natural Scenery 25~49

- | | | | |
|----------------|-------------------|-------------------|----------------------|
| 25 강화갯벌 · 56 | 26 강화나들길 · 58 | 27 경인아라뱃길 · 60 | 28 계양산 · 62 |
| 29 굴업도 · 64 | 30 교동도 · 66 | 31 연평도 · 68 | 32 대청도 · 70 |
| 33 덕적도 · 72 | 34 무의도 · 74 | 35 문학산 · 76 | 36 백령도 · 78 |
| 37 석모도 · 80 | 38 소래습지생태공원 · 82 | 39 송도센트럴파크 · 84 | 40 신도 · 시도 · 모도 · 86 |
| 41 장봉도 · 88 | 42 영종도 · 용유도 · 90 | 43 선재도 · 영흥도 · 92 | 44 월미도 · 94 |
| 45 이작도 · 96 | 46 승봉도 · 98 | 47 자월도 · 100 | 48 팔미도 · 102 |
| 49 인천대공원 · 104 | | | |

PART III 박물관·전시관 Museum & Exhibition Hall 50~63

- | | | | |
|------------------|---------------------|-------------------|--------------------|
| 50 강화역사박물관 · 108 | 51 강화자연사박물관 · 110 | 52 강화평화전망대 · 112 | 53 국립생물자원관 · 114 |
| 54 송도컨벤시아 · 116 | 55 수도권산달동네박물관 · 118 | 56 인천개항박물관 · 120 | 57 인천상륙작전기념관 · 122 |
| 58 인천시립박물관 · 124 | 59 인천아트플랫폼 · 126 | 60 인천어린이과학관 · 128 | 61 짜장면박물관 · 130 |
| 62 트라이볼 · 132 | 63 한국이민사박물관 · 134 | | |

PART IV 생활문화·전통시장 Living Culture & Traditional Market 64~85

- | | | | |
|-----------------------|--------------------|------------------|------------------|
| 64 강화풍물시장 · 138 | 65 거북시장 · 140 | 66 내동골목 · 142 | 67 동인천삼치거리 · 144 |
| 68 만석동 주꾸미거리 · 146 | 69 인천모래내시장 · 148 | 70 배다리 · 150 | 71 백마장골목 · 152 |
| 72 부평지하상가 · 154 | 73 송월동 동화마을 · 156 | 74 수도권산골목 · 158 | 75 신기시장 · 160 |
| 76 신포국제시장 · 162 | 77 십정동골목 · 164 | 78 쓰리재골목 · 166 | 79 연락골추어마을 · 168 |
| 80 용현시장 · 170 | 81 인천역 · 172 | 82 인천종합어시장 · 174 | 83 강화화문석마을 · 176 |
| 84 화평동 세숫대야방면거리 · 178 | 85 NC큐브 커널워크 · 180 | | |

PART V 축제 Festival 86~90

- 86 고려산진달래축제 · 184
- 87 인천부평풍물대축제 · 186
- 88 소래포구축제 · 188
- 89 인천·중국의날 문화축제 · 190
- 90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 · 192

PART VI 국가무형문화재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91~96

- 91 궁시장 박호준 · 196
- 92 은율탈춤 차부회 · 박일홍 · 198
- 93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김금화 · 200
- 94 황해도평산소놀이굿 이선비 · 202
- 95 완초장 이상재 · 204
- 96 화각장 이재만 · 206

PART VII 공공시설 Public Facilities 97~100

- 97 인천국제공항 · 210
- 98 인천대교 · 212
- 99 인천항 · 214
- 100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 216

100+ ! 수준원점 Korea Vertical Origin Point 100+!

- 100+! 수준원점 · 218

- 부록
- 찾아가기 · 222
 - 인천시티투어 · 228
 - 인천관광안내소 · 231

A scenic view of a traditional Korean palace (Gyeongbokgung) with a stone wall and a pavilion, surrounded by vibrant autumn trees in shades of red, orange, and yellow. The sky is a soft, hazy grey.

인천관광 100+!

PART

I

History & Culture

역사 · 문화

고즈넉한
시간의 향기

01 몽골에 항쟁하기 위해 쌓아올린 강화산성



강화산성 남쪽 성벽 장대

강화산성은 성을 에워싼 돌의 무게만큼 묵직한 세월을 안고 있다. 고려 23대 고종(1232)은 몽골의 2차 침략에 맞서기 위해 성을 쌓았다. 이후 성은 몽골의 요구에 따라 1270년 파괴되었지만 1677년 강화 유수 허질이 토성을 석성으로 다시 쌓았다. 1709년에는 강화 유수 박권이 다시 개축했으며, 조선후기에 보수가 이루어졌다. 1973년에는 남문, 2004년에는 동문이 복원돼 현재에 이른다.

산성에는 안파루, 첩화루, 망한루, 진송루라 불리는 사대문과 암문, 수문, 남장대, 북장대 등 방어시설이 자리한다. 능선을 따라 이어진 성곽 길에는 초록이 무성하다. 남장대가 자리한 남산에 오르면 산 아래 강화읍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강화를 뒤편으론 바다가 보이고 날씨가 좋으면 바다 뒤로 북한의 송악산도 한 눈에 들어온다. 곳곳의 풍경이 잔잔하고 성벽을 따라 걸으면 고즈넉한 숲길이 이어지지만 시절마다 요동이 적지 않았다. 몽골군의 침입 이후에도 병자호란,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을 차례로 겪으며 슬한 외세의 침략을 겪어야 했다. 현재는 성곽을 따라 나들길이 조성돼 있다. 벚꽃이 흐드러진 봄과 선선한 가을이면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도 만끽하고 켜켜이 스민 역사도 곱씹어 보려는 길손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는다.

TIP

매년 가을 즈음 강화산성에서는 '강화산성 성돌이 놀이'를 진행한다. 1년 재앙을 물리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행해지며 일명 '성밟기'라고도 한다. 이 행사는 강화군의 역사 의식 고취와 마을 주민의 단합을 위해 펼쳐지고 있다. 주민, 관광객,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공연이 열린다.



강화산성 서문



강화산성 출입구



강화산성 성벽

02 청동기시대로부터 이어온 시간의 깊이

강화지석묘

돌 아래 갇혀 버린 시간. 어떤 절대자의 죽음 이후 수많은 백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거대 돌무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만고의 시간을 품은 채 서있다. 지붕돌을 얹기 위해서는 500여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 무덤 주인이 얼마나 큰 부족장이었는지 짐작케 한다.

강화지석묘는 2000~3000년 전의 무덤과 장례의식 기념물로 선사시대의 문화와 기술, 사회현상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적이다. 지난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크기와 세련된 조형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인돌이다.

청동기 시대를 규명하는 귀중한 자료로, 전형적인 북방식 형태를 보여준다. 높이 2.6m, 지붕돌 길이 6.5m, 너비 5.2m, 두께 1.2m인 탁자식 고인돌로 규모에서 압도당할 만큼 장대하다.

이 외에도 강화에는 내가면 오상리와 강화읍 대산리 등 고려산 기슭을 따라 총 120여 개의 고인돌이 분포돼 있다. 강화 고인돌 유적은 밀집분포도와 형식의 다양성으로 고인돌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규명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유럽·중국·일본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한 특색을 가졌다.

또 우리나라 고인돌은 평균 고도보다 높은 해발 100~200m에 분포하고 있어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강화부근리 지석묘



고인돌 축조재현



점골 지석묘

TIP

지석묘는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만든 무덤으로 고인돌이라고도 한다. 당시 지배층의 정치권력과 경제력을 상징하는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유적이다. 지상에 책상처럼 세운 탁자식(북방식)과 큰 돌을 조그만 받침돌로 고이거나 판석만을 놓은 바둑판식(남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전국에 걸쳐 분포해 있다. 고인돌공원 바로 옆은 강화역사박물관이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강화에서 출토된 유물 중심들이 전시되어 있다. 강화자연사박물관도 가까이 있기에 함께 둘러보는 것이 좋다.

03 한국근대사를 이곳에서 추억하다 개항장거리



개항장 거리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개항장 거리에 들어서면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흐릿해진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살아 숨 쉬기 때문이다. 덕분에 거리 전체는 하나의 역사문화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1883년 외세의 강압에 의해 개항되면서 인천은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려는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변모했다.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은 수탈을 위한 방편으로 은행과 회사, 별장, 호텔 등 다양한 건축물을 세웠다. 옛 일본영사관인 중구청과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 일본 제18은행 인천지점, 일본 제58은행 인천지점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이곳은 근·현대사의 아픔이 서려있지만 현재는 박물관, 전시관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단장돼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부추기고 있다. 단조로운 선과 면, 붉은 벽돌이 인상적인 인천아트플랫폼을 비롯해 옛 일본 제18은행 인천지점은 인천개항장근대건축전시관으로 리모델링 돼 새로운 공간으로 되살아났다. 최근 이 거리는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고 주변지역을 정비해 역사·관광 상품으로도 선보이고 있다. 열강의 이권침탈 과정에서 우리 역사의 아픈 모습을 보여주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남은 물론 중구청 앞거리의 일본풍의 복고양이, 인력거 등 조형물이 설치돼 130년 전 당시의 정취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지만 개항장거리에서 서면 책장을 넘기듯 오래된 풍경이 전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천천히 읽을 수 있다.

TIP

개항장 거리 인근에는 19세기 말에 지어져 다시 태어난 건물이 많다. 카페 '팻알'은 개항기 일본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이었지만 2011년 건물 주인이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 뒤 가게를 오픈했다. 현재 등록문화재 제568호로 지정돼 있다. '관동 갤러리' 역시 1, 2층으로 이루어진 일본식 목조 주택이다. 일본인 도다 이쿠코 씨가 복원공사 후 갤러리로 꾸며 운영하고 있다.



카페 팻알



중화루가 된 대불호텔



청·일조계지경계계단

04

쌓아올린 성곽, 돌무더기에서 삼국시대의 역사를 찾다

계양산성



도시가 품고 있는 호젓한 계양산에는 오래된 성터가 남아있다. 성은 해발 394m의 계양산 정상을 둘러싸고 있으며 5~6세기경 축조되었다. 삼국시대에 처음 축조된 석성으로 오랜 역사 때문인지 고산성(古山城)이라고 한다. 테를 두른 듯하다 하여 테뫼식 산성이라고 하며, 둘레 1184m 높이 2~3m 규모의 석축 일부가 남아 있다.

계양산성은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초까지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에는 치열한 싸움터였지만, 그 이후 고성이나 폐성이라 하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갔다.

발굴조사가 시작된 건 2000년대부터다. 조사 당시 이곳에서는 논어를 적은 목간을 비롯해 산성 내에서 석제품을 가공해 제작한 것으로 여겨지는 석경과 돌을 갈아 만든 납석제 뚜껑 그리고 숫돌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주부토(主夫吐)라고 쓰인 기와가 나온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전략적 군사 요충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수입해 사용된 자기류와 고려시대 전기의 청자가 함께 출토되었다. 겹겹의 세월 속에 아스라이 사라져 흔적만 남아있는 성터지만, 여전히 계양산성은 옛 사람들의 찬란했던 절정의 순간을 담고 있다.

TIP

계양산은 '동국여지승람'에 진산 또는 안남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진달래가 유난히 많이 피어 봄이면 분홍 꽃물결을 이룬다. 정상에 오르면 사방이 탁 트여 서쪽으로 영종도와 강화도 등 주변 섬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멀리는 서울시와 고양시의 전경이 환하게 펼쳐진다.



'주부토' 명문(銘文) 기와가 출토된 계양산성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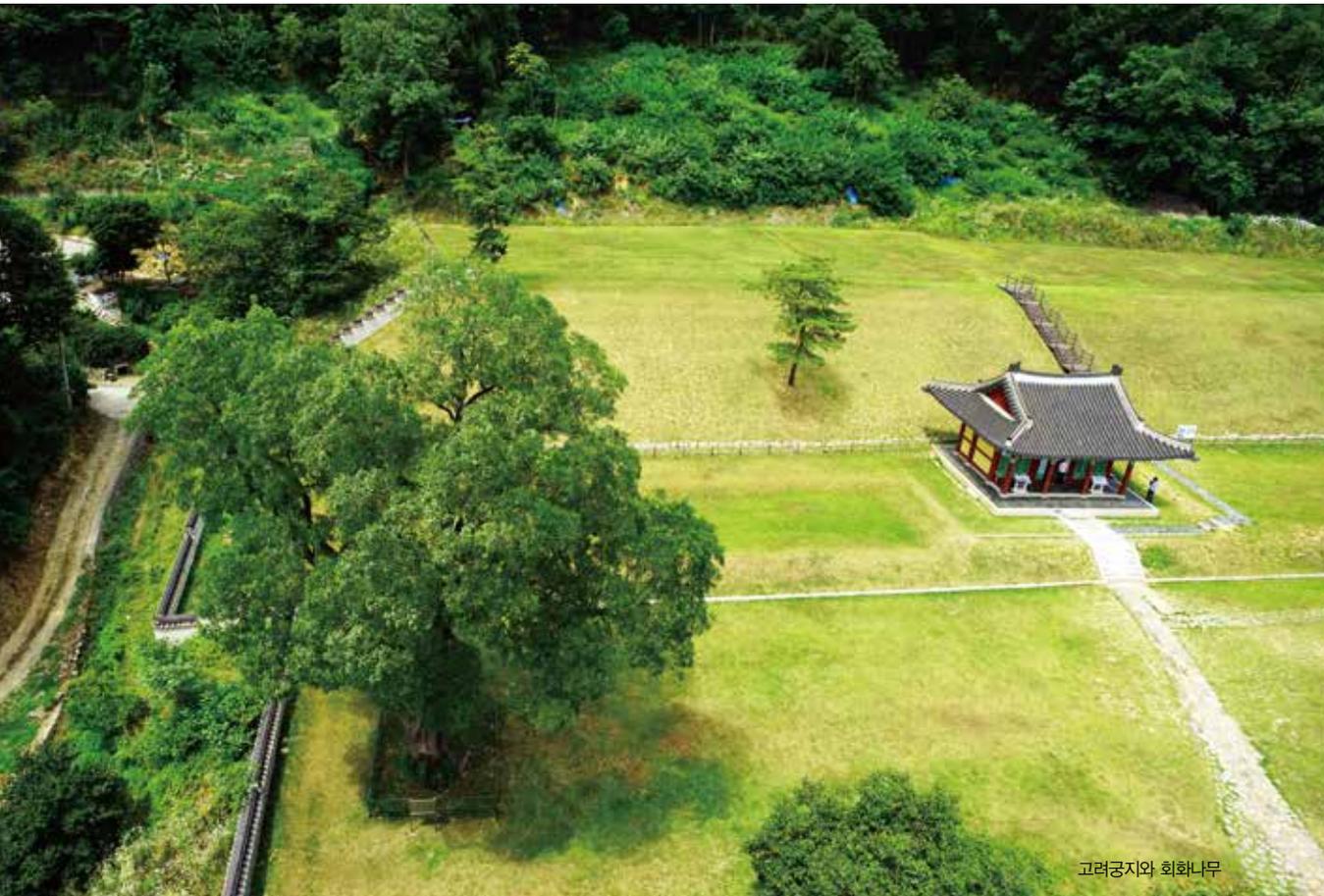


계양산성 일부



계양산성 유물전

05 몽골 침략에 맞서 38년간 고려 수도였던 고려궁지



고려궁지와 회화나무



현재 남아 있는 고려궁지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이십여 분이면 전체를 둘러보지만, 그곳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숨어 있다. 고려궁지는 강화를 관청리에 자리한다.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로 옮긴 1232년(고종 19)부터 다시 환도한 1270년(원종 11)까지 38년간 사용되었다.

‘고려사절요’에 따르면 이곳을 지은 이는 최우라고 전한다. 비록 규모는 작으나 송도 궁궐과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었고 궁궐의 뒷산 이름도 송악이라 불렀다. 강화도에는 정궁(正宮) 이외에 행궁·이궁·가궐 등 많은 궁궐이 있었는데 그 중 이곳은 정궁이 있었던 터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 궁궐은 1270년 송도로 환도하면서 몽골의 압력으로 모두 허물어졌다.

조선시대에 들어 강화의 지방 행정관서와 궁궐 건물이 자리를 잡았다. 당시 강화의 궁궐에는 행궁과 장녕전, 만녕전, 외규장각 등이 있었으나 이마저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의해 모두 불타 없어지거나 약탈당했다.

현재는 강화유수가 업무를 보던 동헌, 이방청 등이 남아 있으며 1964년 사적 제 133호로 지정되었고, 1977년 강화 전적지정화사업으로 보수 정비되었다. 조선의 보물창고로 불렸던 외규장각도 2003년 복원되었다.

궁궐이기에 느껴지는 장엄함보다는 슬픔을 껴안은 역사적인 공간이라는 사실에 꽃살문에 닿은 햇살마저도 처연히 느껴진다. 담장 밖 꽃과 나무, 기와와 계단 옆 축석아래 핀 꽃이 정겹게 사람들을 반긴다.

TIP

고려궁지와 가까운 곳에 용흥궁이 있다.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19세까지 살았던 집이다. 원래는 보잘 것 없는 초기였으나 1853년 철종이 보위에 오르지 4년 만에 강화 유수 정기세가 지금과 같은 집을 짓고 용흥궁이라 부르게 되었다.

06 공자상을 모신 우리나라 최초 향교 교동향교

홍살문을 넘어 감나무 우뚝 선 길을 지나면 교동향교를 만난다. 화개산 자락에 위치한 교동향교는 여백이 아름다운 한 점 수목화와 닮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교이며, 인천 유형문화재 28호로 지정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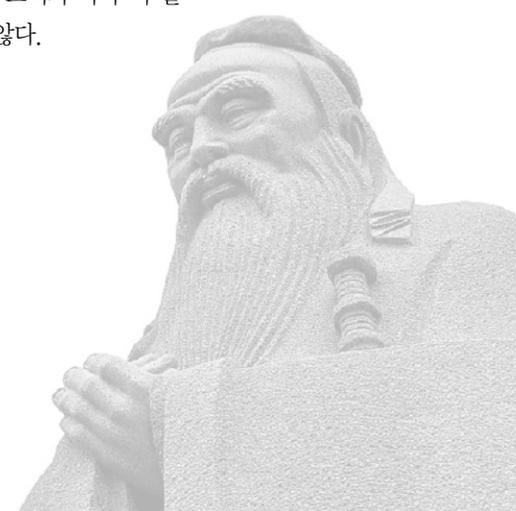
향교는 지방의 유학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조선시대 1읍 1교를 내세우며 각 지방으로 확산되었는데 이곳 교동향교 역사는 그보다 훨씬 빠른 고려 충렬왕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충렬왕 12년(1286)에 안향은 원에 사신으로 갔다가 공자의 초상화를 가지고 돌아와 이곳에 모셨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향교가 만들어진 계기였다.

조선 영조 17년(1741)에는 지부 조호신이 화개산 북쪽 기슭에 있던 것을 남쪽 기슭으로 옮겼다. 향교 안에는 공자의 신주와 우리나라 유현들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 유생들이 배움을 익히고 닦았던 명륜당과 동·서재, 제수용품을 보관하는 제기고, 내삼문이 자리한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돌담이 정답고 산중턱에 자리해 건물마다 고저 차이가 분명하다. 가장 높은 지점에 서면, 그 옛날 유생들의 경 읽는 소리가 바다 저 멀리까지 퍼져 나갈 듯 풍경이 환하게 펼쳐져 발품이 아깝지 않다.

TIP

석전대제는 유교의 창시자 공자를 위시한 성현들을 추모하고 덕을 기리기 위한 행사이며 중요무형문화재 85호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두 차례씩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 향교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교동향교 역시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 우리의 전통윤리관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07 바다를 향해 내민 땅 끝! 그곳은 호국 1번지였다 갯곶돈대

갯곶돈대에 서면 강화대교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야트막한 성곽 밖으로 좁은 물길이 굽이쳐 흐르고 안쪽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여유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다. 하지만 세월을 거슬러 오르면 이렇듯 아름다운 풍경 속에도 숨죽이며 긴장해야 했던 전쟁의 순간이 스며있다.

갯곶돈대가 완성된 건 1679년(숙종 5) 5월이다. 48돈대 가운데 하나로 1232년 고려가 도읍을 강화도로 옮겨온 후 몽고와의 전쟁에서 강화해협을 지키던 중요한 요새였다.

외부에서 강화로 들어오는 관문과 가까워 병사들은 돈대 안에서 경계근무를 서며 외적의 척후 활동은 물론 각종 수상한 정황을 살피고 대처했다. 적이 침략할 때는 돈대 안에 비치된 무기로 방어전을 펼치기도 했다.

돈대 안에는 2층으로 된 정자가 자리해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 적병의 접근을 막기 위해 심었다는 탕자나무는 400년이라는 시간의 두께를 그대로 보여준다. 당시 사용했던 홍이포도 전시돼 있다. 바다를 향해 내민 땅이란 뜻의 곳. 덕분에 외적을 방어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갯곶돈대를 찬찬히 거닐다 보면 송고했던 과거의 시간 속으로 슬며시 흘러들게 된다.

TIP

갯곶돈대 인근에는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강화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주제로 각종 전쟁관련 유물을 전시, 연구, 보존, 수집하기 위해 설립된 강화전쟁 박물관이 자리한다. 또 순교자묘역과 박순집의 묘, 야외 십자가의 길과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는 갯곶순교 성지도 300m 거리에 위치한다.

08 우리나라 최초의 성공회교회 대한성공회 인천내동교회



흥예문 동쪽 언덕을 오르면 눈앞에 펼쳐지는 고풍스러운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된다. 자로 잰 듯 벽돌로 정교하게 쌓아올려 인상적인 성공회 교회이다. 이곳은 2002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1호로 지정될 만큼 종교, 역사,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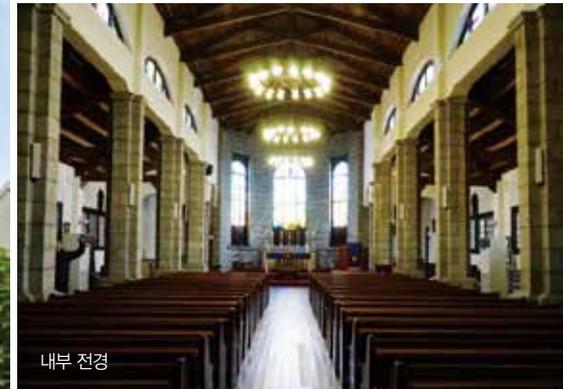
1890년에 영국 해군중군신부였던 코르페(C.J. Corfe 한국명 고요한)주교가 선교 통역자 6명과 함께 인천항에 도착했고 1891년 9월 30일에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건립된 성공회 교회이다. 한국 전쟁 당시 훼손된 부분을 수리해 사용하다 1956년 복원해 오늘에 이른다.

내동교회는 중세의 전통과 초기 그리스도교의 양식을 고수한 바실리카양식으로 한국교회 건축양식으로는 유일한 건물이다. 외벽을 화강암으로 견고하게 쌓아 올린 중세풍의 석조 건물이지만 한국 전통 건축방식의 처마양식이 곁들여졌다. 특히 창호와 벽체 부분의 처리가 뛰어나고 지붕은 돔 형식이 아닌 목조트러스로 되어있다. 양 측면 기둥사이마다 큰 창을 설치, 벽돌로 다시 쌓아 틈 사이로 빛이 유입되도록 설계했으며 내부 제단이 놓인 곳과 위쪽으론 빛이 들어와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교회를 감싼 나무 밑 벤치에 앉아 잠시나마 쉬어가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기에도 더 없이 좋은 곳이다.



고요한 주교와 랜디스 박사의 흉상



내부 전경

TIP

성루가병원은 코르페 주교와 함께 들어온 미국인 의사 랜디스가 1895년 성공회 교회 옆에 개원한 인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다 1902년 러시아 영사관으로 임시 사용되다 1904년에는 러일전쟁으로 인한 부상병을 치료 수용하기도 했으나 1916년 폐쇄되었다. 이후 성공회 신학원으로 사용되다 한국전쟁 때 파괴되었다. 병원의 자취는 교회 옆에 표지석으로 남아있다.

09 130여 년, 그들 역사가 곧 우리 민족사다

내리교회



내리교회는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이다. 1891년 대한 주재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1858~1902) 부부가 세웠다. 최초의 개신교인 까닭에 ‘한국의 어머니교회’ 라고도 불린다.

내리교회는 곧 한국근대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3·1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인 신흥식(1872~1939) 목사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후 내리의 담임목사로 부임해(1922~27) ‘인천내리교회역사’(1923)를 직접 기록했다. 그것이 오늘까지 중요한 사료로 전승되고 있다.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교회로도 알려져 있다. 1888년 우리나라 땅을 밟은 조지 존스(George H. Jones, 1867~1919) 선교사의 주선으로 1903년에 102명의 이민단이 하와이로 건너갔는데, 그 중 50명이 내리교인들이었다. 같은 해 홍승하(1863~1918)는 하와이로 건너가 미주 최초로 한인교회인 호놀룰루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의 문을 열기도 했다.

더불어 내리교회 제2대 담임 존스 목사와 부인 마거릿 벤젤 부부에 의해 1892년 8월 내리교회 안에 영화학당이 설립됐다. 이곳은 교육에서 배제되었던 여자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출발해 우월 김활란, 일장기 말소 사건의 동아일보 기자 이길용 등을 배출한 명문학교로도 알려져 있다.

옛 교회 건물들은 세월이 흘러 몇 차례 헐린 후 1958년 12월 다시 완성했다. 현재는 선교 100주년 기념 예배당과 2011년 신축한 아펜젤러비전센터, 2013년 신축한 십자가형 웨슬리에 예배당이 자리한다. 1999년에는 사회복지기관 내리요양원을 설립해 무의탁 노인들을 돕고 있다.

TIP

내리교회는 2015년 12월 한국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내리역사 전시관’을 개관했다. 전시관은 교회 본당 옆 아펜젤러비전센터 3층에 자리한다. 99㎡(30평) 크기의 아담한 공간에서 교회의 역사와 한국 기독교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다.



한국 최초의 안수목사인 김기범 목사



10 푸르스름한 고려 녹청자의 고향 녹청자도요지



서구 경서동 국제 컨트리클럽 안. 조금은 생소하지만 이곳엔 가마터가 있다.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녹청자를 구워낸 도요지이다. 1970년 6월 8일 국가사적 제 211호로 지정된 녹청자도요지는 선조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시대는 약 10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녹청자도요지는 신라 말부터 고려초(9~10세기경)에 지방 호족들에게 녹청자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만든 가마로 추정된다. 역사 문화적으로 소중한 곳으로, 발굴 당시 많은 녹청자 조각과 가마도구가 발견되었다. 현재 발굴 조사 시 드러난 가마의 남은 부분을 보호각으로 지어 보존하고 있다. 가마는 자연 경사를 이용한 통가마로 3차례에 걸쳐 다시 고쳐 쌓았다. 경사 20도 안팎의 가마바닥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자기로 만든 도지미를 깔 후 그릇을 구웠다. 녹청자는 녹색의 짙은 청자로 녹갈색의 유약을 발라 굽는다. 녹청자는 다른 도자기에 비해 철분성분이 많은 점토에 사용하는데, 녹갈색 유약을 발라야 그 독특한 색을 갖게 된다. 드물게 도자기의 몸통에 주름무늬가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문양이 없다. 표면이 투박하고 거친 것이 특징이다. 대접, 접시, 병류가 많다. 재미있는 것은 과거 녹청자도요지가 있던 인근 지역이 말을 타고 작대기를 이용해 나무로 만든 공을 치던 격구장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현재는 도요지가 있는 곳에 골프장이 자리하고 있으니 이렇듯 절묘한 우연이 또 있을까.

TIP

녹청자박물관은 1970년 6월 서구 경서동 녹청자도요지에서 출토된 녹청자에 대한 학술자료의 조사와 연구를 위해 설치된 곳이다. 녹청자 유물과 도자기의 제작과정을 볼 수 있는 역사전시실과 현대도예를 전시하는 기획전시실이 있으며, 도자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도예정규과정과 직접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도예 일일체험 과정이 진행된다.



녹청자



녹청자 조각들



11

1600년의 깊이, 사신들이 오갔던 나루터 능허대지



능허대지 내 연못



능허대지 표지석



연못에 자생하는 지라



연수구 옥련동에는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원이 있다. 공원 내 연못 위에는 과거 백제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정자가 우뚝 세워져 있다.

1600여 년 전 이곳은 나루터였다. 중국을 왕래하는 사신을 태운 배가 이곳에서 출발했다. 겹겹의 세월이 흘러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바다는 어느덧 육지로 조성돼 옛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능허대라는 정자를 통해 과거 이곳이 중국을 오가는 출발지라는 것을 알뿐이다.

능허대지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백제가 중국 동진과 통교를 시작한 372년(근초고왕 27)부터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475년(개로왕 21)까지 백제 사람들은 능허대 밑에 있던 한 나루를 출발해 중국 산둥반도에 이르렀다. 남조에서 온 사신들이 귀국할 때 배가 출항하기를 기다리기에 적합했고, 그들을 배웅하는 백제의 관원들이 멀어져 가는 배를 지켜보기에도 적당한 곳이었다. 일설에 의하면 사신들이 능허대에서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렸다 때를 맞춰 배를 탔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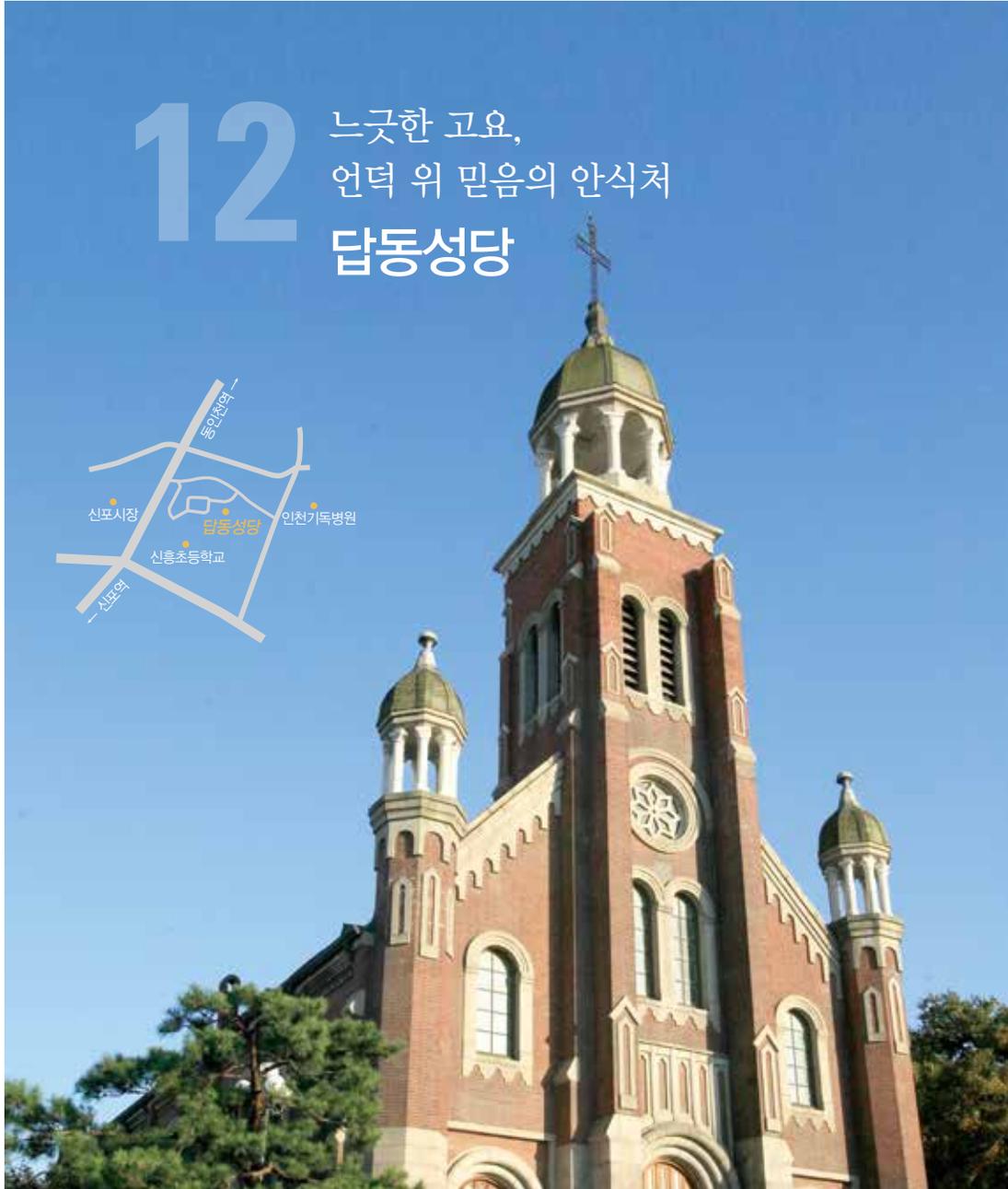
중국을 향한 사신이 출발한지 160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연수구에서는 이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능허대 문화축제'를 열어 백제 사신들의 행렬을 선보이고 있다. 또 작은 나루터가 있던 능허대지 주변은 송도국제도시로 개발돼 이제는 세계인이 드나드는 해상교류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지역 주민의 쉼터로 나무와 풀, 꽃향기가 가득한 능허대지에서 또 다른 천년을 상상해 본다면 너무도 먼 이야기일까.

TIP

능허대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아암도해안공원'도 한때는 섬이었다. 해안도로가 생기고 고립된 섬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바다를 향해 내려갈 수 있게 돼 넓은 갯벌과 바다풍경을 즐길 수 있다. 시기별로 다양한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어 아이들의 자연관찰 장소로도 인기가 많다.

12

느긋한 고요,
언덕 위 믿음의 안식처
답동성당



내부 전경



천주교인천교구 주교좌 답동 성바오로성당은 중구 답동 언덕에 우뚝 세워져 있다. 개항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을 겪어 오면서도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채 우리 질곡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건물이 주는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1981년 9월 25일 사적 제287호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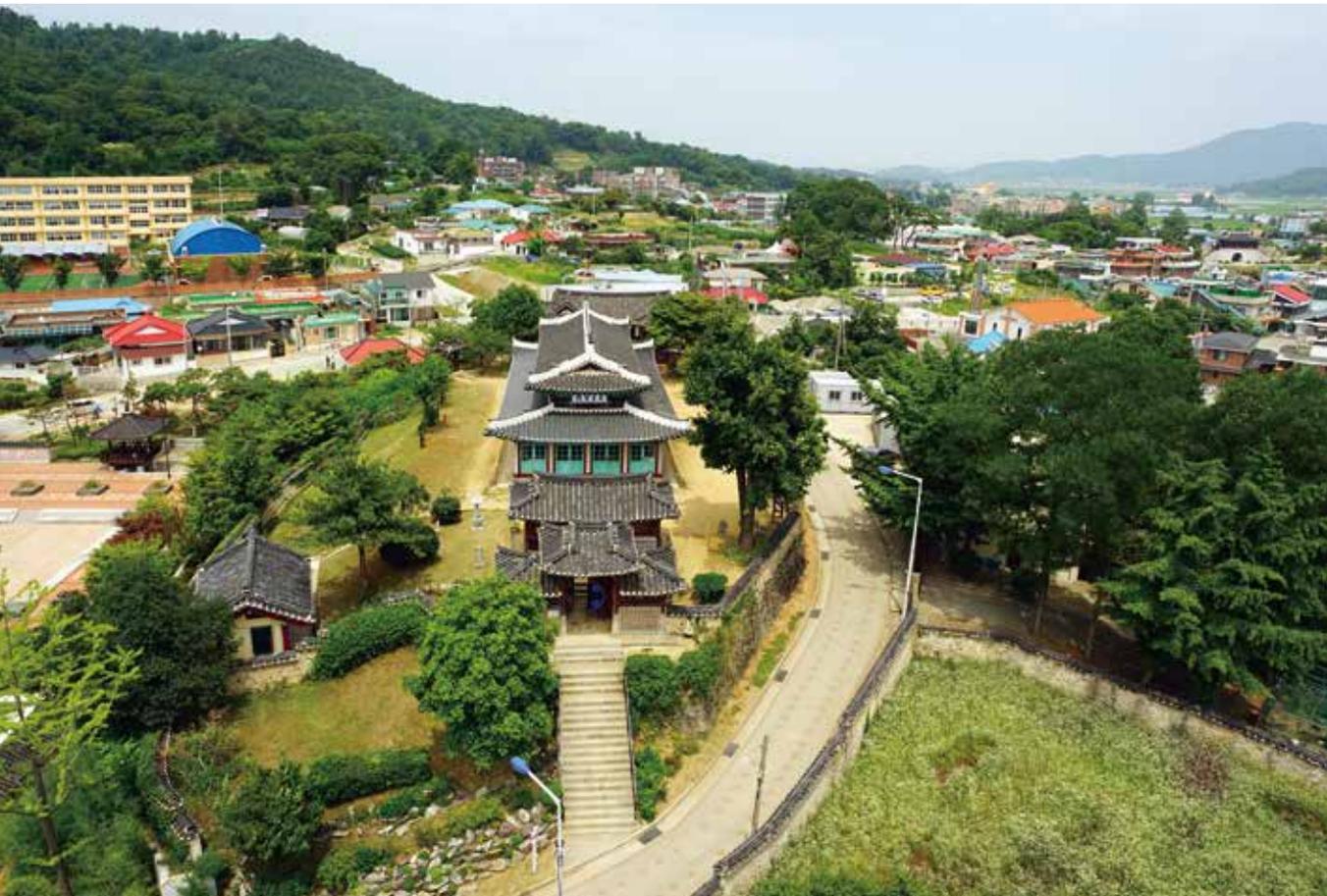
19세기말, 제물포에 성당이 건립된 것은 이곳이 서울의 관문이며 외국 무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곳을 눈여겨 본 당시 조선교구장 블랑(1884~1890, 파리외방전교회) 주교는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의 체결로 개항지의 토지 매입과 성전 건축이 가능해지자, 제물포에 코스트 신부(1842~1896)를 파견해 성당 건립을 하였다.

1933년 신자수가 1500여 명에 이르렀고, 제4대 드뇌(1904~1937) 신부는 증축계획을 세웠다. 1935년부터 성전의 외곽을 벽돌로 쌓아올리는 개축작업을 시작하여 2년 후인 1937년 원 라리보(1933~1940, 재임) 주교 주례로 축성식을 가졌고, 현재에 이른다.

TIP

답동성당의 건축형태는 전면에 3개의 종탑이 세워져 있고 각 종탑마다 8개의 작은 돌기둥이 8각의 종 머리 돌을 떠받들고 있다. 또 각각의 종탑 아래에는 나무로 된 낮은 출입문이 자리한다. 벽면을 넓게 둘러싸고 있는 붉은 벽돌과 흰 화강암으로 된 돌계단은 조화와 질서를 유지해 장엄함마저 느껴진다. 특히 긴 아치형으로 된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은 감탄사를 자아낼 만큼 신비롭게 느껴져 보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느낌을 안겨주고 있다.

13 동서양 건축 양식이 빚어낸 걸작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강화성당은 대한성공회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건물 또한 현존하는 한옥 교회 건물 중 가장 오래 되었다. 고요한 초대주교가 1900년에 축성한 건물로 성베드로와 바오로성당으로 불리었다. 당시 건축공사는 궁궐 도편수가 주도했는데 이후 몇 차례 보수가 있었으나 처음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성당 터를 배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뱃머리인 서쪽에는 외삼문과 내삼문, 동종을 배치했고 중앙에는 성당을 두었으며 후미에는 사제관을 배치했다.

성당 건물은 장방형(넓이 4칸, 길이 10칸) 중층 구조로 한국 정통양식을 따랐으나 내부구조는 서양식 바실리카 건축양식을 응용해 조화의 아름다움과 토착정신을 드러냈다. 내부로 들어가면 두꺼운 갈색 기둥과 선이 간결한 의자, 높은 천장이 어우러져 고풍스럽다.

이곳은 일제 침략의 상처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1910년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일제는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전쟁물자 공출을 이유로 이 교회 정문 계단 난간과 종을 뜯어갔다. 이후 교류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일본 성공회의 성직자와 신자들은 과거를 참회하고 화해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2010년 11월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정문 계단 난간을 복원했다.



강화성당의 현판 '천주성전'



내부 전경

TIP

건물 앞마당 오른쪽에는 보리수가 한 그루 서 있다. 영국에서 돌아오던 신부가 인도에서 10년생 모목을 가져와 심었다. 수령이 100년이 넘었다. 건물 왼편에는 회화나무가 서 있다. 보리수는 석가모니의 득도를 상징하고 회화나무는 유교의 선비를 상징한다. 성당 건물은 두 나무 중심축에 자리하고 있다. 먼저 뿌리내린 종교들과 융합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14 하늘과 맞닿은 성스러운 제단 마니산 참성단

마니산 참성단은 해발 469.4m로 마니산 중턱에 자리한다. 산에 올라 참성단에 닿으면 서해바다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맑은 날이면 개성의 송악산도 볼 수 있다.

이곳은 '고려사'와 '신동국여지승람'에서 단군이 천제를 올렸던 곳이라 전하고 있다. 고려 원종 11년(1270)에 보수했으며, 조선 인조 17년(1639)과 숙종 26년(1700)에도 다시 고쳐 쌓았다.

여러 번 고쳐 쌓았기 때문에 최초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신성한 제단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제단은 자연석으로 둥글게 쌓았는데 하늘을 뜻하는 하단과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상단으로 구성돼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이곳에서 도교식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조선 후기 단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성단을 단군시대의 종교와 관련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일제강점기에 단군을 숭배하는 대중교가 생긴 이후 민족의 성지로 주목받게 되었다. 지금도 해마다 개천절(10월 3일)이면 제천행사가 거행된다. 전국 체전의 성화는 이곳에서 태양열을 이용해 밝히고 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참성단 한쪽에 자리한 소사나무이다. 마치 단군신화의 신단수를 연상케 하는 이 나무는 수령이 150여 년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일설에 따르면 1717년(숙종43) 강화 유수 최석향이 참성단을 수리하며 심은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TIP

마니산은 백두, 한라와 더불어 민족의 영산으로 알려져 있다. 국난극복의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우리민족의 정기가 솟아나는 전국 제일의 생기발원처라고 전해진다. 매년 참성단에서는 전국체전 성화 채화와 개천절을 맞이해 국운의 번영을 기원하는 강화개천대제가 봉행된다. 힘든 일과로 지친 현대인들이 마니산의 샘솟는 기를 받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많이 찾고 있다.



강화개천대제



참성단



15 옛것에서 새로움을 배운다

부평도호부청사



조금은 시끌벅적한 부평초등학교에 들어서서 조선시대 관아 건물인 부평도호부청사를 만난다. 지금은 초등학교 내 공간을 빌려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는 지엄한 훈령이 내려지던 제법 큰 규모의 관아였다. 조선시대 태종 13년(1413)에 부평부가 부평도호부로 승격되면서 청사 건립에 착수, 약 5년 후인 태종 18년(1418)에 완공되었다. 아쉽게도 초등학교가 세워지면서 대부분의 관아가 헐렸다. 현재 건물만이 교정 모퉁이로 이전돼 지금에 이른다. 풍치목으로 심어져 600여 년의 세월을 견뎌온 은행나무가 방문객을 대신 맞는다.

‘부평부읍지’에 의하면 중심업무를 보던 동헌과 관리, 외국사신이 묵었던 객사, 죄를 다스리던 포도청 등 수많은 건물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원래 7자형이었는데 1968년 다시 옮기면서 날개를 떼어버리고 일(-)자형 건물로 개조되었다. 이로 미루어 이 건물이 동헌(東軒)이라기보다는 내아(內衙)였을 가능성이 높다.

규모는 앞면 6칸, 옆면 2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팔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조선시대 연못의 전형인 옥은지이다. 긴 돌을 이용해 단을 쌓았으며 네모 형태로 만들어졌다. 연못 동쪽에 쌓여진 돌 가운데에는 고종 24년에 고쳐지었다는 기록을 새긴 돌이 있다.

TIP

부평도호부청사에서 10여분 거리 위치에는 부평향교가 자리한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지방 중등교육과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창건됐지만 병자호란 때 소실돼 그 후 재건했다. 6칸의 대성전, 7칸의 명륜당 등이 있으며, 봄, 가을에 석전대제를 봉행하고 있다.



부평도호부청사 앞 은행나무



16 8명의 고려왕과 14명 왕비의 산실 원인재



도심 속에서 만나는 고풍스런 한옥은 우리에게 작은 심표와 같다. 도로에서 만나는 수많은 자동차와 건너편 아파트 단지 때문인지, 한옥의 정서는 더한 여운을 전한다.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호인 원인재이다. 원인재(源仁齋)의 뜻은 '인천(仁川)이 인천 이씨 각 파의 근원지'라는 뜻으로, 인천 이씨 시조 이허겸의 묘역을 수호하고 제사를 받들기 위한 곳이다.

원인재 경내로 들어서니 원인재, 명인사, 연화부수형의 명당에 위치한 이허겸의 묘소와 연못, 돈인재를 중심으로 동재인 승휴당과 서재인 울수실로 이루어져 있고, 후문 침소문 밖으로는 이허겸의 신도비와 우리나라 최초의 비평문학서인 파한집의 저자, 이허겸의 7세손인 쌍명재 이인로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인천 이씨 중시조인 이허겸의 선조는 신라 때부터 지금의 인천인 소성현에 살았다. 신라 때 사신으로 중국 당나라에 갔다 천자로부터 성(姓)을 받았으나 인천 이씨가 고려시대의 귀족대열에 끼지 못한 것은 이허겸 때부터라고 전한다. 그의 손녀 3명이 모두 현종의 비가 되었는데 첫째 손녀는 원성황후로 덕종과 정종 두 왕을, 둘째 손녀는 문종을 낳았다.

그 뒤 문종에서 인종에 이르기까지 7대에 걸쳐 고려시대 귀족정치의 막강한 파벌을 이루었다.



원인재

지금의 원인재는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원인재 상량문에 새겨진 32세손과 33세손의 글을 통해 조선 순조 7년(1807년) 혹은 고종 4년(1835년)에 세운 것이라 알려지고 있다. 원래는 연수동 신지 마을에 있었으나 1994년에 택지개발로 현재 장소인 묘역 옆으로 옮겨 복원 증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승기천변과 주변 산책로의 나무, 꽃이 어우러져 옛 건물의 정취가 더욱 빛난다.

TIP

인천은 본래 고구려의 매소홀현인데, 신라 경덕왕이 소성현으로 고치고, 고려 숙종조에 어머니 인천 이씨 인예태후의 고향으로 경사의 근원지라 하여 경원으로 바꾸고 경원군으로 승격하였고, 인종조에는 어머니 인천 이씨 문경태후의 친정이라 하여 인주로 불렸으며, 공양왕조에는 경원부로 승격하였고 7대어항이라 불렸으며, 조선 태종조에 이르러 현재의 인천으로 바뀌었다. 인천의 지명이 인천 이씨와 고려 왕실과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소성 → 경원 → 인주 → 인천으로 바뀌었던 인천 이씨의 본관도 지명에 따라 소성 → 경원 → 인주에서 현재의 인천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허겸의 묘



17 지금도 수령칠사가 들려오는 듯 한데 인천도호부청사



남구 승학산 자락에 자리한 인천도호부청사는 조선 시대에 행정을 담당했던 관청이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도아래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을 두어 지방행정업무를 관장했다. 인천에 도호부가 설치된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강희맹이 쓴 '인천부승호기'에 1424년 이미 객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최소한 그 이전에 도호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도호부에는 왕권의 상징인 객사를 비롯해 부사의 집무처인 동헌, 내동헌 등 15~16동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현재는 문학초등학교 교정에 객사와 동헌 일부만 보존되어 있다. 이곳에 자리한 건물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화도진도'를 근거로 객사, 동헌, 공수 등 7동의 건물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한 것이다. 청사 내에는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맷돌, 다듬이와 같은 생활 용품은 물론 북, 징, 팽과리, 소고와 같은 전통악기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외줄타기와 굴렁쇠, 연날리기, 제기차기, 팽이와 같은 우리나라 전통 놀이문화도 직접 즐길 수 있다. 인천도호부청사 양옆으로는 인천향교와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 나란히 자리한다. 인천향교는 조선시대 국공립 중등교육기관으로 현재 시유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은 무형문화의 보존과 인천 문화의 정체성을 위해 건립된 곳으로 전시, 공연, 교육, 체험 등이 가능하다.

TIP

도호부의 모든 행정을 통괄하는 도호부사의 주된 임무는 수령칠사(守令七事)였다. ①농사와 누에치는 일을 잘 돌볼 것 ②인구를 늘릴 것 ③교육을 진흥시킬 것 ④군대에 관한 사무를 바르게 할 것 ⑤부역 등을 균등히 할 것 ⑥민사의 소송을 바르게 할 것 ⑦간교하고 교활함이 없도록 할 것 등이다. 이들의 치적은 관찰사를 통해 매년 임금에게 보고되었다. 유사 시에는 군대를 지휘하는 군사지휘권도 갖고 있었다.



전통놀이예시

18 130여 년 동안 한결같이 기쁜 소식을 전하다 인천중동우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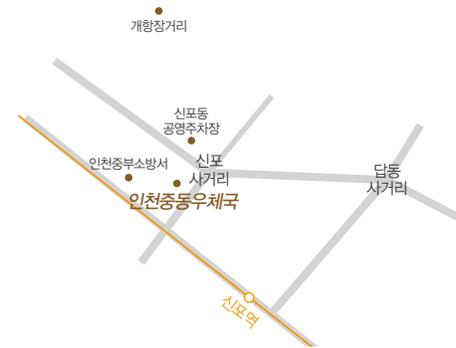
불과 30여 년 전 이메일이 없던 시절, 우편은 소식을 주고받는데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기다리는 소식이 있을 때면 매일 집배원을 기다렸고, 편지받는 순간의 기쁨은 무엇보다 컸다. 지금은 이메일과 SNS로 많은 부분 대체가 되었지만, 우편업무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우리나라에 있어 근대 우편통신망의 출발점은 인천과 서울이다. 인천은 1884년 11월 우정총국 인천분국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4일 갑신정변으로 우정총국이 폐지되자 업무를 중단한 후 1895년 7월,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새로운 우편사업이 재개되면서 한성과 인천에 우체사를 설치해 우편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1905년 4월에는 한일통신기관협정 체결을 강요하면서 우리나라 통신권이 강탈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 '우체사'의 명칭도 일본식인 '우편국'으로 바꾸고 금융업무까지 취급하였다. 일본의 인천우편국은 1923년 12월 중구 향동에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하였다. 광복 후 1949년에는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인천우편국'을 '인천우체국'으로 바꾸었다.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하고 현재는 '인천중동우체국'이라는 이름으로 업무가 지속되고 있다. 건물은 6.25전쟁 때 일부가 파손돼 1957년 복구공사를 했으며 당시 유행했던 절충주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간직한다.

입구 양쪽에 큰 기둥을 세우고, 주 출입구를 사거리 방향으로 돌출시켰는데 좌우로 펼쳐지듯 지어져 원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수평선을 강조한 지붕 돌림띠와 정문 좌우 지붕 위에 올려놓은 두 개의 4각 지붕도 눈길을 끈다. 동서양의 건축양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근대 건축물로 우체국 건물 중에서는 가장 오래 되었다.



TIP
 당시 집배원은 '우전인', '체전부', '체부', '우체부'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를 읽어야 했기에 언문과 한문을 읽을 줄 알아야 했다. 인천과 한성의 우체사 체전부는 매일 오전 9시에 출발해 중간 지점인 오류동 신장기에서 만나 우편물을 맞교환 했다고 한다.



19

벚꽃이 비가 되어 내리는 길 자유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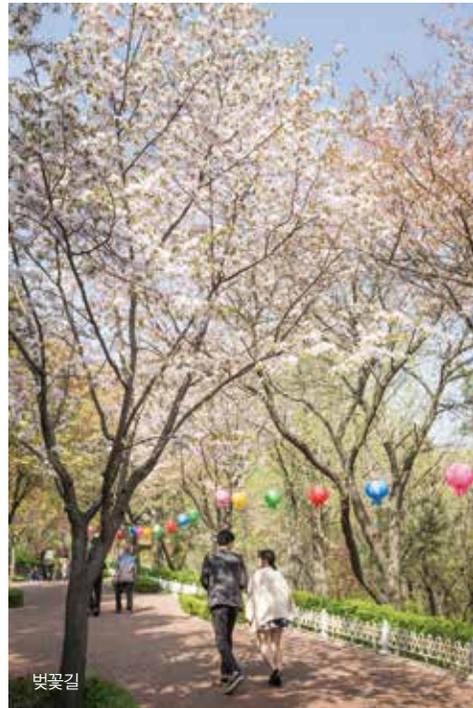
차이나타운과 이어진 길, 벚꽃과 만추에 대한 기억, 자유공원은 계절이 오고갈 때마다 찾아온 이들을 다른 모습으로 맞는다.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다. 중구 송학동 1가와 전동, 북성동3가에 걸쳐 있다. 1883년 인천의 개항과 함께 응봉산 일대에 일본·청나라를 비롯한 미국·영국·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어울려 만든 '만국지계'가 들어섰다. 이들에 의해 1888년 만국공원이 조성되었다. 이후 1957년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세워지며 자유공원으로 개칭되었다.

공원이 만들어질 당시의 구한말은 정치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였고, 시대의 변화와 역사의 소용돌이를 인천시민과 함께 곳곳이 이겨냈다. 지금은 인천을 대표하는 공원 중 하나가 되었다.

공원 내에는 맥아더 장군 동상과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을 비롯해 자연보호헌장탑, 충훈탑, 석정루 등이 자리한다. 석정루에 오르면 서해바다가 한 눈에 들어온다. 동양제일의 도크와 외항을 둘러싼 월미, 작약, 영종, 팔미도의 섬들이 아슬라이 펼쳐진다.

우거진 수풀 사이 또는 나무그늘 아래를 다정히 걸을 수 있는 산책 공간도 조성되어 있다. 특히 봄이면 벚꽃이 만개해 누구나 발걸음 하고 싶어 할 만큼 공원이 눈부시다. 매년 4월이면 자유공원에서 축제가 열린다.



벚꽃길



맥아더장군 동상

TIP

자유공원 주변에는 개항장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장소가 많다. 1908년 일본 공병대가 준공한 흥예문은 현재까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당시 인천에 거주하던 영, 미, 독, 러, 일본인들의 사교장이었던 제물포구락부와 1904년 기상관측업무를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관측소 인천기상대도 자리한다.



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

20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은? 전등사



전등사 대웅보전



삼랑성

전등사를 향해 야트막한 숲길을 오르다보면 성문과 돌로 쌓은 성곽을 만나게 된다. 전등사를 에워싸고 있는 삼랑성이다. 전설에 의하면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고 전해진다. 고대 토성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어 국가사적 제130호로 지정되어 있다. 삼랑성은 산의 능선을 따라 축조되어 있다. 보호라도 받듯 삼랑성 안에 전등사가 자리한다. 1600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전등사는 고구려 소수림왕 11년(381)에 아도화상이 처음 창건하고 진종사(眞宗寺)라 이름 지었다. 그 후 고려 충렬왕비 정화공주가 이 절에 귀한 옥등을 시주했다 하여 전등사로 개명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임금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결을 지었고, 조선 병인양요 때는 양현수 장군이 병력을 이끌고 초지진을 건너 이곳(삼랑성)에서 프랑스군을 무찔렀다. 전등사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전등사 대웅보전 공사에 참여한 목수가 어느 여인과 사랑을 차릴 생각으로 그녀에게 돈을 모두 맡겼다. 하지만 변심한 여인은 다른 남자와 도망을 갔고, 목수는 대웅보전 추녀 밑에 그 여인을 조각해 넣었다. 평생 무거운 지붕을 떠받들고 있으라는 의미였다. 뜰엔 6백 년 된 은행나무와 한 번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전해지는 윤장대가 놓여있다. 대웅보전은 조선 중기의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약사전, 범종과 더불어 전등사의 3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가을이 되면 전등사를 둘러싼 산에 오색의 색채 향연이 펼쳐져 계절 정취를 가득 느낄 수 있으며,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깊은 고요와 평안을 선사한다. 전등사에서 진행하는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TIP

『고려사』와 『세종실록지리지』에 단군의 세 아들이 삼랑성을 쌓은 것으로 전해진다는 기록이 있다. 정족산성(鼎足山城)이라고도 하는데 성의 둘레는 대략 2,300m이다. 축성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거친 할석(割石)을 사용한 삼국시대의 축성 기법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쌓은 성으로 추정된다.

21 130여 년 전 짜장면의 탄생지 인천차이나타운

춘장에 갖은 야채를 넣고 센 불로 볶아낸 짜장면 소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군침을 돌게 만든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짜장면은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 추억의 음식, 간편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국민음식이다. 짜장면이 처음 시작된 곳이 인천차이나타운이다.

130여 년 전 인천항 개항이후 선린동 일대는 청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중국의 건축 방식을 본뜬 건물이 세워졌고 중국 상인들도 하나 둘 모여들며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었다. 당시 중국 산둥에서 건너온 화교들은 선린동 지역에 중국요리점(구, 공화춘)을 열었다. 그들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했는데 그 노력 끝에 만들어 진 것이 짜장면이다.

차이나타운의 주요 먹거리 역시 짜장면이다. 인천역에서 제1패루 안쪽으로 걷다보면 짜장면과 짬뽕이 주 메뉴인 음식점들이 즐비해 짜장면거리가 형성돼 있다. 최근에는 근대음식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등록문화재 제246호 공화춘에 국내 최초로 짜장면박물관을 개관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음식 문화 외에도 차이나타운 일대에는 개항 당시의 건축 문화와 자료가 보존돼 있어 연중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화교중산학교, 청일조계지와 공자상 등을 비롯해 한중문화관, 중국어마을 문화체험관, 중국식 점포 건축물, 삼국지 벽화거리 등이 자리한다.

매년 봄에는 '인천·중국의날 문화축제'를 벌여 중국과의 문화 교류는 물론 우호증진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TIP
제2패루 인근에 자리한 한중문화관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비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한중문화전시실, 홍보관, 정보실, 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주말 상설공연과 기획전시를 무료로 진행한다. 특히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차이나타운 패루



삼국지벽화거리



짜장면박물관

22 외세에 맞서 강화해협을 지켰던 광성보



바닷가 언덕 위에 자리한 광성보. 숲과 해안이 어우러져 싱그러운 풍경이지만 이곳엔 굽이쳐 흐르는 바다의 거센 물살만큼이나 강렬한 호국의 역사가 깃들어 있다. 광성보는 강화 해협을 지켰던 중요한 요새로 강화 12진보 중 하나이다.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강화로 천도한 후 돌과 흙을 섞어 해협을 따라 길게 쌓은 성터이다. 조선시대 광해군 때 다시 고쳐 쌓았으며 1658년(효종 9)에 강화 우수 서원이 광성보를 설치한 후 숙종 때 석성으로 축조했다.

1871년 신미양요 때는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였다.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해협을 거슬러 올라오는 미국 로즈함대를 덕진진, 초지진, 덕포진 등의 포대에서 일제히 사격을 가해 물리쳤으나 4월 23일 미국 해병대가 초지진에 상륙해 덕진진을 점령한 뒤 광성보로 쳐들어왔다. 이 전투에서 어재연 장군 등 조선군 대부분이 순국했다. 이때 파괴된 문루와 돈대는 1976년에 복원하고 당시 전사한 무명용사들의 무덤도 보수 정비했다.

피비린내 났던 광성보 전투의 기억은 시간 속으로 흩어져 흔적만 남아있다. 안해루를 지나 잘 다듬어진 산책로를 걸으면 울창한 소나무 숲과 시원한 바다가 어우러져 수려한 풍광을 자랑한다. 산책로를 따라 쌍충비, 손돌목돈대, 광성포대, 용두돈대를 만날 수 있다. 이 외에도 무명용사비, 신미승의총 등이 세워져 있다.

TIP

광성보에서 초지대교로 가는 길목에는 고려시대에 강화해협을 지키던 외성의 요충지로 12진보 중 하나였던 덕진진이 자리한다. 또 덕진진에서 2.7km거리에는 신미양요(1871) 때 미국 해병 450명이 20척의 작은 배로 상륙을 감행해 격전이 벌어졌던 초지진이 위치한다.

23 선조들의 풍류와 멋 바람이 머무는 곳 연미정



바람의 길손이 잠시 머물러도 좋을 만큼 사방이 트였다. 1995년 인천광역시 유형 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된 이곳은 강화 10경 중 하나로 꼽힌다.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서해와 인천으로 흐르는 물길 모양이 제비꼬리와 비슷해 연미정이란 이름이 붙었다. 옛날에는 서해로부터 서울로 가는 배가 이 정자 밑에 닻을 내려 조류를 기다렸다 한강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최초 건립연대는 정확치 않으나 고려시대 왕이 구재의 학생들을 이곳에 모아 면학케 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전쟁을 거치며 여러 차례 시련을 겪고 파손된 것을 다시 복원했다.

건물은 팔각지붕의 겹처마로 돌기둥 위에 10개의 기둥을 얹어 지은 민도리집인데 지붕선이 매우 아름답다. 예로부터 달맞이 때문에 강화팔경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이곳에서의 달맞이는 유명했다고 전한다. 한강 하구에서 가장 뛰어난 경치를 보여주는 곳이라 하니 달빛이 비어낸 운치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가히 짐작이 된다.

북한 땅이 보이는 곳으로 낮이면 파주와 김포시, 북한의 황해도 개풍군 일대를 조망할 수 있다. 탁 트인 바다 풍경과 더불어 세월이 스며든 성벽, 정자 옆에 선 오래된 느티나무 두 그루도 다정하게 와 닿는다.

TIP
조선시대에 들어 와서는 중종이(1510) 삼포왜란 때 큰 공을 세운 병마절도사와 공조판서 등을 역임한 황형 장군(1459~1520)에게 이 정자를 주었다. 그 후 황형 장군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 곳 월곡리 연미정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 왔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씨 집안 소유로 되어 있었다.



24

열강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세웠던 화도진



바다로 내민 긴 땅은 멀리서 봤을 때 섬처럼 보였다. 꽃섬은 꽃섬으로 와전돼 꽃섬이 되었고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화도’라 불린다. 화도진은 19세기 중엽 중국과 일본에 진출해 있던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조선에도 개방을 요구해오자 서해안의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축조된 진영이다. 이곳은 수도 서울로 통하는 수로관문이었다.

진은 지방군사를 관리하던 지방 관제의 하나로 진영장 품계에 따라 주진(절도사종2품), 거진(절제사정3품), 제진(만호, 도위종4품)이 있었으며, 화도진은 만호와 도위가 주재하는 제진에 속한다.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다른 제진의 기록에 의하면, 이곳에 70~80명의 병사가 주둔했다고 전해진다.

현재의 화도진은 1988년에는 화도진도를 기본으로 복원하였다. 현재 통상수령 등이 정무를 집행했던 동헌 그리고 안채, 사랑채 등이 자리한다. 안채에는 보료, 반진고리, 버선장, 3층장 등 각종 유물들이 진열되어 있고, 대청마루에는 찬장과 쌀뒤주, 장탁자 등 당시의 생활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또 전시관으로 개조된 행랑채에는 장군의 영정을 비롯해 무기류와 집기류 등 군사 장비가 전시되어 있다.

화도진지 부근은 소나무와 정자, 벤치 등이 잘 구성되어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다.

TIP

화도진도서관은 인천 개항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 도서관 내 향토개항문화자료관은 향토역사 체험학습장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화도진축제는 화도진공원과 동인천역 복광장 일원에서 매년 5월 개최되는 군영축제이다. ‘어영대장 축성행렬’ 등 화도진의 역사성을 재조명하는 문화행사와 다양한 공연,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인천관광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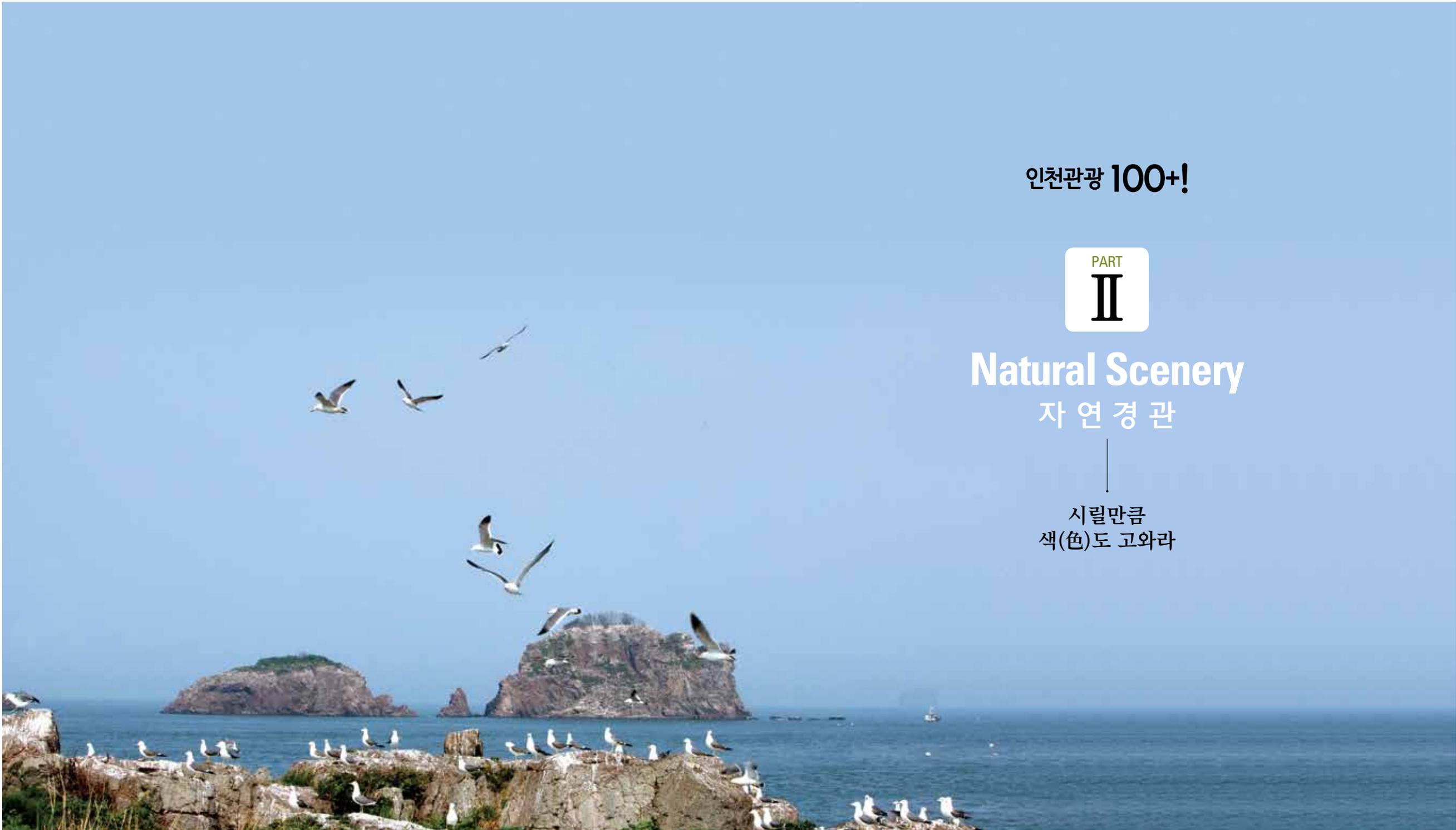
PART

II

Natural Scenery

자연경관

↓
시릴만큼
색(色)도 고와라



25 밀물과 썰물~ 바다의 콩팥 강화갯벌



바다와 인접한 강화도 남단 도로를 달리다 보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검은 해변을 만나게 된다. 빠른 속도로 지나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차에서 내려 갯벌 위에 서는 순간 살아 있는 생태계를 발견하게 된다. 하루 두 번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 낸 강화갯벌, 갯벌은 강화 남부지역, 석모도, 불음도에 걸쳐 넓게 펼쳐져 있다.

강화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갯벌 중 하나이다. 강화갯벌은 보존상태가 좋아 그 경제적 가치는 무한대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2000년 강화도 남단, 석모도, 불음도 등 주변 4억 4,880만㎡(1억 3,600만 평)의 갯벌을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흔히 갯벌은 자연정화 활동을 하기에 '바다의 콩팥'이라고 말한다. 서해안 지역에서 적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도 갯벌의 정화능력 때문이다.

특히 강화갯벌은 시베리아, 알래스카 지역에서 번식하는 철새가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중 먹이를 먹고 휴식을 취하는 중간휴게소 역할을 한다. 세계적인 희귀종 천연기념물 제205호인 저어새의 번식지로도 유명하다.



TIP

강화갯벌을 보기 위해서는 강화갯벌센터를 방문하는 게 좋다. 철새 탐조대와 갯벌에 대한 모든 자료를 체험할 수 있다. 강화갯벌의 모습과 저어새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는 망원경이 비치되어 있다. 주변 관광지로는 동막해변과 장화리일물조망지가 있다. 강화에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매화마름군락지가 있다. 매화마름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로 여러해살이 수생식물이다. 4~5월이면 지름 약 1cm의 꽃이 무리지어 핀다.



강화갯벌센터 철새 탐조대



매화마름군락지

26 역사와 문화 숨결 따라 걷는 길

강화나들길

길게 이어진 길, 때론 한적하고 고즈넉한 길이 여행자를 맞는다. 불어오는 바람에는 짝조름한 바다 내음이 섞여 있고, 한낮의 햇살은 따사롭다. 강화나들길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노라면 새로운 풍경과 세계가 펼쳐진다.

강화나들길은 강화의 역사와 문화의 면면을 콕콕 밟듯이 통과한다. 한반도의 오래된 역사부터 근현대사를 만날 수 있고, 한국인의 오랜 정서와 삶의 문화가 길 깊숙이 배여 있다. 강화나들길의 유래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6년 화남 고재형 선생이 강화도의 유구한 역사와 수려한 자연을 노래하며 걸었던 길을 살려냈다. 2009년 3월 처음 4개 코스를 열었고, 그 후 하나둘 새로운 길이 이어졌다. 지금은 20개 코스, 310.5km에 달한다. 심도역사문화길, 호국둔대길, 능묘가는길 등 주제에 따라 나뉘져 있어 원하는 대로 길을 선택하는 것도 즐거움이다.

길을 걷다가 세계문화유산을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 나들길은 선사시대 고인돌을 통과한다. 나아가 길은 고려시대의 왕릉과 건축물, 그리고 외세에 맞서 싸웠던 조선시대 진보와 둔대를 만나게 한다. 바다와 강이 있으며, 파란 하늘과 들판 사이로 난 길을 걷다보면 여행자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과 조우한다. 뜨거운 숨결이 채 가지지 않아 붉게 타오르는 태양, 그 강렬한 빛에 검은색으로 변해버린 바다와 섬들,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길 위에서 만나는 살아있는 자연. 강화나들길이 지금 우리를 부른다.



TIP
 강화나들길 코스는 모두 20개 코스가 있다. 강화 본섬 14개 코스 249.9km / 석모도 2개 코스 26km / 교동도 2개 코스 33.2km / 주문도 11.3km / 불음도 13.6km로 구성되어 있다. 총 거리는 310.5km 이다. (홈페이지 www.nadeulgil.org 참조)

27 물길따라 펼쳐진 다채로운 풍경 경인아라뱃길



제1회 아라뱃길 전국 사진공모전 수상작
(제공 : 워터웨이플러스)

경인아라뱃길 주변을 찾아온 계절 빛이 다정하다. 강물과 들, 사람이 조화로워 작은 풍경 하나에도 눈길이 머문다. 일상을 잠시 잊게 만드는 물길, 눈길이 닿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풍경따라 경인아라뱃길이 길게 이어진다.

경인아라뱃길은 서해바다와 한강을 잇는 18km의 물길이다. 수변을 따라 조성된 수향8경과 파크웨이, 자전거 도로 등 볼거리가 다채롭다. 시원한 강바람 맞으며 산책길을 따라 가면 한국 전통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수향원이 펼쳐진다. 작은 소나무 숲을 지나 누각에 오르면 뱃길의 경치가 그림 처럼 아름답다. 겹쳐마 팔각지붕으로 이루어진 수향루는 기품과 위엄이 느껴지면서도, 단아한 선으로 고풍스런 멋이 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공폭포와 아라마루 전망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사방이 탁 트인 전망대에 서면 길고 긴 뱃길이 싱싱하게 펼쳐진다. 절벽 위에 세워져 유리로 된 바닥을 걸으며 경인아라뱃길을 보는 것은 짜릿한 즐거움을 준다. 도심 속 최대 워터프론트 공간인 시천가람터, 32km에 달하는 아라자전거길 등 경인아라뱃길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있는 곳이다. 게다가 경인아라뱃길은 치수기능을 하고 있다. 굴현보를 통해 굴포천 유량을 조절함으로써 인천, 경기 지역의 홍수를 방지하고 있다.

TIP

강릉에 정동진이 있다면 인천에는 정서진이 있다. 뱃길과 맞닿은 새로운 여행지로 매년 연말이면 정서진 아라빛 섬 광장 일대에서 정서진해넘이축제가 벌어진다. 다양한 축제공연과 해넘이 기념식, 일몰 카운트다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 인천 서구에는 특별한 섬, 세어도가 있다. 호젓한 섬에서 즐기는 여유를 맛보기 위해 최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정서진 노을중



아라 파크웨이



아라마루 전망대



불꽃크루즈



28 인천 하늘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계양산

주말이 되면 계산역 주변으로 등산복 차림의 시민들을 쉽게 만나게 된다. 해발 395m의 계양산은 강화도를 제외하면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봄철이 되면 진달래가 산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사방이 나타난다. 서쪽으로는 영종도와 강화도 등 주변 섬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동쪽으로는 김포 공항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전경이, 북쪽으로는 고양시가, 남쪽으로는 인천광역시가 펼쳐진다. 산 정상에서 여러 도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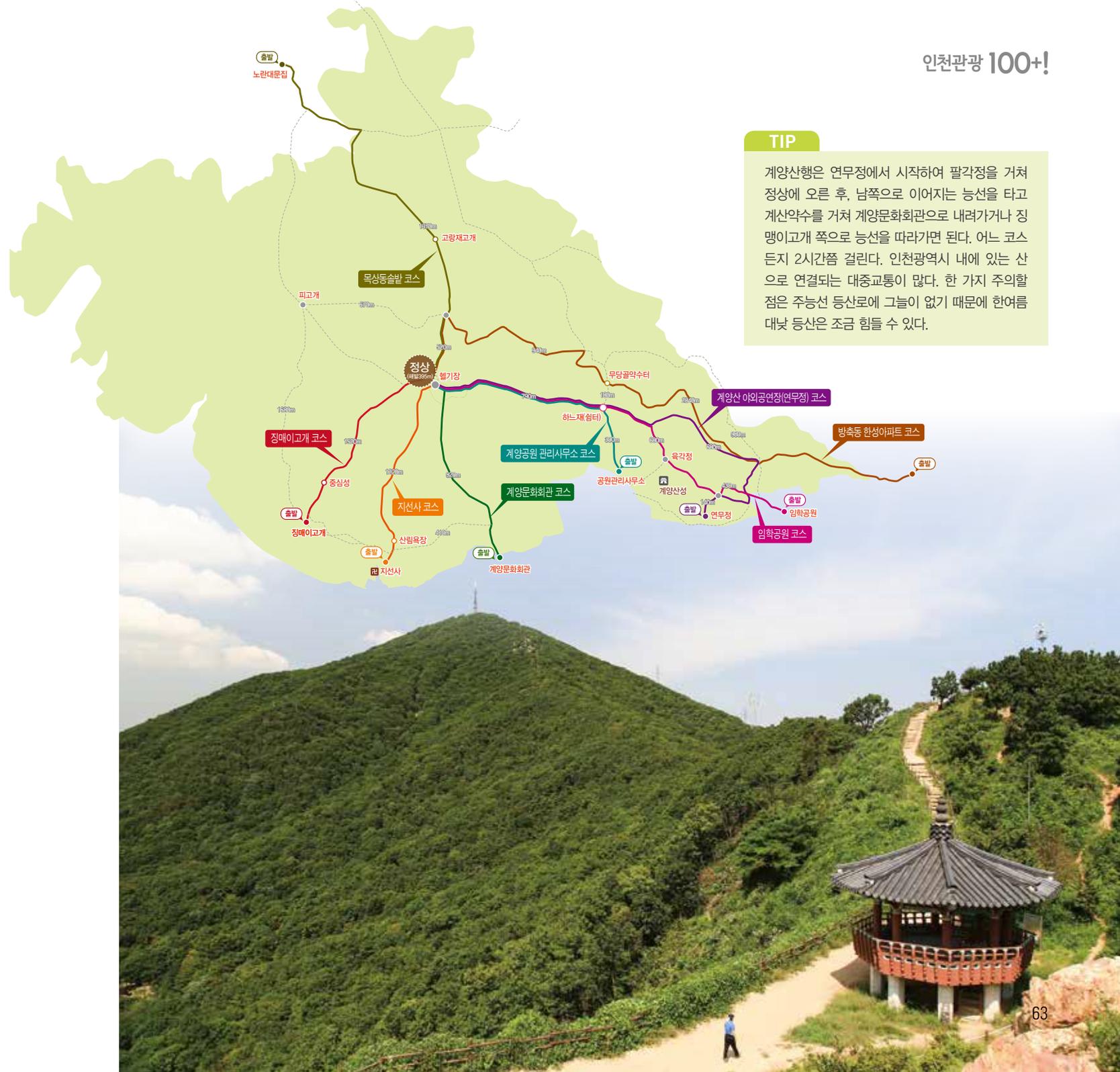
등산객들이 계양산을 즐겨 찾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 도심에서 울창한 숲과 개울,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산 정상으로 오르면 좋지만, 산 중턱 뜰에서 돛자리 펴놓고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맞으며 쉬는 것도 좋다. 소나무가 군락이 이루고 있어 불어오는 바람에 묻어오는 솔잎향이 느끼는 것도 계양산이 주는 즐거움이다.

산 아래에는 계양문화회관과 경인여자대학교 · 백용사 · 성불사 · 연무정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남단에는 1986년에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계양공원이 들어서 있으며, 계양산성과 봉월사터 · 봉화대의 유적지와 고려시대의 학자 이규보가 거처하던 자오당터와 초정지가 위치한다.



계양산성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0호인 계양산성(桂陽山城)은 계양산 동쪽 능선에 있는 돌로 쌓은 산성이다. 고산성이라고도 부르며,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보문헌비고』, 『관방성곽조』에 의하면 성둘레가 1937보(步)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성곽이 훼손된 상태이다.



TIP

계양산행은 연무정에서 시작하여 팔각정을 거쳐 정상에 오른 후,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타고 계산약수를 거쳐 계양문화회관으로 내려가거나 징메이고개 쪽으로 능선을 따라가면 된다. 어느 코스든지 2시간쯤 걸린다.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산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이 많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주능선 등산로에 그늘이 없기 때문에 한여름 대낮 등산은 조금 힘들 수 있다.



굴업도 전경



굴업도 노을

29 하늘과 별, 바다를 가깝게 느끼다 굴업도



TIP

굴업도는 인천에서 서남방으로 90km 떨어져 있다. 굴업도로 가려면 조금 세밀한 여행계획이 필요하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덕적도로 간 다음, 덕적도 진리선착장에서 굴업도 행 배를 갈아타야 한다. 덕적도와 굴업도를 오가는 배 울도선은 짝수일과 홀수일에 따라 운행거리와 시간이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하다. 울도선의 승선인원은 160명 내외에 불과하기에 2~3주 전,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어느 시인은 서해의 섬을 '누워 쉬는 섬'으로 표현하였다. 모로 누워 있을 때의 허리곡선처럼 서해 섬들이 완만한 곡선미를 가졌다는 의미다. 특히 굴업도가 그렇다. 굴업도 중심부에 있는 개머리언덕이 섬의 구비진 형상을 이룬다. 사람이 구부리고 엎드려 땅을 파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굴업도'라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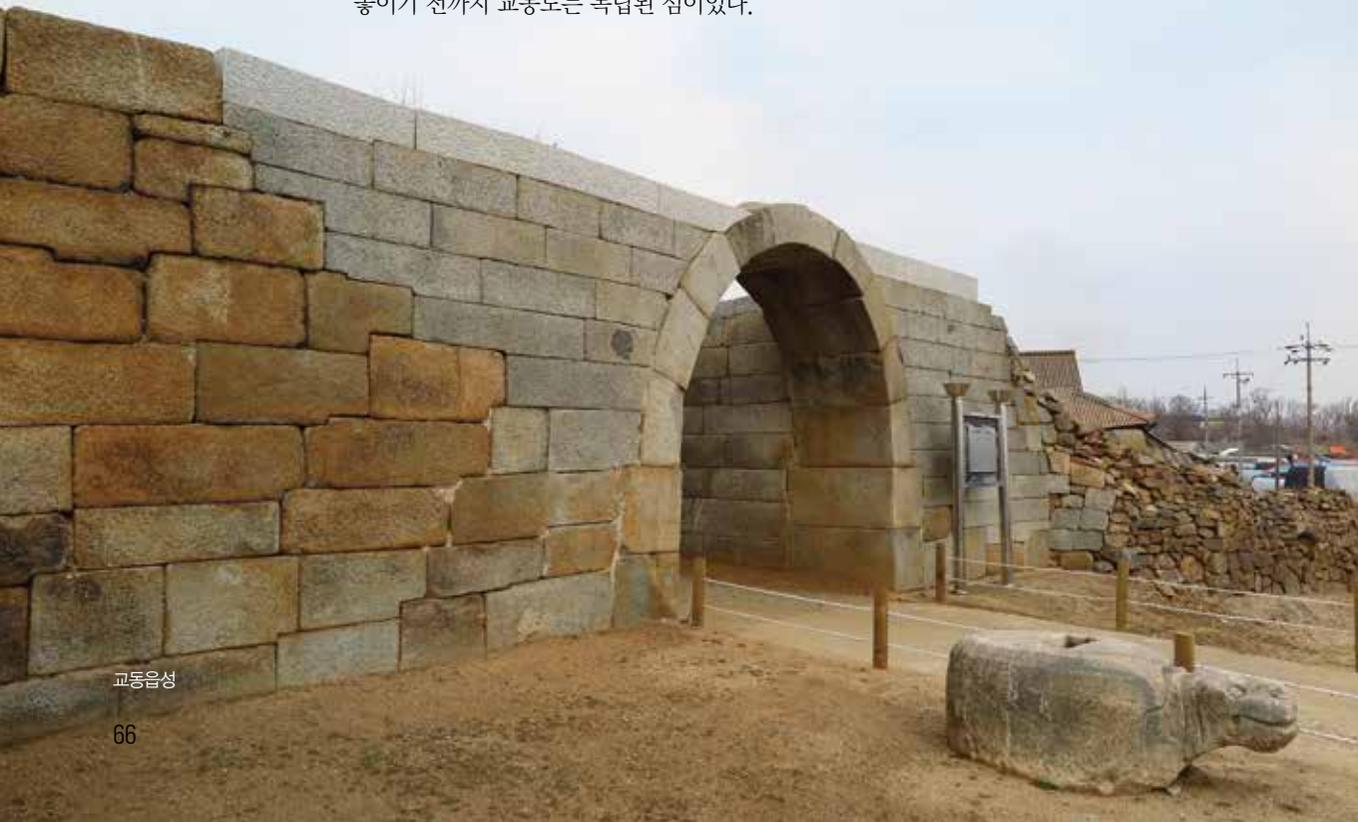
흔히 굴업도를 두고, 백패킹족들의 성지라고 말한다. 그런 때문인지 굴업도로 들어가는 울도선 나래호에는 배낭을 맨 사람들이 많다. 야영을 즐기는 사람은 대부분 개머리 언덕에 텐트를 친다. 개머리언덕은 개의 주둥이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 언덕을 오르면 사방으로 탁 트인 바다와 굽이굽이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굴업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저녁이 되면 붉게 변한 바다와 하늘, 바다 너머로 내려가는 석양과 마주하게 된다. 밤이 되면 하늘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이 뜨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별자리와 은하수를 대하는 순간, 굴업도의 밤은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된다.

30

가까운 과거, 그리고 오랜 역사와의 만남 교동도



강화도를 떠나 교동도로 향하는 도로는 약간 구비져 있다. 대신 한적하고, 잘 정비되어 있어 부드러운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교동도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두 번의 검문을 받아야 한다. 강화군에서 최대의 농경지를 보유한 섬이지만, 바다 하나를 두고 북한 황해도 연안군과 맞닿아 있다. 강원도 최전방에서나 경험할 법한 군인과의 만남이 여행자의 마음을 약간 긴장시킨다. 교동도는 많은 실향민들이 산다. 오랜 시간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곳이다. 지금은 편하게 차량으로 섬을 오가지만, 3.44km의 교동연륙교가 놓이기 전까지 교동도는 독립된 섬이었다.



교동읍성

2014년 7월 다리가 놓이면서 교동도는 세상과 이어졌다. 교동도에는 1127년 고려 인종 5년에 창립된 교동향교가 있다. 고려 충렬왕 12년인 1289년에는 문성공 안향이 원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공자와 주자 상을 가지고 왔는데, 고려에 당도하여 첫 번째 배를 댈 교동도에 문묘를 세우고 화상을 봉안하였다. 또 이황과 이이, 송시열 등 동국 18현인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교동향교 주변으로 교동읍성이 있다. 읍성은 군이나 현의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행정적인 기능을 맡았던 성으로 조선 인조 7년(1629)에 축조되었다. 성의 둘레는 약 430m, 높이는 약 6m로 동·남·북쪽 세 곳에 성문을 두었다. 영조 29년(1753) 고쳐 쌓았고, 고종 21년(1884)에는 성문을 다시 세웠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세 문 모두 남아있지 않다. 교동향교에서 역사의 향기를 맡았다면, 우리네 삶의 깊이가 진하게 남아있는 대룡시장으로 향하는 것도 좋다. 어쩌면 교동도 여행에서 대룡시장은 필수코스라 같다. 약방, 이발소, 다방 등 1970년대 삶의 정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으로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으로 붐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옛 추억과 향수를 따라 골목을 거닌다. 젊은 커플들도 눈에 많이 띈다. 자신들이 태어나기도 전 아버지 세대의 삶을 보려는 듯 그들은 시장 구석구석을 누빈다. 특히 교동도는 북한과 인접해 있어 가까이서 북한을 볼 수 있으며, 넓은 평야에서 생산되는 교동도 쌀은 한번 맛보면 다시 찾을 정도로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

TIP

교동도는 동서 1.2km, 남북 8km 크기에 면적은 백령도와 비슷한 47.2km² 정도이다. 교동도는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개성과 서울의 관문으로 군사적 요충지로 오랜 역사를 가진다. 섬에는 해발 260m의 화개산이 있고, 서쪽 서한리에는 봉수대 터가 있다. 화개산 자락에는 조선후기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한증막이 있다. 조선시대 최대 시설로 알려져 있어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동도 전경



대룡시장



대룡시장



교동향교

31

분단의 아픔이
푸른 바다만큼 시리다
연평도



조기역사관 앞에서 보는 병풍바위와 가래칠기해변



인천항에서 쾌속선에 오르니 배는 바다를 가르며 빠르게 달린다. 두 시간 반정도 달려 갔을까? 웅진군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에서 두 개의 섬이 반긴다. 인천항에서 뱃길로 145km 떨어진 연평도, 서해 NLL과 인접한 곳으로 북한 부포리와 10km 거리에 있는 서해 최대의 어항이다. 바다 위를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평평하게 뻗친 형이라 하여 연평도라 불린다. 소연평도에 가까이 가니 얼굴바위가 나타난다. 잘생긴 사내 얼굴을 한 바위는 그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소연평도 선착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배는 대연평도로 향한다. 배는 대연평도가 아닌 당섬에 닿을 내린다. 대연평도와는 연륙교로 이어져 있다. 연평도에는 구리동해수욕장, 등대공원, 조기역사박물관, 뽕배용절벽, 충민사, 안보교육장이 있다. 연평도 여행이라면 한번쯤 들러 봐도 좋은 곳이다. 천혜의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섬 전체가 안보체험장으로 연평포격의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연평해전의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평화공원, 연평도 평화기원 둘레길이 있다. 섬 북쪽에 위치한 망향대에 서면, 북녘 땅이 보인다.

TIP

연평도는 우리나라 제일의 조기어장이었다. 과거에는 파시가 열려 많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조선시대 임경업 장군이 병자호란 때 청나라를 치러 명나라로 가던 중 연평도에 잠시 들렀다가 가시나무로 조기를 잡았다는 유래가 있다. 매년 2~3월이면, 섬내 어민들이 오색만기를 내세우고 배 안전을 기원하는 풍어제인 연평하마음기원제를 지낸다.



32 섬 한 가운데서 찾은 모래사막 대청도



옥중동 모래사막

머나먼 서해의 섬, 대청도.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북서방향으로 202km 떨어져 있는 아늑하고 조용한 섬이다. 하늘이 내린 낙원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모래울해수욕장에 이르면, 노송과 고운 백사장이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모래울해수욕장 인근에는 우리나라 최북단의 동백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66호)가 있다. 옥죽동해변은 모래사막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모래산이 형성되는 곳이다. 바람이 조각을 하듯 수시로 변하는 모래표면의 아름다움으로, 한국의 사하라사막이라 불리기도 한다. 모래사막 끝에 서서 바다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대청도 여행의 진수를 느끼게 된다. 지두리해수욕장은 동서로 둘러싸인 산줄기 때문에 파도가 거의 일지 않는다. 백사장도 수심이 완만해 가족단위 피서객이 많다. 해변과 함께 이곳에선 '서풍반이 트레킹'도 즐길 수 있다. 해안은 물론 곳곳에 군락을 이룬 소나무 숲을 걷는 코스다.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소청도는 대청도의 4분의 1크기의 섬이다. 이곳에선 천연기념물 제508호인 '분바위'를 만날 수 있다. 근처에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박테리아 화석으로 알려져 있다. 해안선을 따라 장엄하게 펼쳐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분바위 일대 해안을 덮은 자연산 홍합 밭도 장관을 이룬다.



소청도 등대

TIP

소청도에는 1908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설치된 등대가 있다. 섬 서쪽 끝 83m고지에 설치되어 각종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 왔다. 술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해상휴전선의 등불이 되어 남북한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있다.



소청도 분바위

33

1시간 20분 달려가 누리는 섬의 즐거움 덕적도



복잡한 육지를 떠나 기분 좋게 쉬고 올만한 섬이 없을까. 먼 바다의 섬일수록 깨끗한 바닷물, 오염되지 않은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오고가는 일이 쉽지 않다. 멀미를 할 수도 있고, 자칫 기상이 나빠지면 제 날짜에 돌아오는 것도 어렵다. 덕적도는 문득 섬에 가고 싶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섬이다. 연안부두에서 75km 지점에 위치해 기분 좋은 뱃길 여행이 가능하고, 섬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다.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인천 섬 중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100년이 넘는 노송과 울창한 숲, 너비 500m에 길이만 2km에 달하는 서포리해수욕장에서 즐기는 해수욕, 그리고 주변 갯바위에서 즐기는 바다낚시는 특별하다. 규모는 작지만 한적하고 편한 휴식이 가능한 빗지름해수욕장의 청록색 바다, 5개의 트래킹 코스가 준비되어 있는 비조봉 트래킹은 피톤치드 가득한 침엽수림 속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또 하나의 명물은 고운 자갈로 이루어진 능동자갈마당이다. 주변의 기암괴석과 서해 최대 규모의 갈대군락지에 낙조가 붉게 내려앉으면, 옆에 있는 누구와도 친해지는 시간의 마력 속에 빠지게 된다.

TIP

덕적도 비조봉(292m)에 오르면 주변의 섬들이 한 눈에 보인다. 잡힐 듯 가까이 보이는 섬들인 문갑도, 굴업도, 백아도, 지도, 울도가 푸른 바다 위에 웅기종기 모여 있다. 특히 문갑도의 자구리축제는 유명해 매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덕적도에서 500m 떨어진 소야도의 뗏부루해수욕장도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방개잡이



으름실마을 시골밥상



능동자갈마당



서포리해수욕장

35 가볍게 느리게 어디로 올라도 좋다 문학산



문학산 정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제 옷을 갈아입는 문학산. 힐링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제 품에 안아주며, 도심 한 가운데서 계절의 풍성함을 전해주는 산이다. 원래 문학산은 인천의 고대 왕국이었던 미추홀의 진산이다.

인천의 역사와 함께 하였지만, 시민들은 오래도록 정상을 오르지 못했다. 1965년부터 50여 년간 군부대가 주둔한 때문이다. 2015년 10월 15일 개방되었다.

문학산을 오르는 길은 다양하다. 사람들이 즐겨 찾는 등산 코스만 대여섯 개 정도다. 연수구와 남구를 품고 있고, 사람들의 집과 맞닿아 있어 마실 가듯 산을 오를 수 있다.

문학산은 해발 217m로 그리 높지 않은 산이다. 대신 선학역 쪽 방향에서 오르면, 길마산전망대까지 잠시 고행을 요구한다. 그 후 문학산성까지는 어렵지 않다. 대신 바위가 많아 등산화 착용은 필수다. 문학산성 둘레로 데크길이 조성돼 있어 걷기가 수월하다. 테크 옆으로 '돌먹는 나무'는 등산객의 피로를 잠시 풀어준다.

정상에 오르면 문학산 표지석과 예전 봉수대를 재현한 상징물을 만나게 된다. 연수구와 남구 시가지가 한 눈에 내려보인다. 도시 전경이 숨겨처럼 산자락을 타고 오르고, 시계가 좋으면 청량산을 넘어 팔미도와 무의도까지 보인다. 남구 쪽으로는 인천시청, 서울의 북한산과 인왕산을 볼 수 있다. 2016년 10월 개최된 문학산상음악회는 산 정상에서 즐기는 음악회로, 인천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음악을 감상한다는 점에서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다. 인천 인구 300만 달성 기념으로 개최하였지만, 앞으로 매년 개최될 계획이다.



문학산성 음악회

TIP

역사의 숨결 가득한 문학산 유적

문학산성

문학산성은 인천광역시기념물 제1호로, 임진왜란 때는 인천부사였던 김민선이 백성과 함께 나라를 지킨 구국의 현장이기도 하다. 성 둘레는 577m, 현존하는 부분은 339m이다.

학산서원

1702년 숙종은 서적, 토지, 노비 등을 하사해 서원을 건립케 하고, '학산'이라는 이름도 내렸다. 학산서원은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사액서원이다. 아쉽게도 서원터는 정확치 않으며 추정지에 기념 표지석을 세웠다.

삼호현

삼국시대, 중국으로 파견 가는 백제 사신들은 부평별 고개와 사모지 고개를 거쳐 지금의 옥련동 한나루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이곳에 서서 세 번 이름을 부르고 이별하던 고개라 하여 삼호현이라 불렀다.



36 신의 손길이 흘뿌려놓은 비경 백령도

백령도에 닿는 길은 쉽지 않다. 인천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178km 떨어진 서해 최북단 섬으로 배를 타는 시간만 4시간이 넘게 걸린다.

풍량이 일 때는 배멀미를 할 수도 있고, 날씨에 따라 배운항도 일정하지 않다. 접근하기 어려운 섬이지만, 그만큼 천혜의 신비와 절경, 그리고 많은 관광지를 갖고 있다. 흔히 백령도를 두고 '서해의 보석'이라고 말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관광지' 중 한 곳이기도 하다.

백령도에 가면 꼭 봐야 할 곳이 있다. 우선 절경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두무진이다. 4km에 이르는 해안을 따라 병풍같이 깎아지른 해안절벽과 가지각색의 기암괴석이 솟아 있다. 서해의 해금강이라 불리기도 한다.

천연 활주로, 사곶해수욕장도 빼놓을 수 없다. 단단하면서도 곱고 부드러운 모래로, 이탈리아 나폴리와 함께 세계에서 두 곳 밖에 없는 천연 활주로다. 규모는 세계 제일이다. 특히 3km 규모의 모래사장에는 불순물이 거의 없어 해수욕하기에 알맞으며, 수심이 낮아 물놀이하기 좋다.

사그락 사그락~ 형형색색의 콩알만한 작은 돌로 가득한 콩돌해안에 가면 욕심부터 생긴다. 하나쯤 가지고 싶지만, 콩돌은 천연기념물로 반출금지 품목이다. 맨발로 걷다보면 자연스럽게 지압이 된다. 콩돌해안은 서해 낙조의 감상 포인트이기도 하다. 그 외 심청의 전설이 살아있는 심청각, 점박이물범 등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 포인트이다. 백령도에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중화동교회이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이고, 한국사회에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백령기독교역사관에 가면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TIP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오전 7시 50분, 8시 30분 등 하루 두 번 백령도행 여객선이 운항한다. 운임은 편도 기준 대인 66,500원, 소인 33,250원이며, 인천 시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7월과 8월 성수기에는 10% 할증요금 부과된다.

37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이 있는 석모도



눈썹바위에서 본 석모도 전경

강화도 장화리에 서면 석모도가 손에 잡힐 듯 보인다. 지척에 있는 섬이지만, 석모도는 강화도와는 또 다른 정취를 가졌다. 강화 외포리에서 배를 타면 석포리 선착장에 닿는다. 1.7km 뱃길이지만, 새우깡 한 봉지가 모자랄 만큼 많은 갈매기들이 배를 따른다.

석모도에는 해명산, 상봉산, 상주산의 3개의 산이 있다. 삼산면이란 지명이 나올 만큼 산이 많은 섬이다. 석모도에서 처음가는 관광지인 보문사도 상봉산과 해명산 사이에 있는 낙가산에 위치한다. 보문사는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으로 관음보살의 터전이다. 절이 아늑해 마치 부처의 휴식처라는 생각마저 든다. 보문사 마애석불좌상까지 오르는 길은 조금 험난하다. 마애석불좌상은 1928년 금강산 표훈사 주지 이회응과 보문사 주지 배선주가 낙가산 중턱 일명 눈썹바위에 조각한 것이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해바다를 돌아보는 순간, '아'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탁 트인 서해바다와 웅기종기 모여 있는 섬들, 그 사이로 내려앉는 낙조는 천상의 비경을 담고 있다. 4륜 오토바이인 ATV를 타고 석모도를 둘러보는 것도 즐거움이다. 민머루해수욕장은 모래보다 갯벌이 많은 곳으로 해수욕보다 갯벌 체험이 제격이다. 물이 빠지면 1km 정도의 갯벌이 나타나는데, 감축이 부드럽고 조개, 게 등 다양한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TIP
현재 강화도와 석모도를 잇는 연륙교 공사가 한창이다. 석모도의 일주도로는 총연장 19km 정도이며, 잘 포장되어 있어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좋다.



석모도 카페리



눈썹바위 마애석불좌상



와불상



ATV 체험

38

걸어도 머물러도 모든 것이 자유로운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염전



소래습지생태전시관



갯벌

그곳에 서는 순간,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복잡한 도로에서 조금 벗어나 들어가니 얼마 가지 않아 갯벌을 만난다. 칠면초와 함초와 같은 염생식물들이 가득하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염전 탁인지, 갯벌 위에 희끗희끗 소금기가 묻어있다. 공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조형물과 아기자기하게 조정 시설을 떠올리겠지만, 소래습지생태공원은 그런 상식을 뒤엎는다. 드넓은 습지 그대로의 모습이다. 매년 8~9월이면 시범 염전에서 소금이 생산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데크길 옆으로 걷다보면 갈대와 이름모를 풀들이 가득한 대지가 나온다. 키 높이 이상 자란 수풀 사이로 걷다보면 자연 속에 사람의 존재는 묻혀버리고 만다. 세 대의 풍차가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내 수많은 사진가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저녁이 되면 수억 마리의 벌레가 조금 성가실 지도 모른다. 수풀 사이에 등지를 튼 새집, 심심찮게 만나는 개구리와 두꺼비, 무리지어 이동하는 개미군단, 메뚜기와 종류도 알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곤충들, 도심 속에 이런 자연을 만나는 것이 쉬울까.

2016년 행정자치부는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인천대공원까지 10.4km 구간을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선정하였다. 여러 수종의 나무가 뿜어내는 형형색색의 단풍과 곧게 뻗은 길을 달리기 위해 수많은 자전거 라이더들이 즐겨 찾는다.

TIP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포구어시장은 큰 도로를 두고 나누어져 있다. 도로를 건너면 바로 소래포구어시장이 나온다. 소래역사관에는 예전 협궤열차였던 수인선, 여러 염전 자료들, 소래갯벌과 소래어촌에 대한 옛 모습을 만날 수 있다.



39 도심 속 거대한 휴식 공간 송도센트럴파크



하늘을 향해 솟아 오른 송도국제도시 건물 사이에 위치한 거대한 녹색공간, 송도센트럴파크. 햇볕이 내리 쬐는 오후의 공원은 한적하다. 3.6km 해수로를 따라 수상택시가 공원을 가로지르고, 한낮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의 걸음은 느릿하다. 밤이 되면 공원의 모습은 180도 달라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변공간 산책로를 거닐고, 수상택시와 보트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우고, 연인들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송도센트럴파크에는 산책정원, 조각정원, 생태·자연 학습공간, 테라스정원 등이 자리한다. 마치 자연을 옮겨온 것처럼 많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물길 양쪽으로 산책길이 있어 데이트 코스로도 좋다. 국내 최고의 공원 중 하나인 송도센트럴파크, 공원 여기저기를 다니다보면 사람이 만든 자연도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송도센트럴파크를 배경으로 스탬프투어(8경)을 진행하고 있다. 스탬프를 하나씩 찍을 때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갖게 된다.

TIP
 송도센트럴파크와 멀지 않은 곳에 두 개의 공원이 있다. 인천 개항과 근대화의 시작이 된 인천을 모티브로 조성된 해돋이공원, 한국전통식 정원형태를 잘 보여주는 미추홀공원이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센트럴파크와 함께 둘러보는 것도 좋다. 인천대교전망대에서 인천대교를 배경으로 서서히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바라보는 것도 커다란 휴식이 된다.

40 누워 쉬는 서해의 섬 신도 · 시도 · 모도

바다가 아니라면 섬은 이름 없는 하나의 산자락일 뿐이다. 바다는 섬을 낳았고, 섬은 단조로운 수평선 바다에 리듬을 주었다. 울망졸망하게 생긴 인천의 섬들은 부드러운 곡선미를 가지고 있어 더없이 사랑스럽다.

신도 · 시도 · 모도가 알려진 것은 '폴하우스'와 '슬픈연가' 촬영지 때문이지만, 세트장이 없어진 지금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섬이 갖는 매력 때문이다. 두 개의 연륙교를 넘나들면 삼도삼색(三島三色)의 섬을 하나의 섬처럼 여행할 수 있다.

신도의 묘미는 하늘을 향해 겸손하게 손을 든 구봉산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를 마주하며 오르는 섬 산행은 별미와 같다. 멀리 인천국제공항이 보이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착륙하는 여객기를 바라볼 수 있다. 시도의 볼거리는 활처럼 휘어 있는 수기해수욕장인데, 오솔길을 따라 산자락을 오르면 예전 '슬픈연가' 세트장이 있다. 강화도 마니산 봉우리가 눈앞에 보이고, 일몰이 장관인 장화리 해변이 앞마당처럼 펼쳐져 있다. 모도 배미꾸미 해변에서 작가 이일호의 작품을 만나는 것도 즐거움이다.

TIP

영종도삼목선착장에서 섬으로 가는 카페리가 있다. 차를 싣고 10분 남짓 바다를 건너는 맛도 특별하다. 또 다른 방법은 북도면공영버스(동인천역-웅진구청-삼목선착장)를 이용하면 삼목선착장에 쉽게 갈 수 있다. 하루에 4번 운행하는 공영버스는 북도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탑승객이 많을 경우 일반인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신도 · 시도 · 모도 전경



구봉정



시도염전

배미꾸미 해변

41 인어의 전설이 있는 섬 장봉도



장봉도 전경



인천관광 100+!

웅암해수욕장

신도를 떠난 카페리는 서해 바다를 천천히 가르며 장봉도로 향한다. 푸른 물살 뒤로 갈매기 떼가 따르고, 카페리 엔진소리가 35분의 항해 동안 배 전체로 울린다. 섬 중앙에 있는 국사봉을 중심으로 동서로 길게 이어진 산봉우리가 있어 '장봉'이라 불린다.

길이만 2km에 달하는 웅암해수욕장과 새하얀 모래로 뒤덮인 진촌해수욕장의 여름바다는 즐거움 그 자체다. 웅암해수욕장 소나무 숲에서 캠핑을 즐기는 가족들이 많다. 별도 비용이 없고 개수대와 화장실도 준비되어 있어 쾌적한 캠핑이 가능하다.

장봉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어상'을 떠올린다. 원래 장봉도는 우리나라 3대 어장이라 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었다. 어느 날, 그물에 걸린 인어를 어느 착한 어부가 발견하고 풀어주면서 더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선착장에 서면 저 멀리 아치형다리가 보인다. 바위섬인 멸골과 연결된 다리로 두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로 폭이 좁다. 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살이 거세 마치 바다 한 가운데 서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인어상

TIP

4월 중순경 즐기는 장봉도는 특별하다. 약 2km에 걸쳐 빛나무가 터널처럼 서 있다. 장봉도의 진달래와 개나리는 개화시기가 늦어 벚꽃과 함께 피기도 한다. 그럴 때면 분홍, 노랑, 백색이 어우러진 삼색이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42 랜딩기어 내리고 섬에 착륙하다 영종도 · 용유도

높게 솟아오른 인천대교 주탑 위로 구름이 걸리고, 바다 너머 붉은 낙조가 내릴 때 영종도를 향해 달린다. 언제나 설렘을 주는 길이다. 2001년 영종도와 용유도를 매립해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졌고, 영종하늘도시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이 되었다. 세계인들이 첫 발을 딛고, 한국을 떠날 때 마주하는 마지막 섬이다.

매립으로 인해 영종도와 용유도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 의미 없지만, 영종도에는 유서 깊은 산과 사찰이 있다. 백운산(256m)의 우거진 숲길 따라 오르다보면 산 중턱에 용궁사가 있다. 신라 문무왕 10년(670년) 원효대사가 창건하였고, 흥선대원군에 의해 중수되었다. '용궁사'도 흥선대원군의 친필이다.

여름이면 용유도의 을왕리해수욕장과 왕산해수욕장을 빼놓을 수 없다. 두 해수욕장간의 거리는 불과 1.5km 내외. 모래사장과 갯벌이 공존해 해수욕과 갯벌체험이 가능하다. 특히 해질녘에 만나는 낙조는 삶에 커다란 심표를 준다.



용궁사



거잠포 일출



왕산해수욕장



을왕리해수욕장

TIP

매년 1월 1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잠포로 모여든다. 거잠포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다. 매도랑 섬 사이로 해가 뜨면, 한 해 소원을 모두 풀어내도 좋을 만큼 장관을 이룬다. 새로 조성된 영종시사이드 레일바이크와 인천대교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인천대교기념관도 꼭 둘러봐야 할 포인트다.

43 걷다 뛰다 노닐다... 바닷길 위에서 선재도 · 영흥도

선재도 인접 섬인 영흥도는 영흥대교로 이어져 있다. 예전에는 영흥도까지 뱃길로 한 시간 거리였다. 지금은 차로 편리하게 도달하지만 섬의 정취는 그대로 남아있다. 심리포해수욕장에는 100년 수령이상의 소나무가 군락을 이룬다. 국내 최대 규모로 2007년 산림청이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할 만큼 가치있는 곳이다. 해수욕하기에 좋은 장경리해수욕장에서 4륜 바이크를 빌려 타고 섬 곳곳을 누비는 것도 즐거움이다. 서해바다의 모미를 그대로 가진 선재도 · 영흥도,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지만 지금도 섬의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선재도 목섬



영흥도 심리포해수욕장



영흥에너지파크

선재도 가는 드라이브 코스는 특별하다. 엄연히 섬이지만, 선재대교가 있어 육지처럼 다가가기 편하다. “해변의 굴곡이 아름답고 물이 맑아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했다” 하여 이름 붙여진 선재도. 그리 큰 섬은 아니다. 썰물이 되면 길이 열리는 목섬을 바로 앞에 두고 있다. 무인도인 목섬으로 가는 길은 왕복 1km 정도인데, 다른 곳이 갯벌인 반면 목섬가는 길은 모래가 길게 깔려 있다. 측도도 썰물이 되면 길이 열린다. 차를 타면 순식간이지만, 사각거리는 자갈을 밟으며 걸어가는 재미도 쏠쏠하다.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섬, 선재도.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33선’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TIP

가족과 함께 여행한다면 영흥에너지파크에 들리면 좋다.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넓은 개방성으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좋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해양수산체험학습관은 살아있는 바다생물을 보고 만지면서 스스로 이해하는 체험학습장이다.

44

아침 점심 저녁 달라지는 컬러 월미도

TIP

월미문화축제

매년 7월 중순 월미도문화의거리에서 개최되는 월미도 중심 축제이다. 분수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월미섬머콘서트를 시작으로 콘서트가 진행된다.



월미공원의 한국전통정원

월미도에 들어서면 묘한 가슴울림이 생긴다. 월미도가 갖는 역사와 문화, 즐거움과 휴식거리가 한데 모여 있고, 팔미도와 영종도 등 가까운 섬 투어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월미도는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디스코팡팡’과 ‘바이킹’ 등 놀이시설을 우선 떠올리겠지만, 월미도가 갖는 역사성은 의외로 크다. 우리 선조들이 먼 이국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했던 이민의 역사를 담은 한국이민사박물관 그리고 6.25전쟁의 전세를 한순간에 되돌린 인천상륙작전의 첫 작전 포인트였던 그린비치가 월미도에 있다. 한국의 근대사와 현대사의 정점에 있는 사건들이 모두 월미도로 통한다.

월미공원의 한국전통정원에서는 자연을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훼손하지 않고 정원을 꾸며던 한국의 전통 건축양식을 만날 수 있다. 해가 누엣누엣 질 때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고즈넉한 산책을 즐긴다. 바다와 노을, 유람선 그리고 횃집과 카페가 많아 가족과 연인들이 많이 찾는 월미문화의거리는 낮과 밤의 풍경이 다르다. 친수공간으로 내려가면 발밑으로 바닷물이 찰랑거리고, 해변 따라 설치된 분수대에서 물이 솟구치면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월미도를 가득 채운다. 해거름부터 하나둘 조명이 밝혀지면 월미도는 또 다른 색채로 변한다. 월미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서해 바다와 석양, 인천항 모습은 오래도록 여행자에게 가슴에 인천을 아름답게 새긴다.



월미전망대



월미전망대

월미문화의 거리



월미공원 사슴원



풀등의 은빛 모래

45 푸른 바다 위에 마음을 맡기고 이작도



바다 한 가운데 눈부신 모래사장 위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서해에서 만나기 힘든 푸른 빛깔의 바다, 수평선 너머 아련하게 흔들리는 섬들, 부드러운 모래감촉과 은빛 모래알... 이작도의 풀등(풀치)은 썰물 때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은빛 모래섬이다. 바다 한 가운데서 만나는 모래섬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랍다. 서울 여의도 면적보다 크다. 풀등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3시간 정도, 밀물이 되면 풀등은 이내 바다 속으로 사라진다. 물때를 맞춰야 하기에 쉽지 않지만, 풀등 하나만 봐도 이작도 여행은 충분하다.

해수욕하기에 좋은 큰풀안海水욕장은 백사장 크기만 3km에 달한다. 고즈넉한 바닷가 풍경을 가지고 있고, 걸을 때마다 발끝에서 부드러운 모래가 사각대듯 발가락을 간지럽힌다. 물이 맑고 수온이 높아 어린 자녀와 놀기에 좋다.

간단한 등산복 차림을 하고 부아산(159m)에 오르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정상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빨간 구름다리가 인상적이다. 산 정상에 오르면 또 다른 선물이 기다린다. 자월도, 승봉도, 소이작도, 덕적도... 주변 섬들이 보여주는 멋진 풍광에 자칫 시간의 끈을 놓칠 지도 모른다.



큰풀안海水욕장



풀등



TIP

이작도는 대이작도와 소이작도를 포함한다. 두 섬 간의 거리는 200m 정도로 소이작도에는 손가락바위가 있다. 주먹을 쥐고 검지손가락을 치켜든 모양을 하고 있다. 대이작도는 고전 영화 중 하나인 '섬마을 선생님'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계남분교 앞에는 지금도 '문희소나무'가 바다를 바라보며 홀로 서 있다.



대이작도 전경



부아산 정상에서 바라본 소이도

46

만년 세월이 빚어낸
바위들의 고향
승봉도



훗대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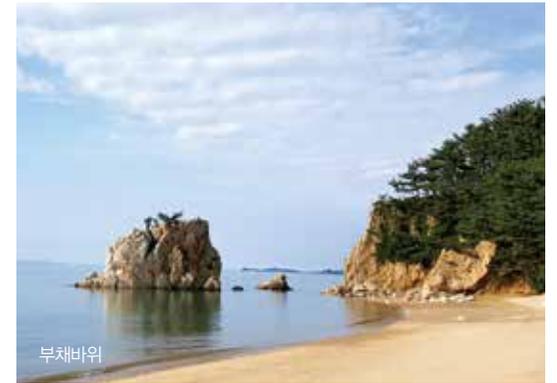


승봉도

밀물과 썰물은 승봉도를 다른 얼굴로 바꿔놓는다. 밀물일 때는 단조롭다가 썰물이 되면 감추어 두었던 놀라운 모습들을 쏟아낸다. 남대문바위는 물이 빠져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오랜 세월 들이쳤던 파도가 암석 한 가운데에 큰 구멍을 뚫었다. 바위 모양이 남대문처럼 거대한 문 형상이기도 하고, 각도에 따라 코끼리 모습처럼 보여 코끼리바위라고도 한다. 남대문바위 가까운 곳에 있는 부채바위, 소리개산 밑에 있는 훗대바위와 삼형제바위는 모두 자기만의 이야기와 전설을 담고 있다. 숲이 있어 휴식하기에 좋은 이일레해수욕장은 썰물이 되어도 갯벌이 없어 해수욕하기에 좋다. 해변이 1300m에 달한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변을 걷다보면 대이작도와 사승봉도가 보인다.

TIP

사승봉도는 개인 소유의 섬으로 무인도다. 길이 4km, 폭 2km의 해변에는 곱고 흰 모래가 펼쳐져 있어 남태평양의 눈부신 백사장이 연상된다.



부채바위



사승봉도

47 별이 내리는 달빛 아래서 자월도



가득 차도 기울어도 자월도 달빛은 그윽하다. 그 빛이 검고 붉어 자월도라는 이름까지 얻었다. 자월도 선착장에 도착하는 순간, 달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눈길을 끈다. 명칭 또한 달바위바다역으로 독특하다.

자월도에는 해변이 많다. 장골해수욕장, 큰말해수욕장, 진모래해변, 하늬포해변... 모두 모래가 곱고 바닷물은 하늘과 구름을 투영할 만큼 맑다. 해발 160m 국사봉에서 내려다보는 섬의 모습은 한줄기 햇살 같다. 달빛 아래에서 바다를 향해 낚시를 던지고, 대답이라도 하듯 물고기들이 강한 생명력을 전하며 올라온다. 밤새 걷어 들여도 남을 만큼 자월도의 어족자원은 풍부하다.

TIP

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에서 출발하는 카페리에는 차를 실을 수 있다. 항해는 한 시간 남짓. 자월도 선착장 이름은 특이하게도 달바위바다역이다. 두 개의 초승달을 형상화한 구조물이 눈길을 끈다.



장골해수욕장



큰말해수욕장



해당화 핀 별난금해변



하늬포해변

48 대한민국 최초로 등대불 밝힌 섬 팔미도



팔미도 전경

팔미도 가는 길은 가법다. 월미선착장에서 팔미도유람선을 기다리면서 연안부두 산책을 즐겨도 좋다. 그만큼 팔미도 여행은 빈틈없이 즐겁다. 가끔 팔미도는 그리스 산토리니를 연상시킨다. 푸른 바다에 하얀색 등대 지붕이 교차돼 블루와 화이트가 주는 색채 대비가 있기 때문이다. 유람선을 타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는 섬이지만, 팔미도가 가진 역사성은 가볍지 않다. 대한민국 최초의 1호 등대가 있는 섬으로, 2009년 인천방문의 해를 맞아 비로소 개방되었다. 인천상륙작전 때에는 전략 요충지로 작전 성공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본과 체결한 통상장정으로 조선왕조는 1903년 6월, 높이 7.9m 지름 2m의 팔미도등대를 세웠다. 현재 불을 비추는 것은 2003년 12월 새로 지어진 등대이다. 등탑 높이 26m, 전망대, 100주년기념 상징조형물(천년의빛 변영의바다), 위성항법정보시스템(DGPS)기준국 등 다양한 시설과 첨단장치를 갖췄다. 100년간 제 임무를 다한 구 등대는 인천시지방문화재 제 40호로 지정돼 그 자리에 보존되어 있다.

TIP

팔미도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다. 밀물 때는 두 개 섬이지만, 썰물이 되면 하나로 연결된다. 두 섬이 마치 여덟팔(八)자처럼 양쪽으로 뻗어 내린 꼬리 같다 하여 팔미도라 불린다. 팔미도는 무인도이기에 편의 시설이 없다. 마실 물과 간식거리는 따로 준비해야 하며, 해변 쪽은 군사보호구역이어서 내려갈 수 없다.

49 싱그러운 바람 분다 절로 즐거워 진다 인천대공원



인천대공원 장미원



인천대공원 호수

인천대공원은 행복이 모이는 공간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연인들의 속삭임, 부부의 정겨운 대화가 공원에 가득하다. 공원을 감도는 녹색바람은 청명하고, 숲이 주는 그늘은 한낮의 태양을 저만치 떨어뜨려 놓는다. 인천대공원은 계절마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다. 생명력 가득한 봄에 피는 벚꽃, 깊고 푸른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 부는 바람에 춤추는 가을 낙엽, 소복하게 내려앉은 겨울 눈길... 화려하지 않아도 공원은 계절계절 정겨우리만치 아늑하다.

다양한 볼거리도 많다. 여러 수종의 식물이 한데 모인 식물원, 가까이서 동물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어린이동물원, 봄철 화려하게 부활하는 장미원, 겨울엔 눈썰매장 여름에는 물썰매장이 되는 사계절설매장, 다양한 조각으로 가만히 보고 있어도 즐거운 조각원, 마음 놓고 달려도 좋은 자전거광장까지... 인천대공원은 삶의 긴장 대신 한가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사람들에게 되돌려 준다.

TIP

인천대공원은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공원으로 관모산(162m), 소래산, 거마산을 끼고 있다. 인천시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계절별 운영시설이 조금씩 다르다. 특히 여름에는 물놀이장이 개장되기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다.



인천대공원 가로수길



인천대공원 벚꽃길

인천관광 100+!



Museum & Exhibition Hall

박물관 · 전시관

↓
인천이
모여있다! 살아있다!

50 강화의 역사와 문화가 한 자리에 강화역사박물관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강화동종과 수자기



강화의 선사시대 전시실



광성보전투 장면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강화도는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만큼 우리 역사에 있어 강화도는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침략으로 고종이 몸을 피신하였고, 그 후 개성으로 환도할 때까지 39년 동안 나라를 지킨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남쪽 마니산 정산에 참성단을 쌓아 하늘과 단군에 제사를 지내며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국난에 나라를 지키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침략의 소용돌이는 조선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병자호란시에 강화도는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한 배도가 되어 유수와 경력을 갖추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뒤 효종과 숙종은 강화 해안에 월곶진, 제물진, 광성보, 승천보 등과 같은 방어시설을 새로 쌓거나 고쳤으며, 돈대(墩臺)를 설치하여 강화도 전 지역을 요새화하였다. 강화역사박물관은 온 몸으로 나라를 지킨 강화의 역사, 문화유산 등을 보존하고 연구할 목적으로 2010년 가을에 개관했다. 2개 층으로 구성된 이곳은 1층 매표소에서 바로 2층으로 올라가 선사시대를 먼저 둘러보고 1층으로 내려와 고려, 조선시대를 차례로 만난다. 박물관 2층은 구석기부터 청동기에 이르는 선사시대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신나는 청동기시대 탐험과 강화의 열린 바닷길 이야기 등 강화의 역사를 체험해보고 익힐 수 있어 어린 이들에게 유익한 공간이다. 1층에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과 역사적 사건들을 차례로 만날 수 있다. 조선시대 말 서구 열강의 빈번한 침략으로 강화도가 철저히 유린되는데 병인양요, 신미양요, 강화도조약 등 가슴 아프지만 잊어선 안 될 역사적 사건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딱딱한 역사가 아닌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역사를 살필 수 있다.

TIP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994-19
 전 화 032-930-7887
 홈페이지 www.ganghwa.go.kr/open_content/museum
 휴 관 일 매주 월요일(1월 1일, 추석 당일)
 관람시간 09:00~18:00
 입 장 료 어른(개인 3,000원 / 단체 2,500원)
 어린이, 청소년, 군인(개인 2,000원 / 단체 1,500원) ※6세 이하 무료

51 강화에서 만나는 지구생태계 강화자연사박물관

넓은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한 뼈 표본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2009년 강화군 서도면 불음도에서 사체로 발견된 국내 최대 규모의 향유고래 골격이다. 대왕오징어를 잡아먹으며 심해 바다를 누비던 실제 고래의 뼈이다. 발견된 시점부터 해체 및 건조, 골격제작 과정은 6년의 시간이 걸렸다.

서해에서 이렇게 큰 고래가 발견된 것도 신기하지만, 매우 세밀하게 뼈 하나하나를 합체해 전시한 정성이 감탄스럽다. 지하1층, 지상2층의 강화자연사박물관은 총 9개의 전시실로 구성된다.

1층 로비와 기획전시실을 시작으로 태양계의 탄생, 다양한 생물의 지구,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진화 등을 전시한 제1전시실과 생태계와 먹이그물, 번식, 위장과 모방, 갯벌 및 생물의 이동을 전시한 제2전시실은 매우 흥미롭다. 특히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고(故) 박제원(1965~2005) 선생의 뜻에 따라 유족이 기증한 세계 각국의 희귀곤충 2만 여 점의 표본이 전시돼 관람객의 눈길을 끈다(2016년 12월 31일까지 전시). 또, 자연사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상과 디오라마가 설치돼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강화자연사박물관은 단순히 자연생태계를 학습하는 박물관이 아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오염돼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자연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환경과 함께 어떻게 공생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이다.



향유고래 표본

TIP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994-33
전화 032-930-7090
홈페이지 www.ganghwa.go.kr/open_content/museum
휴관일 매주 월요일(1월 1일, 추석 당일)
관람시간 09:00~18:00
입장료 어른(개인 3,000원 / 단체 2,500원)
어린이, 청소년, 군인(개인 2,000원 / 단체 1,500원) ※ 6세 이하 무료



故 박제원의 곤충기증 특별전



전시실 내부



저어새 표본

52 손 뻗으면 닿을 듯 가까운 북녘 땅 강화평화전망대



망원경으로 보는 북녘

망원경 초점을 맞추니 북한 땅이 눈앞으로 달려온다. 눈이 시리게 새파란 하늘 아래 그들도 우리처럼 길을 걷고, 밥을 먹고, 창문을 여닫는다. 희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새빨간 자동차가 지나간다. 강 건너 미루나무 밑의 도로가 비포장임에 확실하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북녘 마을에 우리는 언제쯤 갈 수 있을까? 강화평화전망대는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을 위한 곳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건물이다. 지하1층과 지상 4층은 군사시설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1층은 음식점과 강화특산물, 북한 특산품을 판매하는 특산물 판매장이 있으며, 2층은 강화도와 국방, 끝나지 않은 전쟁, 통일로 가는 길 등의 구성으로 남북한의 상황과 통일에 대한 열망, 통일 후의 비전을 제시한 전시관이다. 전쟁 당시 깨진 철모에 노란 나비가 와서 앉은 전시물이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3층은 실내전망대이다. 고성능 망원경으로 북한의 온 산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흐린 날씨에도 영상을 통해 북한 전경을 볼 수 있도록 스크린 시설이 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북한까지는 직선거리 약 2.3km, 정말 가깝다. 소리치면 누군가가 고개를 들어 손을 흔들어 줄 것 같다. 해안가를 건너 예성강이 흐르고 우측으로 개성공단,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지역을 경계로 김포 애기봉 전망대와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일산신시가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좌측으로 중립지역인 나들섬 예정지와 선전용 위장마을, 개성공단 탐, 송악산, 각종 장애물 등을 조망할 수 있다. 이곳에서 서서 북한을 바라보니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한다. 망배단에서 누군가가 향을 피운 흔적을 본다.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에서 흘러나오는 노랫가락에 마음이 흔들린다.

TIP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797
- 전화 032-930-7062
- 홈페이지 www.ghss.or.kr(강화군시설관리공단)
- 휴관일 연중무휴
- 관람시간 09:00~18:00
- 입장료 어른(개인 2,500원 / 단체 2,200원)
군인, 청소년(개인 1,700원 / 단체 1,500원)
어린이(개인 1,000원 / 단체 800원)
- 시설이용료 망원경 500원(1회 사용시간 2분)



강화평화전망대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녘과 송악산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

53 자연도감 속 생물들이 한 자리에 국립생물자원관

갑자기 한적한 길로 들어선다. 높은 빌딩과 밀리는 차들을 넘어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만 같다. 나무가 보이고, 시원한 바람을 느낀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렇게 도시와 시골의 절묘한 경계에 위치해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에는 우리 땅, 하늘, 바다에 살고 있는 985종 4600여 점의 생물들이 모여 있다. 그 가운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장수하늘소, 저어새, 뜰부기 등 한때 뒷동산 푸른 숲 맑은 물에 살고 파란 하늘을 날았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린 생물의 표본들도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내 수장, 연구관은 1100만 점 이상의 생물표본을 소장할 수 있는 동양 최대 규모의 수장시설을 갖추고, 생물 표본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첨단 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전시, 교육관도 한반도의 고유 자생식물 985종의 식물표본 46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3000㎡ 규모의 전시공간은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을 비롯해 꽃자왈생태관, 체험학습실, 기획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숲과 하천, 바다, 갯벌 등 자연 생태계를 고스란히 재현해 놓아 잠시나마 자연과 동화돼 풍요로운 숨결을 살갑게 느낄 수 있다. 전시시청각실에서는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등을 무료로 상영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어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실을 운영한다. 야외체험장에는 주제별로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여 일반 방문객은 물론 식물 전공학생과 전문가들에게 체험학습 장소로서 이용이 가능하다.

TIP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전 화	032-590-7000
홈페이지	www.nibr.go.kr	휴 관 일	매주 월요일(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관람시간	09:30~17:30	입 장 료	무료



국립생물자원관 내부



전시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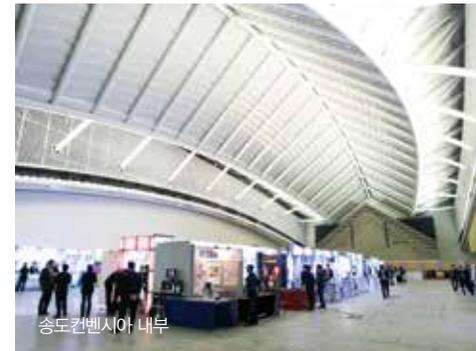


54 세계에 인천을 디스플레이하다 송도컨벤시아



시드니에 오페라하우스가 있다면, 인천에는 송도컨벤시아가 있다. 뽀족한 세 개의 지붕과 유려한 곡선의 지붕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연상케 하지만, 실은 우리나라 태백산맥을 모티브로 만든 한국미가 담긴 곳으로, 각종 드라마나 CF의 배경이 되고 있다. 송도컨벤시아는 첨단 유비쿼터스 시설을 갖춘 국제 수준의 전시장, 회의장, 행사장이 있다. 전시장은 450부스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천장높이도 32m로 높아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전시가 가능하다. 또한 인천지역의 중요한 회의는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최첨단 시설을 자랑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해외접근성 또한 우수하다. 주변 6개의 특급 호텔, 다양한 숙박 인프라 역시 국제회의를 하는데 매우 좋은 조건이다. 국제적인 심포지엄 및 행사로 언제나 활발한 곳이다.

시민들을 위한 프리미엄볼룸도 주목할 만하다. 각종 이벤트 행사를 위한 다목적 홀로, 전 구역에 무선인터넷, 멀티어레이어 시스템, 음성인식 카메라 등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프리미엄 볼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해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멋진 홀이다. 최근에는 주민들과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엄 라운지'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에 분리 운영되었던 커피숍, 편의점, 은행, 비즈니스센터 등을 통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도컨벤시아는 다양한 국내외 컨벤션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치러냄으로써 인천시가 글로벌 전시 컨벤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도보로 송도센트럴파크, 트라이볼 등의 즐길 거리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커널워크 등 쇼핑 및 먹거리 인프라가 조성돼 있다.



TIP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전 화 032-210-1114
홈페이지 www.songdoconvensia.com

55

비탈진 기억 아련하게 숨 쉬는 추억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가파르고 비탈지기는 지금도 마찬가지. 제법 도시적인 모양새를 갖췄지만, 여전히 송현동의 하늘은 달과 가깝다. 달동네라 불렸던 고달프고도 소박했던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 지난 2005년 건립된 곳이 바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으로 가는, 아니 오르는 길. 차로도 조금은 벅잡다 느껴지는 이 길을 수없이 오르내렸을 사람들이 떠오른다. 그들을 추억하는 이들, 또 어쩌면 그들 중 하나였을지도 모를 이들이 오늘도 박물관을 찾아 그 시절의 흔적을 보고 듣고 매만진다. 박물관 안은 볼거리가 가득하다. 그리고 때로는 그곳을 즐기는 이들조차 볼거리가 된다.

달동네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40~50대 중년들이 지어 보이는 '그래 맞아, 그때 그랬지'란 표정... 그래 맞아. 그들이 변했듯 도시도 변했고, 우리네 삶도 몰라보게 변했다. 그 변화된 것들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수도국산박물관의 가장 큰 매력이다. 본격적인 관람이 시작되는 2층 전시실에는 그 시절 달동네 초입에 자리 잡고 있던 사진관과 문방구, 양장점 등을 재현해 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은 흥미로운 구경거리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데, 이유는 이곳들이 실제 동구 송현동과 송림동 달동네에 존재했었고, 그 공간에서 살아가던 이들이 기증한 물건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세월의 때가 덕지덕지 묻은 보물 같은 삶의 유산들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안에 생생히 살아 숨 쉰다. 감성 돋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시설뿐만 아니라, 달동네의 추억을 아이와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는 것 또한 수도국산박물관의 매력 중 하나다. '달동네 놀이 체험관'은 1970년도 수도국산달동네의 삶과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뽕튀기와 달고나 등 그 시절 먹거리 체험은 물론, 연탄 나르기와 비석치기, 사방놀이, 고무줄놀이 등 지금 아이들에게 생소하면서도 신선한 아날로그식 놀이들을 함께 체험하며 세대 간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다.

TIP

주 소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51
 전 화 032-770-6130
 홈페이지 www.icdonggu.go.kr
 휴 관 일 매주 월요일(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관람시간 09:00~18:00
 입 장 료 성인(1,000원) / 청소년·군경(700원) / 어린이(500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내부



56 '최초' 붙은 귀한 것들이 모였다 인천개항박물관



인천 중구청으로 가는 얇은 오르막길을 오르다보면 일제 강점기 시절의 건축물들이 눈길을 끈다. 인천개항박물관은 그 시절 일본제1은행 인천지점이었다. 이를 리모델링하여 인천 개항 역사의 모든 것을 담았다.

1883년 개항 후 인천항을 통해 처음 소개된 근대문물 중 대표적인 것들이다. 최초의 갑문식 도크와 처음 도입된 우편 제도, 최초의 감리교회인 내리교회, 한국 최초의 철도인 경인철도 등 '최초'의 타이틀이 붙은 관련 유물과 자료들이다. 약간 어두운 실내는 4개의 전시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세월을 머금은 나무 바닥을 걷고 있자니 역사의 뒤편으로 빨려 들어가는 착각이 들었다.

제1전시관은 개항과 근대문물을 담아놓았고, 제2전시관은 경인철도와 한국철도사를 볼 수 있었다. 제3전시관은 개항장 일대의 거리 풍경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으며, 제4전시관은 인천의 전환국과 금융기관의 모습과 역사를 품고 있었다. 조용히 박물관을 돌고 제자리로 돌아오니, 태극기가 보인다. 인천개항박물관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라고 속삭이는 듯하다. 인천개항박물관 옆에는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이 나란히 하고 있다. 개항 이래 130년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근대역사문화의 공간이다. 이제는 개항기 인천의 모습, 현존하는 근대건축물 및 소실된 근대건축물을 이 곳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다.

TIP

-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3번길 89
- 전 화 032-760-7508
- 홈페이지 www.icjgss.or.kr/open_port
- 휴 관 일 연중무휴
- 관람시간 09:00~18:00
- 입 장 료 성인 500원, 청소년 300원, 어린이 200원



인천개항박물관 내부



57 1/5000의 성공확률 세계전쟁사에 남을 기록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

분단의 시작은 6.25전쟁이다. 65여 년이 지난 가슴 아픈 역사를 젊은 세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며칠만에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거침없는 기세로 낙동강 유역까지 점령했다. 절체절명의 위기, 국군과 유엔군이 수세에서 벗어나 대반격을 시작하고 전세를 역전시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인천상륙작전이다. 성공확률은 1/5000, 연합군은 블루비치, 레드비치, 그린비치 세 지점을 통해 인천상륙작전을 실행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작전 당시 사용됐던 탱크, 전투기, 함포 등의 무기를 전시해 그날을 상기시키고 있다. 제1전시장에는 인천상륙작전의 구상부터, 진행 과정, 특징과 전쟁 당시 세계 전역에서 참전한 각국의 역할 등을 가치 있는 역사적 유물과 시청각 자료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제2전시장에서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과 볼거리를 만날 수 있다. 작전 당시 상황을 디오라마로 확인할 수 있는 LVT영상실과 작전을 이끌었던 맥아더 장군 흉상 및 유물, 그리고 전쟁 당시 실제 사용됐던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청량산 자락에 위치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송도 앞바다가 내려다보인다. 암흑 같은 밤바다에서 치열하게 치러졌을 그 날의 전쟁을 상상한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한 보답은 분단의 역사를 잊지 않고,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는 일 아닐까.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자유수호의 탑

TIP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전화 032-832-0915
홈페이지 www.landing915.com
휴관일 매주 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1월 1일
관람시간 09:00~18:00
입장료 무료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전시장



58 가족과 함께 배우는 인천 생생 역사문화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상설전시관



청량산 기슭에 자리 잡은 인천시립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다. 인천을 대표하는 박물관답게 외관은 고인돌을 형상화 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박제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덕에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인다. 인천 관련 학술연구와 다양한 이야기를 따라 테마별 기획 전시가 이어진다. 더불어 가족 나들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체험 활동으로 언제나 즐거운 박물관이다. 최근에는 인천 시민들에게 휴식과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시민들 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박물관으로서 성인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 어린이가족프로그램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신청할 수 있다. 역사1실과 2실은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주요 유적과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공예실은 삼국시대 토기부터 조선시대 도자, 불상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서화실은 화려하고 세밀한 회화작품들을 눈여겨 볼만하다. 고즈넉한 청량산을 배경으로 드넓게 펼쳐진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고 앉은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느낌이다. 관람한 후 가까운 청량산의 흥륜사와 가천박물관을 함께 둘러보는 것도 좋다.

TIP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전 화 032-440-6750~1
 홈페이지 <http://museum.incheon.go.kr>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1월 1일
 관람시간 09:00~18:00
 관 람 료 무료



59

개항 역사를 예술로 품은 붉은 벽돌 하우스 인천아트플랫폼

개항장거리를 걷다보면 붉은 벽돌로 지어져 나란히 도열하듯 서 있는 건물을 만나게 된다. 창고인가 슬쩍 들여다 본 내부는 각각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예술작품의 전시로 미술관 혹은 박물관 같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예술 공간, 인천아트플랫폼이다. 인천 중구 해안동 일대는 1883년 개항 이후 건립된 건축문화재 및 1930~4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 잘 보존된 구역이다. 당시 근대건축기술 및 역사적 기록을 지니고 있어 건축 조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곳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예술인과 젊은 작가들의 예술 활동을 돕기 위한 창작스튜디오, 공방, 자료관, 전시실, 공연장 등 총 13개 등으로 조성했다.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문화적으로 재활용하자는 시민들의 뜻과 인천시의 의지가 합쳐져 탄생하였다. 미술, 음악, 문학, 영화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으로 볼거리가 가득하다.

인천아트플랫폼을 벗어날 즈음 한국근대문학관을 만난다. 이곳 역시 100년 역사의 물류창고를 문학관으로 리모델링한 곳이다. 창고의 투박한 외벽과 내부의 목조 천장은 옛 온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용운, 최남선, 김소월 등 근대문학을 만날 수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근대문학자료를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빛바랜 희귀본들에서 묘한 문향의 기운이 솟아난다. 근대로 돌아가는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다.



예술공간으로 거듭난 인천아트플랫폼



TIP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재물량로218번길 3
 전 화 032-760-1000
 홈페이지 <http://www.inartplatform.kr>

60

즐겁게 뛰어 놀다 스르륵 배우는 과학원리 인천어린이과학관



인천어린이과학관 인체마을

계양구에 위치한 인천어린이과학관은 국내 최초 어린이 전문 과학관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놀이식·체험식 과학교육의 장이다. 아장아장 걷는 어린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그리고 과학이 마냥 어렵게 느껴지는 어른들까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곳이다. 인천어린이과학관은 시간대별로 400명씩 입장을 제한한다. 대부분의 과학 현상을 글로 설명해 놓기 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직접 체험하게 꾸며놓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관람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 입장에서는 안전성까지 고려한 과학관이 마냥 고맙다.

지상 3층에 야외 놀이터, 공연장, 생태체험장까지 갖춘 인천어린이과학관은 다양한 기획전시와 흥미로운 4D영상관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갖췄다. 1층에는 기획전시실과 과학도서관이 있고, 2층에는 몸을 배우는 인체마을과 사회를 배우는 비밀마을, 영아들을 위한 무지개마을이 있다. 특히 입속으로 들어가 향문으로 나온다는 설정의 '인체 미로'는 아이들에게 최고 인기다. 건설현장, 악기연주, 자동차수리, 소방체험 등 직업체험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관람코스다. 3층에는 생활과학을 배우는 도시마을, 지구환경을 배우는 지구마을이 있다. 이곳은 초등 고학년을 위한 공간으로 SF영화에서 보던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구의 환경오염, 깨끗한 에너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곳이다.

인천어린이과학관은 과학이 멀리 있지 않고 생활 속 어디에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과학의 원리가 숨어있는 체험과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꿈을 키워주는 상상발전소, 인천어린이과학관이다.

TIP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로 21
- 전화 032-550-3300
- 홈페이지 <http://www.icsmuseum.go.kr>
(1일 6회 예약입장제)
-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 관람시간 09:00 ~ 18:00
- 관람료 성인 4,000원, 만7세~19세 2,000원
(만6세 이하 무료, 인천시민 신분증 제시 50% 할인)



인천어린이과학관 도시마을

61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짜장면박물관

인천역을 나오면 길 건너 작은 중국, 차이나타운이 이어진다. 길거리는 온통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를 입은 화교 상인들과 중국식 근대 건축물,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 간판과 홍등으로 중국 어느 도시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든다.

개항 후 인천에는 청나라와 일본의 조계지역이 설정되고, 청관거리가 조성됐다. 당시 청관 거리는 손에 꼽히는 변화가로 청나라 음식점이 많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곳이 등록문화재 제246호인 '구)공화춘'이다.

'구)공화춘'은 '공화국 원년의 봄'을 맞는다는 의미로 1912년 문을 열었고, 이곳에서 처음 짜장면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짜장면박물관은 이곳 '구)공화춘'을 개조해 박물관으로 조성했다. 박물관은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1960년대 공화춘 주방의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짜장면을 만드는 전 과정을 보여준다. 세밀한 음식모형과 춘장을 부는 주방장의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아이들은 재밌고 즐겁다.

짜장면박물관에서 짜장면의 역사를 만나고, 인접한 차이나타운에서 담백하고 고소한 짜장면 한 그릇이면 멋진 추억이 될 것이다. 짜장면박물관에 왔다면 단청을 소재로 한 헤명단청박물관과 인천역사자료관을 함께 둘러보는 것도 좋다.

TIP

- 주 소 인천광역시 차이나타운로 56-14
- 전 화 032-773-9812
- 홈페이지 www.icjgss.or.kr/jajangmyeon
- 휴 관 일 연중무휴
- 관람시간 09:00 ~ 18:00
- 관 략 료 성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62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거운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볼



TIP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0
전화 032-760-1013~6
홈페이지 www.tribowl.kr
휴관일 월요일



송도센트럴파크를 걷다보면 눈에 띄는 건물이 있다. 마치 누군가가 손으로 빚어 놓은 듯한 도자기 모양의 독특한 외형, 트라이볼이다. 아래가 좁고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로 세 개를 뜻하는 트리플(Triple)과 그릇을 뜻하는 볼(Bowl)의 합성어다. 하늘(공항), 바다(항만), 땅(광역 교통망)의 세 요소를 의미하고, 송도, 청라, 영종으로 이루어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상징한다.

트라이볼은 복합문화공간이다. 인천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연, 전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형극장(Arena) 형태의 공연장과 문화예술교육, 전시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로 연결된 내부에는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어 작은 음악회, 재즈, 국악, 뮤지컬까지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이뤄진다.

최근에는 재즈페스티벌, 사진전, 비빔 공연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인천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트라이볼의 주변은 물길이가 돌고 있어 물 위에 비친 송도의 야경이 아름답다.

아울러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소개하는 IFEZ홍보관과 인천의 과거·현재·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컴팩스마트시티 여행을 추천한다.

63 새로운 세계로 떠난 이민자들의 출발지 한국이민사박물관

대한민국 최초 공식 이민의 출발지였던 인천, 그 땅 위에 대한민국 최초의 이민사 박물관인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있다. 인천의 대표 명소인 월미도 끝자락, 소담한 월미산을 등 뒤로 두른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지난 2003년 미주 이민 100주년을 맞아 선조들의 개척자적인 삶을 기리고, 그 발자취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인천 시민들과 해외 동포들의 뜻을 모아 건립했다. 전체 4개의 전시실은 이민의 출발지였던 개항 당시 인천의 정세와 이민의 배경이 마치 한편의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펼쳐져 있다. 제1전시실에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던 하와이의 상황, 최초의 이민자들을 싣고 하와이로 출항한 선박 '갤릭호'의 모형 등 당시 이민자들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제2전시실은 우여곡절 끝에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들의 애환과 개척자로서 미국 전역에 뿌리내린 발자취를 사진 자료와 유물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고된 노동 생활을 담은 영상과 하와이 한인 학교를 연출해 놓은 교실 등이 당시의 생생함을 더한다. 제3,4전시실에는 지구 반대편 중남미로 떠난 한인들의 또 다른 삶과 조국 광복을 위해 머나먼 타향에서 온몸을 바쳤던 선열들의 활약상, 그리고 이민자들의 가혹한 노동 환경 등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세계 속에 뿌리내린 700만 동포들의 어제와 오늘의 삶이 생생히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저마다의 목표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따듯한 노력을 응원하는 곳이다.



이민자들의 고된 삶을 관람하는 학생들

TIP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29
홈페이지 <http://mkeh.incheon.go.kr>
관람시간 09:00~18:00,

전화 032-440-4710~1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공휴일 다음날
관람료 무료



갤릭호를 형상화한 전시실





중국 아오란 그룹 모래내시장 방문

인천관광 100+!

PART
IV

Living Culture & Traditional Market

생활문화 · 전통시장

인천사람 속으로

64 강화의 색에 취하다 강화풍물시장



신바람 한 자락에 가던 걸음 멈추고 뒤돌아서게 만드는 곳, 강화풍물시장이다. 온갖 물건과 분주한 상인들을 바라보노라면 무기력하게 느껴지던 삶도 어느새 활기를 띤다.

강화풍물시장은 1993년 동낙천 복개 터에 자리 잡은 후 정비 작업을 거쳐 2007년 문을 열었다. 시장 내부에는 종류가 다양한 상점과 식당들이 즐비하다. 강화 특산물인 화문석을 비롯해 순무김치, 사자발약쑥, 속노랑고구마, 건어물과 각종 젓갈류도 풍성하다.

화문석코너에는 고려시대부터 중국 수출품으로 명성을 날렸던 꽃뫼자리 외에도 전통분위기 물씬 풍기는 수공예 소품들이 가득하다. 바다를 안고 있다는 특징 때문에 말린 생선은 물론 명란젓, 조개젓, 창난젓, 갈치숙젓 등 다양한 젓갈도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건물 내 상설전통시장과 더불어 이곳에서는 매월 5일 간격으로 장이 열린다. 오일장이 서는 2, 7, 12, 17, 22, 27일에는 시장이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다.

상인과 지역 농민, 어민 등 어르신들이 펼쳐놓은 좌판엔 정이 넘친다. 풍물시장 앞마당은 강화 특산물을 포함해 뒷산에서 캐온 나물, 고추 등 농작물과 수수 빗자루까지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는 만물 장터가 된다. 그곳에 가면 물건뿐만 아니라 활력과 인심까지 덩으로 얻을 수 있다.

TIP

강화 '더미장어마을'은 장어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많다. 강화의 대표음식인 장어는 고단백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마을 식당은 더미포구에서 잡히는 장어를 사용해 신선도가 최상이다. 어린이와 함께라면 '옥토끼우주센터' 에도 들러 볼만하다. 우주과학 박물관을 비롯해 야외테마공원, 사계절 썰매장 등을 찾았다. 또 '강화아미에월드' 에서도 약쑥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65 푸근하고도 정겨워라 거북시장

시장이 주는 푸근함 때문일까. 좌판 앞에서 기분 좋은 웃음을 내어주는 상인의 시선이 따스하다. 서구 석남동에 자리한 거북시장. 이곳의 이름은 거북상회라는 가게에서 비롯되었다. 1960~70년대 '거북상회'라는 가게가 번창하면서 이 가게를 중심으로 거북골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시장이 정식으로 개설된 것은 2005년이지만 30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자리해 왔다. 현재 122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오랜 시간 주민과 함께 해 온 만큼 시장 곳곳엔 단골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10여 년 전 가격 그대로 짜장면을 팔고 있는 자그마한 중국집, 아는 사람만 즐겨 찾는다는 보쌈집, 그리고 족발, 닭꼬치, 떡볶이, 순대 등 먹거리를 파는 맛집들이 즐비하다. 또 각종 과일과 싱싱한 생선, 식재료들이 풍부해 인근 주민들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으며, 마트와 잡화, 화장품, 그릇 할인매장 등도 자리해 서민들의 친근한 알뜰장터로 자리매김했다.

저녁 무렵이면 퇴근길 간식을 사 들고 집으로 향하는 아버지나 저녁 찬거리를 사러 나온 어머니들의 모습이 익숙한 풍경처럼 펼쳐진다.



서민들의 소중한 삶 터, 거북시장

TIP

석남2동 가정로와 거북로를 따라 형성된 거북시장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호황을 누리다 점점 약화되었다. 이후 88올림픽 때 도로 정비 위해 거북시장 주변 도로에서 노점을 펼쳤던 상인들을 모아 당시 교통량이 적었던 현재의 장소에서 장사를 하게 했다. 처음 50여 개였던 노점은 장세가 커져 현재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시장으로 발전했다.

66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 서린 내동골목



내동 언덕길



곽낙원 여사가 옥바라지를 한 객주집 골목



도선사집



감리서터 표지석



인천자유공원과 신포동을 이어주는 비탈진 언덕길에는 오래된 주택이 즐비하다. 주택들 사이 골목을 걷다보면 잊었던 기억과 이야기들이 나직이 들려올 것만 같다. 언덕 위 내동교회를 지나 내동 143-1번지에 이르면 유항렬 주택이 자리한다. 유항렬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선사이자 갑종선장이었다. 1940년부터 1970년 11월까지 우리나라 격동의 역사를 지켜보며 인천항을 지켰다. 그는 집 지을 때 서쪽을 향해 발코니를 내어 늘 서해를 바라보았다고 한다.

유항렬 주택 인근 내동 151 번지 일대에서는 옛 감리서 터를 만날 수 있다. 100여 년 전 백범 김구 선생이 옥살이 중에 일제에 의해 노역을 다니던 길이다. 이 일대는 그가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와 함께 가장 오래시간을 보낸 지역이기도 하다. 김구 선생이 인천과 인연이 닿은 것은 그의 나이 20세이던 1896년이였다. '치하포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의해 내동감리서에 수감돼 옥살이를 당했다. 당시 그의 어머니인 곽낙원 여사는 아들이 인천감리서에 수감되자 인근 물상객주 집에 기거하며 옥바라지를 했다고 전해진다. 그가 보낸 고초의 시간은 안내판에 새겨져 기억되고 있다. 신포로 47번길로 향하면 상우재에 닿는데 이곳은 1930년대 일본인 도립병원장이 살던 건물이다. 이곳 역시 시간을 건너뛰어 2012년에 게스트하우스로 탈바꿈 되었다. 내동골목, 그 풍경 속을 천천히 걷다보면 지난 시간의 숨소리가 드문드문 걸음을 붙잡는다.

TIP

감리서는 조선 말기 개항장, 개시장의 행정과 대외관계의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였다. 백범은 1911년에 '105인 사건'으로 인천감리서에 두 번째 투옥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지방을 순회하며 강연을 했는데, 1946년 당시 그가 내동교회 사람들과 기념촬영 한 사진이 지금도 그곳에 보존되어 있다.

67

짭조름한 위로를 받고 싶은 날 동인천삼치거리



삼치거리 원조격인 인하의 집

어스름 내려 곳곳에 하얀 등 켜지면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겨온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들아들 부드러워 입안에서 살살 녹는 짭조름한 맛. 바로 삼치거리의 생선구이다.

동인천삼치거리는 1960년대 중반부터 50여 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뿌리는 인하의 집이다. 이 집은 지금의 삼치거리 뒷골목에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 음식점 문을 열었다. 이름처럼 주요 단골은 대부분 인하대 학생들이었다. 처음엔 삼치와 막걸리, 해물파전을 손님상에 내놓았다. 이후 색다른 메뉴를 고민하다 다양한 생선구이를 만들었는데, 그 중 삼치구이가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인하의집을 중심으로 주변에 삼치전문점이 계속해서 들어서면서 현재는 20여 곳의 삼치구이집이 줄지어 서 있다. 2002년에는 인천시 중구에서 삼치거리를 음식 특화거리로 지정했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삼치는 청량고추 등을 넣어 속성시킨 양념장에 찍어 먹는데 그 맛이 일품이다. 삼치 자체도 맛이 있지만, 굽는 방식과 삼치를 찍어 먹는 소스에 따라 다양한 삼치구이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또 직화로 구운 삼치는 기름기가 제거돼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자랑한다. 삼치 이외에도 오징어 숙회나 달걀찜, 도토리묵, 홍합탕, 순두부, 김치찌개, 알탕, 불낙전골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TIP

삼치는 비린 맛이 적고 특유의 담백한 맛이 있어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등푸른 생선이다. DHA가 풍부하게 함유돼 두뇌발달이나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비타민B의 일종인 니아신이 함유돼 설염, 구내염, 피부염 예방효과가 있으며 비타민A가 함유돼 야맹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8 통통하고 쫄깃한 주꾸미의 유혹 만석동 주꾸미거리

만석고갯고 아래 중구와 동구를 연결하는 건널목 인근에는 '만석동 주꾸미거리'가 형성되어 있다. 주꾸미를 주재료로 한 음식점들이 모여 이루어진 거리이다.

만석동은 쌀이 모인다는 이름 뜻과 달리 인천의 대표적인 판자촌이다. 김중미의 청소년소설 '깡이부리말 아이들'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가난했기에 서민들은 값싸고 맛있는 음식을 선호했다. 다행히도 가까운 곳엔 만석부두와 북성포구가 있었다. 바다에서 돌아온 어부들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주꾸미를 마을 사람들에게 내어 놓았다.

주꾸미거리는 다소 아쉬울 만큼 음식점이 몇 개 되지 않는다. 하지만 50여 년 동안 뱃사람들 그리고 주민과 함께 어깨를 기대오며 음식을 내어준 식당도 자리한다. 오랜 시간 손맛을 선보인 까닭에 텔레비전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고 유명인들의 발길도 잦다.

주꾸미 요리는 얇은 냄비에 주꾸미와 미나리를 넣고 약한 불에 데치는 주꾸미데침과 주꾸미볶음이 대표음식이다. 다 먹고 난 후에는 공기밥을 넣어 비벼먹는다. 특히 반찬으로 나오는 동치미 국물은 누구나 손뼉을 만큼 별미로 통한다. 가난했던 시절 차가워진 가슴과 주린 배를 채워 주던 위로의 음식. 만석동주꾸미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옛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오래 전 어려웠던 시절의 입맛을 달래준다.



TIP
만석동 주꾸미거리 인근에는 화수부두가 자리한다. 인천의 제2어항이라 불릴 만큼 활기가 넘쳤던 곳으로 조기부두로 유명했고 새우젓 항으로도 명성을 날렸다. 어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엿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화수부두수산물직매장이 부두 곁에 들어서 제법 큰 먹거리 장터도 운영된다.



69

종합선물세트처럼 풍성한 설렘 인천모래내시장



인천모래내시장은 1984년 한두 개의 노점으로 시작해 30여 년 가까이 이어온 전통시장이다. 한때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철거 통보까지 내려졌지만 상인들이 힘을 합해 시장을 지켰다. 대로를 중심으로 아파트단지와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하며 수십 개의 상점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다. 모래내시장은 보는 재미, 먹는 재미, 사는 재미가 커 대형 쇼핑물이 부럽지 않다. 농산물 도, 소매시장으로 시작해 현재는 의류, 가전, 가구, 그릇, 침구류, 보석, 각종 공산품은 물론 축·수산물, 식료품, 청과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모든 이들이 만족할 만한 만물 시장이다.

규모도 규모지만 시장을 다녀간 사람은 누구나 먹거리에 감탄한다. 유명한 맛집들이 즐비한데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종류와 맛이 다양한 꼬마김밥과 어묵, 떡볶이 등 분식을 비롯해 방송에 소개되었던 홍어회 무침, 대형 마트에서는 살수 없는 수제 강정 등 먹는 재미가 두 배다. 특히 건강에 좋은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해 지식경제부장관 상을 받은 반찬가게도 있다.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만 맛을 내 입소문이 자자하다. 최근엔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 쾌적한 쇼핑환경으로 외국인의 발길도 잦다. 두 손 가득 든 시장바구니엔 물건 뿐만 아니라 소소한 기쁨도 수북이 담긴다.

TIP

인천 구월동 종합문화예술회관 맞은편엔 밴댕이 요릿집이 즐비하다. 비교적 큰 규모의 가게들이 일렬종대로 자리하는데 이들 가게들은 상당수가 방송과 언론에 소개되었다. 주 요리는 밴댕이 회와 무침, 구이이다. 밴댕이 이외에도 주꾸미, 물텀벙이, 한치, 준치, 병어, 꽃게탕, 우럭, 조기 등 다양한 해산물 메뉴를 맛볼 수 있다.



70 더디게 가는 시간 속으로 배다리



배다리는 오래전, 작은 배가 바닷물이 들어오던 수로를 통해 철교 밑까지 드나들었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인천 동구 금창동과 송현동 일대를 가리킨다. 개항 이후 일본인들에게 개항장 일대를 빼앗긴 조선인들이 모여 형성된 마을이다. 이곳은 현책방 거리로 유명하다. 1960~70년대에 생겨난 현책방 거리에는 현재 아벨서점과 한미서점, 삼성서점 등 5개의 책방만이 남아있다. 한때 학생들과 지식인들로 북적였던 책방은 세월을 품은 채 추억의 향기를 불러일으킨다.

현책방 거리 맞은편에는 스페이스 빔이 자리한다. 옛 인천양조장 건물인데 새롭게 지역미술연구모임이 시작되면서 현재는 다양한 예술 활동과 도시공동체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스페이스빔에서 창영초등학교 일대까지 걷다보면 골목 담장에 그려진 벽화를 만날 수 있다. 이곳 사람들의 옛 모습과 현재의 삶이 벽화로 그려져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조용히 붙잡는다. 인근에서는 백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나라 최초 공립보통학교인 창영초등학교도 만날 수 있다. 바로 옆엔 1910년 착공된 서구식 신식교육의 선구지 영화학교의 본관동이 자리한다. 배다리에 서면 오래된 풍경들이 한달음에 확 다가오지만 느리고 잔잔한 풍경 속에서도 새로운 문화가 꽃피고 있다. 문학, 사진, 미술, 건축 등 다양한 전시와 문화프로젝트가 기획 돼 시민들과 함께 하며, 문화운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TIP

남구 우각로 문화마을에는 1970~80년대 모습을 간직한 골목 담장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 우각로 122번 길과 이어진 골목을 따라 걷다보면 향수를 자극하는 그림과 마치 이웃사람들이 말을 걸어 오는듯한 정겨운 그림들이 길손에게 위로로 건넨다. 일상에서 벗어나 소소한 이야기를 만나고 싶을 땐 산책하듯 발걸음하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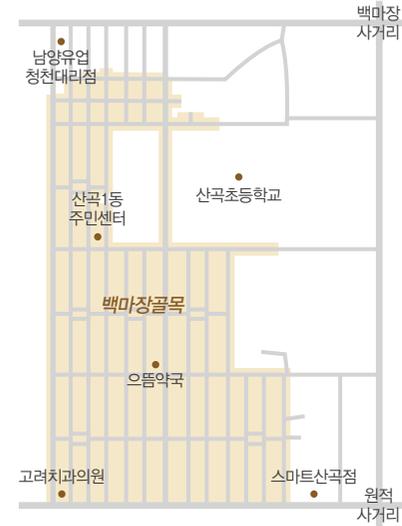
우각로 담장 벽화



인천 3.1운동 발생지 창영초교

71

70여 년 세월
아득한 기억을 뒤척이다
백마장골목



부평미군거리



영단주택골목

1939년 일제는 부평에 일본육군조병창을 설치했다. 조병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군의 전쟁 물자를 조달하던 병기 공장이었다. 일제는 이곳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에게 산곡동 87번지 일원에 조선주택영단을 설립해 공급했다.

해방 후에는 부평에 미군부대가 자리했다. 부평미군부대 주변은 미군시설과 상점, 클럽들로 채워졌다. 백마장 골목 클럽에는 주말이면 미군들로 불야성을 이뤘다. 그들과 연결된 병원이며 신발가게, 양장점이 들어섰고 미군부대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1960년대부터는 산업화 바람을 타고 한국베어링,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등이 들어섰다. 미군들이 떠난 후, 산곡동 근로자 주택은 공장 근로자들로 채워졌다. 이후 산곡동 인근 공장들이 차츰 문을 닫으면서 근로자들도 하나둘 마을을 떠났다. 1973년 에스컴이 해체된 이후 미군 부대는 캠프마켓(Camp Market)만이 남아 현재까지 주둔 중이다.

2000년대 들어 산곡동 영단주택가는 도시환경정비 사업 지구로 지정되었다. 이후 이곳에 외부 투기 자본이 유입되면서 마을을 떠난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지금도 골목 곳곳엔 70여 년의 세월이 아로 새겨져 있다. 이곳을 터전 삼아 한평생 살아온 사람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질곡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 이웃들이다. 담장과 담장 너머 이어지는 주민들 이야기엔 그 시절에 대한 슬픔과 애환, 삶의 의지와 끈끈한 정이 넘친다.

TIP

백마장이라 불리는 산곡동은 구한말에 부평군 마장면 산곡리였다. 이후 부천군 부내면 산곡리가 되었고 1940년 부내면 전부가 인천부에 편입되자 당시 인천부윤(仁川府尹) 나가이데라오가 인천 전 지역의 각 리·동을 일본식 이름으로 모두 고쳤다. 이 때 산곡리를 하구바쵸(白馬町)로 개칭했는데 해방이후 우리말인 백마정이라 고쳐 불렀다. 백마정의 정(町)이 장(場)으로 변을 돼 백마장이라 불리게 됐다.

72

최다 점포수로 세계기록마저 인증 부평지하상가

부평역 지하상가는 부평역 언저리부터 문화의 거리까지 1.8km에 이른다. 1970년대 말 상가가 조성된 이후 현재 4개의 커다란 상가가 연결돼 총 3만1692㎡의 면적에 1408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단일면적으로는 최다 점포수를 자랑해 2015년 10월에는 미국 '월드 레코드아카데미'가 세계기록을 인증했다. 쇼핑몰 내에는 의류, 액세서리, 잡화, 네일아트, 속옷, 귀금속, 화장품, 핸드폰 등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이 판매된다. 더불어 편리한 교통망으로 인해 지역민은 물론 수도권 지역에서도 쇼핑객을 끌어들이며 일일 평균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쇼핑의 메카로 알려져 유행에 민감한 10~40대까지의 쇼핑 고수들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연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 돼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공간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시즌별 할인행사와 경품 이벤트는 물론 고객편의를 위해 친환경 LED조명을 설치, 분위기를 아늑하게 연출했다. 또 간판과 화장실 개선, 바닥 교체, 공기순환시설 정비로 공간이 매우 쾌적하다. 여기에 길 찾기가 쉽도록 무인안내기 설치하는 물론 상가 길 전체를 초록길, 오렌지길, 빨강길, 파랑길로 나눠 표시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부평역 지하상가에 이르면 마음 한 자락 내어놓고 천천히 걸어보라. 약간의 발품에도 소중한 것은 그 무엇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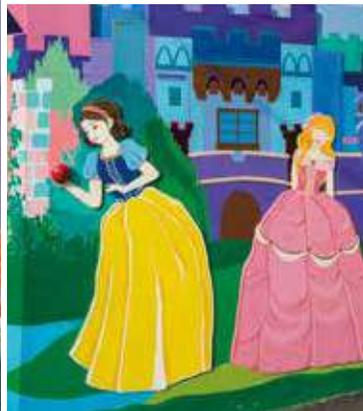


TIP

부평역 인근에는 해물탕거리가 자리한다. 약 30여 년 전 해물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들이 모여면서 형성되었다. 해물탕에는 바지락, 소라, 조개, 낙지, 새우, 주꾸미, 꽃게 등 다양한 해산물이 사용되며, 미나리, 콩나물이 곁들여져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탕과 함께 찜이 주 메뉴로 음식점에 따라 다양한 맛을 선보인다.



73 동화책 속을 노닐다 송월동 동화마을



TIP

송월동 동화마을축제는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진행된다. 각종 공연을 비롯해 어린이 미션게임, 동화마을탐험이 이루어진다. 또 스탬프 찍기, 페이스페인팅, 바람개비 만들기, 북아트, 장난감 만들기, 전래놀이 등 다양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공터에 세워진 나무가 말을 걸어오고 알록달록 꾸며진 집에서는 동화 속 주인공이 뛰어나와 반겨 줄 것만 같은 곳. 인천 중구에 자리한 '송월동 동화마을'이다.

송월동은 소나무가 많아 솔골 또는 송산으로 불리다 소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달이 운치가 있다하여 송월동이라 불렀다.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된 이후 독일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거주하던 부촌이었으나 젊은 사람들이 떠난 자리엔 대부분 어르신들만이 남았다. 때문에 빈집이 늘고 건물도 노후화 돼 활기를 잃었다.

2013년 4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꽃길을 만들었다. 낮은 담과 옹벽에는 세계명작동화를 테마로 한 벽화가 그려졌다. 골목길을 따라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길', '빨간모자 길', '엄지공주 길', 피터팬 속 '요정나라 길' 등 11개의 동화를 만날 수 있다. 여기에 곳곳에 조형물이 설치돼 눈이 즐겁다.

특이한 것은 전국의 벽화마을과 달리 이곳의 벽화는 입체적이라는 것이다. 걷다 보면 마치 주인공이 되거나 동화책 속 등장인물들을 속속 만날 것 같은 기분을 안겨준다. 마을에는 기념품 판매장과 카페, 체험실, 먹거리 상점 등이 어우러져 있다.



74 달동네의 애환, 추억, 그리고 흔적들

수도국산골목



오후 느슨한 시간. 담장에 널린 빨래가 나부낀다. 작은 꽃들과 상추, 대파가 담긴 화분들이 가지런히 즐밋춰 서 골목을 지키고, 대문 앞 고양이의 하품이 발목을 붙잡는다.

수도국산 골목의 한 낮 풍경은 투박하지만 여유가 담겨있다. 수도국산은 동구 동인천역 뒤에 위치한 작은 산으로 1909년 산 위에 있던 수도국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원래 이곳은 송림산이었다. 바다였던 주변이 매립돼 땅이 생기고 공장이 지어져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까진 조용한 바닷가 소나무 숲이 드리워진 언덕이었다고 한다.

개항기 이후 일본인들이 중구 전동 지역에 터를 잡자 그곳에 살았던 조선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하며 수도국산은 가난한 사람들의 터전이 되었다. 이후 한국전쟁 때는 피난민들이, 1960~70년대 산업화시기에는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지방 사람들로 붐볐다. 이렇게 수십 가구가 모여 살게 되면서 인천의 전형적인 달동네가 되었다. 그러다 1998년부터 재개발이 시작되고 그 자리엔 아파트 단지인 솔빛마을이 들어섰다. 배수지 공간은 공원으로 조성했고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만들어 이곳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삶과 정취를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물관 아래 송림동 골목을 걷다보면 아기자기한 벽화도 만날 수 있고 골목의 매콤한 고추냄새처럼 삶이 매웠을 달동네 서민들의 애환도 느낄 수 있다. 지금도 바람이 불면, 그때 그 사람들의 애환과 삶의 추억들이 아련한 흔적이 되어 다가온다.



TIP
 송현공원 체험형 물놀이터 또랑은 조합놀이대, 워터터널, 유아풀과 광장, 그늘막을 갖춘 어린이 물놀이 터이다. 서해대로(송림동 208-5)에 공영주차장을 개방하고 6~8월까지 2개월간 개장한다. 수도국산 박물관 아래, 현대시장 인근에는 닭알탕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50년 전부터 현대시장 닭집의 바가지에 담긴 닭 알과 알집으로 찌개를 끓였는데 그 맛이 얼큰하고 담백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75 신기통보, 엽전 한 닢의 달달한 재미 신기시장



1970년대 문학산 언저리에서 농사짓던 아낙들은 텃밭에서 가꾼 푸성귀를 내다 팔았다. 이렇게 모여들던 사람들은 점차 많아졌고 그 덕분에 골목형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러다 1975년 정식으로 문을 열었는데 그곳이 바로 신기시장이다.

신기시장은 2013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돼 전통공예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선 한지공예, 자개공예, 민화채색 등 다양한 전통공예품을 만들 수 있다. 또 시장 자체적으로 포장용기와 봉투,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고 상품 진열 선을 준수하는 등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주차장 건물 내에 있는 ICT체험관 & 북카페에서는 도서열람과 인터넷 게임, 신기시장 특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주차장 옆에는 인천 프로야구 SK와이언스 월이 설치돼 포토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선수관련 전시물도 볼 수 있다. 특히 신기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신기통보는 한 개당 오백원의 가치로 통용되며 시장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엽전 자체가 한국을 알리는 전통 기념품이기도 해 시장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홍보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시장 내에는 생필품과 농·수산물물 비롯해 의류점, 아동용품점, 신발가게, 좌판형 점포 등 다양한 가게가 운영된다. 그 중 시장 초기부터 형성된 순대골목은 많은 발길이 이어진다. 이 외에도 어묵, 족발, 모듬전, 호떡 등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먹거리가 가득하다.

TIP

신기통보는 신기시장 내에서 화폐 대신 사용하는 구리빛 엽전이다. 이는 신기시장이 주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들어서면서 위기를 맞자 조선시대 화폐인 상평통보를 본떠 만든 전통시장 상품권이다. 엽전으로는 만두와 닭강정, 전 등을 맛볼 수 있으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시장의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76 그곳 달인들 음식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신포국제시장



신포국제시장은 19세기 말 인천항 인근 신포동에 있던 생선 가게와 채소 가게들이 시초가 된 인천 최초의 근대적 상설 시장이다. 3300㎡의 규모에 약 160여 개의 가게가 입점해 있다. 신포시장에는 방앗간, 수예점, 양화점, 잡화점, 과일가게 등 다양한 점포 외에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가게가 많아 이국적인 풍물을 느낄 수 있다. 이곳은 쫄면과 닭강정, 오색만두 등 새로운 먹거리를 탄생시킨 곳이기도 하다. 이를 경험하기 위해, 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찾아 몰려드는 손님들로 시장의 하루는 늘 바쁘다.

바삭하게 튀겨낸 닭에 청량고추와 매콤달콤한 양념을 뿌린 닭강정은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다. 코끝을 자극하는 인기메뉴로 3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1971년 문을 연 신포우리만두도 40년 동안 가게를 지켜오며 쫄면과 만두를 제공한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방앗간의 역사는 70여 년이나 됐다. 주인 이종복 씨는 옛날 방식 그대로 매일 떡을 만든다. 이 외에도 형형색색 오색만두, 공갈빵, 낙지호롱이, 수제 어묵, 팔죽 등 시장을 걷는 동안 눈과 코를 자극하는 음식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음식은 이미 내국인들을 넘어 세계인들의 입맛까지 다시게 한다.

미각 한류를 만들어내는 그들 모습이 건강하고 생생하게 보이는 이유다. 최근에는 시장의 다변화를 꿈꾸며 공연문화도 선보이고 있고,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디자인 스튜디오를 활용한 의류디자인 사업을 시작해 시장 활성화에 힘을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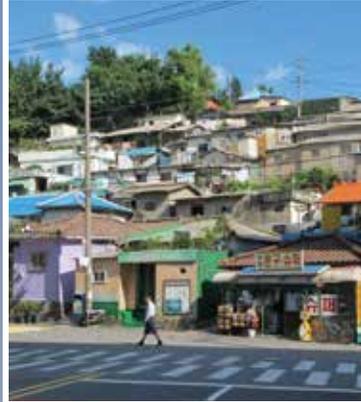
TIP

동인천역 인근 용동 큰우물 주변은 서민들에게 매우 친숙한 '칼국수거리'였다. 1960년대 용동에는 큰 우물을 긴 골목길에 삼삼오오 칼국수집들이 들어섰다. 중구는 용동 큰우물 주변을 칼국수 거리로 지정했지만 현재는 3~4곳의 칼국수집이 남아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신포동 '칼국수 골목' 역시 튀김가루를 듬뿍 올린 칼국수로 유명했다. 한때 9곳의 칼국수집이 자리했지만 이제는 2곳만 남아 명맥을 잇고 있다.



다양한 시장 음식

77 벽화파라 소박한 삶속으로 십정동골목



백운역에서 동암역 사이를 열우물고개라 부른다. 이 고개 너머 중턱에 열우물마을이 자리한다. 십정동은 열 개의 우물이 있어 열우물 또는 십정(十井)이라 했다. 일설에는 현 상정초등학교 위쪽에 대동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이 아무리 추위도 따뜻한 열(熱)이 많아 열우물이라 불렀다.

열우물마을이 생긴 건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이다. 동구 만석동과 주안 그리고 서울에서 철거민들이 모여들어 무허가 집짓기가 시작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세월이 흘러 마을 곳곳이 흑백사진처럼 낡고 빛 바래지자 몇 년 전부터는 이 마을에 터를 잡은 '거리의 미술팀'이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담장과 계단, 골목 곳곳이 그림으로 가득차자 사람들의 발길도 끝없이 이어졌다.

골목을 걷다보면 이웃이 떠난 낡은 담벼락 옆 계단에 앉아 푸성귀를 다듬는 할머니, 오래전 문을 닫아 빛바랜 간판들, 햇볕 속에 말라가는 빨래와 나물, 호젓한 골목에 가득한 화분들이 여유롭게 인사를 건넨다. 인천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며 고층아파트와 불과 몇 미터 간격을 두고 풍경이 교차된다.

최근엔 이 마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빈집들이 많고 노후화가 심해져 뉴 스테이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면서 머지않아 고층 아파트가 들어 설 계획이다. 인천의 마지막 달동네라 일컬어지는 이 마을의 풍경도 훗날 사진으로만 볼 수 있게 되었다.

TIP

동암역과 백운역 사이 경인철도변 신동아아파트 부지는 1998년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한센병자들이 개간해 일군 십정동 장터였다. 한센병 시인으로 알려진 한하운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한센병자의 자식들을 위해 1952년 농장 인근에 신명보육원을 창설했다. 1975년 십정동 자택에서 간경화로 사망하기 전까지 한센병자들과 함께했다.

78 개화기 서구 문물로 물꼬가 트였다 싸리재골목

1920년대 말 전후 배다리와 경동사거리, 신포동에는 제법 큰 상권이 있었다. 그 중 신포동에서 배다리로 향하는 길목인 개항로 78번지 일대는 한 때 인천의 새로운 문화와 유행을 이끌던 중심지였다. 일명 싸리재고갯길이라 불렸다. 싸리재는 배다리 철교 지나 경동사거리까지 싸리나무가 많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일대가 변장했던 이유는 1952년 을목동에 기독교병원이 설립된 이후 약국과 개인병원들이 속속 생겨나 인천의 의료타운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당시 평화당 약국을 비롯해 양약방과 대제원 등 한약방들이 모여 있었다. 시골에는 약국이 드물어 김포나 먼 지역 주민들까지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고갯길을 따라 포목점과 양화점도 성업했다. 1960년대에는 향도백화점이 쇼핑공간으로 인기를 끌었다. 향도백화점 주변에는 은행과 양복점, 금은방 등 다양한 상점들이 몰려 있었고, 애관극장과 중국 요릿집인 평화각, 음악다방, 신신예식장, 당구장 등이 줄을 이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다방에서 DJ가 음악을 신청받아 LP를 틀어주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다. 70년대 후반까지 지역 상권의 중심으로 빛을 받하던 싸리재고개는 1980년대로 들어서며 신도시 개발에 밀려 점차 쇠퇴했다.

100년 전 생겨난 애관극장은 현재까지 다양한 영상을 선보이며 문을 열어 놓고 있지만 극장 뒤 골목은 이제 시간이 느리고 조용히 흘러간다.



TIP
배다리 인근에 있는 '잇다스페이스'는 1930년 소금창고로 지어졌지만 이후 일본식 여성사우나로 사용되다 동양서림으로 바뀌었다. 서점이 문을 닫은 지 20여년 만인 2015년 목재가구 디자이너가 복합문화 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운영하고 있다. 애관극장 인근에 자리한 싸리재카페는 80년 전 일본식으로 지어진 건물을 개조해 한쪽은 생활공간으로 또 한쪽은 카페로 문을 열었다.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물건들이 가득하다.

79 산자락에 자리한 보양음식 마을 연락골추어마을



남동구 운연동에는 '연락골 추어마을'이 자리한다. 추어탕을 주 메뉴로 한 음식점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었다.

추어마을이 형성된 것은 1990년대이다. 원래 논농사를 짓던 평범한 농촌마을이었으나 논 미꾸라지가 많이 잡히면서 주민들이 추어탕을 즐겨 만들었다. 그런데 그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문 음식점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 세 곳이 영업을 시작했으나 현재는 10여 곳으로 음식점이 늘었다. 점심시간이면 인근 인천대공원으로 나들이 온 나들이객과 보양식을 찾는 손님들로 가득하다.

추어탕은 단백질과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보양음식이다. 이곳 추어탕은 고추장을 넣어 끓이는 것이 특징이다. 고추장과 미꾸라지, 국수와 수제비가 어우러져 걸쭉하고 얼큰한 국물 맛을 자랑한다. 미꾸라지 특유의 비린내와 흠내를 없애기 위해 산초가루와 들깨가루, 부추가 필수 양념으로 들어간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미꾸라지를 통째로 넣거나 갈아서 만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식재료의 경우 동네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농사지은 채소를 이용해 더욱 싱싱하다. 시골처럼 편안한 분위기의 마을로 인근에는 소래산과 인천대공원 등이 자리해 휴식을 취하기에도 더 없이 좋다.



TIP

연락골추어마을에 들렀다면 근처 애보박물관도 함께 보면 좋다. 애보박물관은 구암 황형택 법무사가 수십 년 동안 수집한 한국의 공예품과 미술품을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만든 곳이다. 이곳에서는 선조들이 사용하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겸비한 한국전통공예문화를 접할 수 있다. 상설전시와 기획전, 어린이관이 운영되며 아름다운 정원에서는 조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80

통통 튀는 음악방송, 시민도 상인도 즐거운 용현시장



1960년대 수봉산 일대에는 이주촌이 형성되었다. 한일극장 주변으로 상점과 노점이 늘어나면서 상권이 이루어졌다. 용현시장은 생선 초기에도 1천여 개 이상의 점포가 운영되었고 수인선 열차가 송도까지 운행 되었을 때는 경기도 안산시와 인천 남동구 등 각지에서 장을 보기 위해 몰려 들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편의성 위주의 쇼핑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2005년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 설치, 바닥 공사, 전기 공사, 화장실 개선 등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2007년에는 상인회장을 선발해 전국 최초로 매월 22~28일 사이 상설시장 세일을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조사통계에서 전통시장으로는 제일 활성화가 잘된 시장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현재 시장 내에는 반찬가게, 식료품, 수산물, 의류, 축산물, 과일, 잡화 등 400여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이곳이 다른 시장과 다른 점은 '뮤직박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주 월, 토요일 오후 2~4시까지 상인과 고객의 신청곡을 받아 음악방송이 진행된다. 방송을 통해 시장 상인의 삶이 깃든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장을 보면서 내가 직접 신청한 곡도 들을 수 있어 즐거움이 두 배다. 시장 내에는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마실카페'가 자리해 담소도 나눌 수 있다.

TIP
용현시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인천의 명물 물텀병이거리가 있다. 물텀병이는 아구를 의미하는 인천식 표현이다. 생김새가 좋지 않아 예전 어부들은 잡자마자 물로 집어던졌고, '텀병' 소리가 컸기에 '물텀병이'라 했다. 지금은 그 맛을 보기 위해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고객센터 마실카페



81 종착역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여행 인천역

경인선은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역 간 총 연장 27km를 운행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이다. 경인선의 종착역인 인천역은 1899년 9월 18일 경인선 철도역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1980년대 초까지 수많은 화물과 승객이 오갔던 물류중심지로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산업중심이 서울로 바뀌면서 쇠락의 길로 들어섰으며 역과 주변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변모해 갔다. 1974년 8월 15일,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과 함께 전철역이 되었다. 동인천역이 한때 상인천역으로 불려 이 지역에 오래 살았던 어르신들은 역을 구분하기 위해 이곳을 하인천역으로 불렀다. 수도권 전철에서 가장 오래된 역이기도 하고, 연장된 적이 없기에 현재까지 종착역으로 자리한다. 더불어 사람들이 또 다른 여행지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다. 여기를 통해 월미도와 내항, 차이나타운과 자유공원 등으로 향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인 인천역은 이제 117년 만에 대규모 복합역사로 탈바꿈된다. 관광, 업무, 판매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역사로 바뀌고 복합역사 후면부에는 광장이 신설된다. 광장은 차이나타운과 월미도를 연계한 역사문화테마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한때 새 시대를 여는 희망으로 자리했던 인천역, 이제 새로운 변모를 꿈꾸며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

TIP

차이나타운 1패루 옆 골목에는 차이나타운 속 뽕머리가 자리한다. 또 인천역 우측으로 난 길을 따라 차로 5분만 가면 북성포구에 닿을 수 있다. 손질해 펴놓은 그늘과 묶어놓은 선박 등 포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중구 북성동에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세운 레드비치 표지석이 있다.

82 바다의 선물을 가득 품어내는 인천종합어시장



인천종합어시장은 1880년대 말 인천에 살던 일본인들의 생선 소비량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수산시장이라고 알려져 있다. 개화기 인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왔다.

현재의 시장은 인천시가 1975년 연안부두 일대를 메워 도시정비사업을 벌이면서 만들어졌다. (주)인천개발공사가 북성동 어시장을 옮겨 관리해오다 1981년 (주)인천종합어시장으로 바뀌 현재에 이른다. 이곳은 전국에서 당일 직송되는 수산물을 수도권으로 유통하는 기능을 한다. 또 황해안 연안에서 어민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어 수산물을 구입하려는 관광객들로 사시사철 붐빈다. 당일 잡은 꽃게, 새우, 조개, 광어, 우럭 등 400여 종의 수산물을 시중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서해안에서 잡히는 대부분 어종이 이곳 인천종합어시장으로 모인다. 한국 최대어종이 모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 내에는 500여 개의 점포들이 선어부, 소매부, 활어부, 건어부와 젓갈부, 패류부 등으로 구성돼 자리한다. 선어부에서는 싱싱한 활어와 자연산 선어의 회를 즉석에서 떠 포장 가능하며 식당에서도 다양한 회와 매운탕을 맛볼 수 있다. 젓갈부는 새우젓, 조개젓, 명란젓, 창란젓, 황석어젓, 오징어젓 등을 판매한다. 그 중 새우젓은 어시장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굴에서 1년간 숙성시켜 만들기에 명품 젓갈로 알려져 있다. 시장을 둘러보는 동안 만선을 이룬 어부같은 두뚝한 기쁨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TIP
 '연안부두밴댕이회무침거리' 에는 밴댕이회무침 전문 요리점이 많다. 밴댕이회무침은 온갖 양념에 아채와 밴댕이회를 넣고 무쳐 매콤한 맛이 일품이다. 밥, 시래기된장국, 간장게장, 김치, 상추 등이 따라 나오며 밥에 비벼 회덮밥으로 먹기도 한다.



83 60만 번 손길 거쳐 피어난 꽃자리 강화화문석마을



강화 화문석 마을의 구심적인 화문석문화관

강화화문석마을은 농촌전통 테마마을이다. 마을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문화와 전통체험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이 마을은 황해도 전통 농악인 길학군 7차 농악이 유일하게 보존된 마을이기도 하다. 또 예로부터 화문석이 유명했다. 화문석은 꽃무늬를 놓아 짠 꽃뚝자리이다. 왕골을 엮어 짠 것으로 여름철에 널리 애용되며 무늬가 아름다워 장식적 효과도 크다. 화문석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돼 가내수공업으로 발전해 왔다. 100여 년 전 조선 왕실은 화문석의 도안을 특수하게 제작하라는 명을 내렸다. 당시 백색자리의 생산지였던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의 한충교 씨는 연구를 거듭해 도안에 의한 화문석 제작에 성공했다. 이후 다양한 제조 기술을 개발, 선보이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뒤로 이 마을에서는 강화의 완초를 이용해 특산품이기도 한 전통화문석 짜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화문석박물관 견학이 연중 가능하며 농촌의 장점을 살려 계절별로 농사체험과 농산물 수확체험을 진행한다. 순무김치만들기, 장담그기 외에도 생태환경체험과 역사·안보체험이 이루어진다. 마을과 가까운 주변의 유적지와 미술관, 박물관, 저수지 등 명소도 관광할 수 있다. 체험을 위한 농가민박이 운영된다.



화문석 체험



TIP

화문석은 여름에 시원하고, 수분을 잘 흡수하며 겨울에는 냉기를 방지해 준다. 오래 사용해도 윤기가 강하고 부스러짐이 없으며 질긴 것이 특징이다. 화려하면서도 소박한 무늬와 더불어 우아하고 정교한 수공예품으로 거실에서 접빈용으로 사용하거나 경사, 제례용으로 사용한다.



강화 화문석문화관

84 푸짐한 정 없어 더욱 시원한 한 끼 식사 화평동 세숫대야냉면거리

화평동 냉면골목은 1980년대 중반 형성된 거리이다. 싸고 맛있는 냉면이 입소문을 타면서 냉면집이 늘었는데 이곳에서 세숫대야 냉면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처음엔 냉면 양이 보통이었지만 주변 공장 노동자들이 냉면 사리를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아예 냉면을 푸짐하게 담아 손님상에 올리게 되었다. 덕분에 냉면 그릇도 세숫대야처럼 커지게 되었다. 세숫대야 냉면은 양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한 편이다.

냉면의 종류는 비빔냉면과 물냉면인데 집집마다 각각 독특한 맛을 자랑해 다양한 냉면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화평동 냉면의 특징은 냉면에 열무김치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열무김치는 삼삼하고 시원하며 아삭아삭해 맛이 일품이다. 쫄깃한 면발위에 시원하고 칼칼한 열무김치, 고명으로 올려진 오이, 당근, 계란과 육수의 맛이 어우러져 냉면이 맛깔스럽다. 최근에는 수박냉면 등 이색냉면도 선보이고 있다.

공장 노동자들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알아주고 젊은이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기 위해 푸짐하게 차려 내었던 정은 최근 사리 무한리필로 바뀌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

TIP

동인천역 인근 중앙시장 끝 편에는 송현동 순대골목이 자리한다. 1960년대 수문동 시장이 개장된 이후 항만과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부담없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국밥집들이 모여면서 형성된 골목이다. 30년 이상 영업해온 순대국밥 집 10여 곳이 모여 있어 최근 테마거리로 지정되었다.



세숫대야 냉면



수박 냉면



화평동 냉면거리



85 봄, 여름, 가을, 겨울 즐거움이 가득 NC큐브 커널워크



NC큐브 가로수길

송도 NC큐브 커널워크는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몰로 2013년 8월 오픈했다. 예쁘고 아기자기한 카페와 다양한 테마의 상점들이 모여 있어 각종 브랜드 제품 쇼핑은 물론 맛있는 먹거리와 볼거리, 문화공연까지 즐길 수 있다.

이곳은 인공수로를 따라 사계절을 주제로 한 봄, 여름, 가을, 겨울동이 자리한다. 봄동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의류와 잡화, 병원 등이 들어서 있다. 여름동은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상품과 전문식당가로 꾸며져 있으며, 가을동은 젊은층을 위한 상품과 고객 편의시설이 마련 되어 있다. 겨울동은 스포츠·아웃도어 제품이 주를 이룬다.

양쪽 건물 사이에는 긴 수로가 흐르는데 수로를 따라 여러 조형물과 나무, 분수, 징검다리 등이 조성돼 여유를 느낄 수 있다. 또 수로 주변에는 세련된 분위기의 유럽형 노천카페가 자리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카페에서는 베이글이나 와플,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간식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브런치 메뉴도 준비되어 있다. 주말에는 공연, 전시, 이벤트 등 문화행사도 풍성하다. 쇼핑몰 곳곳을 순회하며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브라스밴드, 뮤지컬, 어쿠스틱밴드 등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음악공연은 물론 미술이나 풍선, 마임 같은 거리공연도 자주 열린다.

TIP

가을동 2층에는 포인트 카드 가입과 사은이벤트 등 고객 상담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고객 상담실과 수유실, 수선실이 각각 마련되어 있다. 재미있는 공간구성으로 사진촬영의 명소 또는 약속과 만남의 장소로 알려진 시계탑은 여름동 1층에 자리한다.



시계탑



커널워크 쇼핑

★ 2016 INCHEON PENTAPORT ROCK FESTIVAL

인천관광 100+!



Festival

축 제

함께 뛰다! 놀다! 즐기다!

87

얼쭉~ 풍물로 세계인과 하나 되었소 인천부평풍물대축제



한국의 흥과 놀이, 농경문화의 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풍물. 그것이 축제 모티브가 되었다. 인천 부평은 고대부터 농경문화가 발달된 곳으로 자연스럽게 풍물이 생활 속에 뿌리 내린 고장이다.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가을의 문턱인 매년 10월, 부평도심거리가 거대한 무대가 된다. 인천부평풍물대축제는 1997년 시작된 이래 2016년 현재 20회를 맞는다. 그동안 3년 연속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한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축제는 창작공연 등 공연마당과 퍼레이드, 버스킹 등으로 이루어진 거리마당 그리고 풍물, 예술, 시민참여가 가능한 체험마당으로 구성돼 이루어지며 경연대회와 먹거리 장터도 연계해 진행된다.

축제 기간 내내 풍물 본연의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경쾌한 팽과리와 장구소리, 묵직한 징과 화려한 깃발, 상모꾼의 상모 돌리기가 소리로, 색으로 부평대로를 수놓는다. 특히 과거 농경문화를 재현하는 퍼포먼스와 사물놀이 공연이 진행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비롯해 한국의 풍물 명인들이 총출동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저녁에 열리는 대규모 풍물 퍼레이드다. 8차선 부평대로는 퍼레이드를 위한 광장으로 바뀐다. 공연자와 시민, 관광객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으로 대규모 풍물 퍼레이드가 펼쳐지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TIP

인천시지정무형문화재 제26호인 부평두레놀이는 농민문화의 풍물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과거에는 인근지역으로부터 영좌두레로 인정받으며 두레패로서 노동력 뿐만 아니라 풍물의 기량까지 널리 인정받았다. 풍물도시 부평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구 산하 22개 동별 풍물패 역시 왕성한 활동과 실력으로 부평구의 큰 자산이 되고 있다.



88 수도권 최대 전통어시장에서 열리는 소래포구축제

남동구에 자리한 소래포구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전통어시장을 보유한 관광명소이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어시장으로 70여 년의 세월을 간직했다. 포구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고깃배가 오고, 고깃배가 실어 나르는 해산물을 찾아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소래포구 인근에는 소래습지생태공원이 자리한다. 이곳에서는 천일염으로 유명한 염전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으며 갯벌과 갈대밭이 잘 보존되어 있어 생태체험 학습장으로도 손색이 없다.

매년 10월이면 소래포구에 특설무대가 꾸며지고 '소래포구축제'가 펼쳐진다. 축제에서는 개막퍼레이드와 서해안 풍어제를 시작으로 음악회, 남동구풍물단 공연, 소래포구 노래자랑, 수산물잡기체험, 먹거리 장터, 농·수산물직거래장터,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축제 기간 중 소래포구의 특산물 홍보를 위해 각종 젓갈과 지역 농·수산물을 할인 판매한다. 또 수산물경매가 이루어져 참여하면 싼 값에 수산물을 얻을 수 있다. 습지공원 내에서도 사진콘테스트와 갈대공예체험, 습지공원탐방, 전통 연 전시 등 다양한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포구의 정겨움과 더불어 새우, 꽃게 등 갯 잡아 올린 싱싱한 수산물을 직접 맛보고 구경할 수 있어 맛과 흥, 멋과 낭만이 넘치는 축제이다.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물고기 잡기



소래포구 축제



소래포구어시장

TIP

소래포구는 실제 어선의 정박시설을 갖춘 전통어항으로 300여 척의 어선이 포구를 드나든다. 갯 잡은 싱싱한 해산물은 현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며 인접한 어시장을 통해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89 인천에서 중국을 만나다

인천·중국의날 문화축제



인천 차이나타운은 1883년 개항과 함께 시작되었다. 중국 산둥성에서 많은 청인들이 옮겨 오면서 부터이다. 북성동, 선린동 일대에 청국의 영사와 학교가 설치되고, 중국의 산둥반도와 정기적으로 배가 운항되면서 화교의 숫자는 더욱 늘었다. 이후 130여 년을 지나오며 차이나타운은 한국 속의 작은 중국으로 자리 잡았다. 인천·중국의날 문화축제는 한중 간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양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서로의 문화를 알리며 체험하기 위해 2002년 처음 개최되었다.

한중문화원과 아트플랫폼 일원에서 매년 10월 중 개최되며 3일간의 축제기간을 통해 중국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행사 당일 주 무대에서는 관광객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과 한·중 OX퀴즈, K팝 댄스공연을 즐길 수 있다. 짜장면 빨리먹기 대회와 인기가수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전통차, 의상, 도서, 놀이, 공예품 등 중국 체험행사와 더불어 전통놀이, 아트프리마켓 예술품 체험 등 한국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더불어 수도권 관광명소인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개항장 역사탐방, 아트플랫폼, 신포동을 연계하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TIP

차이나타운 내에는 중국관련 볼거리가 꽤 많다. 한중원 심터는 청나라시대 중·후반기 소주지역 문인들의 정원 양식을 활용해 조성한 야외문화공간으로 중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1934년 건립된 화교중산학교를 비롯해 한중문화관, 청일조계지와 공자상 등이 자리한다.

90 Young & Passion! 인천의 여름을 음악으로 쏘아올리다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

함성, 뜨거운 몸짓, 열정과 땀, 오색으로 빛나는 네온사인, 그리고 모든 이들을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음악! 인천의 대표 음악 축제인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의 경계는 이미 한국을 넘었다. 뜨거운 여름, 삼일 내내 찾는 이들의 오감을 들뜨게 만든다. 2006년 첫 축제가 시작된 이래 매해 여름 송도에서 개최된다. 2016년에는 국내의 아티스트 80여 팀이 공연에 참여했으며, 관객만 해도 8만6천여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축제를 이어 오는 동안 영국 타임아웃 매거진에는 2년 연속 ‘꼭 가봐야 할 세계 페스티벌 50’에 선정되었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축제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기획된 음악이 아닌 진솔하고 개성 있는 아티스트들과 그들의 음악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장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자유롭게 열정을 나눌 수 있다. 아이돌 그룹과 한국의 원년 록 그룹, 인디밴드 등이 참여하면서 대중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 락페스티벌의 모든 공연은 스탠딩으로 진행되며 일정보표를 보고 자신이 원하는 공연을 찾아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된다. 공연이 비는 시간에는 부스를 돌아다니며 이벤트나 부대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일명 ‘인천락페’라는 별칭을 가진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은 록 페스티벌의 시초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며 국내외 음악팬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TIP
송도세계문화축제는 우리나라 최고의 맥주축제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수십만 명이 참가한다. 2016년 6회째를 맞았으며,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있다. 2016년 축제의 핵심인 뮤직 페스티벌에는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참가하였는데, 60여 팀 500여 뮤지션들이 날마다 무대에 올라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인천관광 100+!

PART
VI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국가무형문화재

살아 움직이는 문화유산

* 국가무형문화재의 번호는 단순 구분을 위한 것으로, 문화재의 중요성, 전통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91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공시장 박호준



공시장은 활과 화살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언뜻 단순한 화살 하나로 생각하겠지만, 화살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상상이상으로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대나무, 싸리나무, 복숭아껍질, 민어 부레, 쇠심줄, 까투리털, 화살촉... 하나의 화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이다. 2년생 대나무는 곧고 길어야 하고, 일정한 길이에 세 마디 이음새의 것만 사용한다. 화살 끝 마무리 재료인 복숭아나무 껍질은 1년생에서만 벗겨낸다. 짐작제로 쓰이는 민어 부레는 비싼 값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다.

공시장 박호준 선생은 지금도 망태기를 매고 전국을 누빈다. 대장간에서 쇠를 때려 만드는 화살촉을 제외하면 모든 재료를 자연에서 얻어야 한다. 널리 쓰이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진다.

대나무가 화살이 되려면, 1년의 건조과정을 거쳐 4개월 동안 수백 번 만지고 펴고 깎는 공정이 필요하다. 계절에 따라 강도와 휨의 정도가 다르기에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다. 재료 구하는 것부터 제작까지, 공시장으로서 삶은 고단하다. 화살은 시장성이 없어 판매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항상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호준 선생은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평생 이 길을 걸어왔다.

공시장은 1971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박호준 선생은 늦은 나이인 2008년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박호준 선생은 부친인 고 박상준 선생으로부터 일을 배웠다. 15살부터 시작했으니 강산이 대여섯 번 바뀔 만큼 세월이 지났다.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일, 어느새 삼대 째다. 이제 그의 일을 장남이 이으려고 준비 중이다. 4대 200년에 걸쳐 가업을 이어가는 셈이다. 박호준 선생이 예서 손을 놓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일하기에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려 한다. 착한 아들은 20년째 이 일을 묵묵히 배우고 있다.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이 개발되는 현대사회에서 화살은 무기로서 가치를 잃었다. 그렇다고 사라지도록 내버려두어도 될까.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활과 화살은 최종 병기였다. 수천 년 사용했던 활과 화살에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전통이 배어있다.



TIP
화살은 쓰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무과시합에 사용했던 목전과 유엽전, 전투에 사용했던 육량전, 투구와 갑옷까지 뚫었던 편전, 말을 타고 달리면서 쏘았던 동개살, 신호탄처럼 날아가면서 소리가 나는 호시 그리고 임금님이 사용하던 화살까지, 공시장 박호준 선생은 이 모든 화살을 제작할 수 있다.



박호준(1944년생)

92 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차부회·박일흥



3과장 중 목중춤



5과장 노승춤



6과장 중 영감춤



차부회(1959년생)



박일흥(1957년생)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붉고 푸른 탈을 쓴 사람들의 춤사위가 마당을 가득 채운다. 일쭉~ 쉬~ 동작 하나에 사람의 시선이 머물고, 익살이 묻어 있는 작은 몸짓에 웃음이 터진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은율탈춤이 가지고 있는 해학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재미와 웃음을 준다.

은율탈춤은 황해도 은율지방에서 시작되었다. 쌀, 사과, 참외 같은 농작물, 서해의 어물, 구월산의 임산물도 풍부하게 나는 곳이다. 이곳에서 은율탈춤이 시작된 유래는 두 가지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300년 전, 난리를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 섬에서 나오면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 탈을 썼다는 유래가 있다. 풍수적 유래도 있다. 은율지방의 지세가 서남쪽의 모래산(고양이의 기운)과 서쪽의 무오산(솔개의 기운)으로부터 침입을 당하는 쥐의 형세를 가졌다. 마을 어귀에 인조림을 조성해 지세를 바꾸고, 병과 재난을 막기 위해 탈춤을 추었다는 것이다.

조상들의 해학과 멋, 풍자, 생활상, 공동체의식이 어우러진 황해도 탈춤이 인천을 전승지로 택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구술로 전승되던 은율탈춤이 고(故) 장영수 선생(황해도 은율)에 의해 모아졌고, 많은 실향예술단체들이 서울을 근거로 삼고 활동했지만, 은율탈춤 전승자들은 인천을 주 무대로 했다. 그러던 중 1982년 인천직할시 승격과 함께 전승지가 인천으로 정해졌다.

현재 은율탈춤은 보유자 차부회 선생(1959년생)과 박일흥 선생(1957년생)에 의해 전승·발전되고 있다. 매주 토요일이면 탈춤 전승교육이 은율탈춤보존회에서 진행된다. 보존회 이사장인 차부회 선생은 은율탈춤을 살려내기 위해 노력했던 어머니 고(故) 양소운 선생의 뒤를 이어 은율탈춤 하나만 보고 평생을 살아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인 1978년부터 지금까지 은율탈춤의 전승 발전에 삶을 바쳐온 것이다. 박일흥 선생은 은율탈춤뿐만 아니라 고(故) 양소운 선생으로부터 전수받은 황해도 서도소리와 배뱅이굿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금도 부단히 노력 중이다. 은율탈춤이 모든 이들에게 알려지고, 계승되며 일상에서 향유되는 문화가 되기를 두 무형문화재는 바라고 있다. 진정한 세계화는 우리 것, 우리 전통에서 시작된다.

TIP

은율탈춤 전 과장을 볼 수 있는 정기공연은 매년 4월 초파일에 인천에서 펼쳐진다.
사)은율탈춤보존회 032-875-9953

93

국가무형문화재 제82-나호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김금화

강화도 금화당에 계절 바람이 불어온다. 서해안 배연신굿과 대동굿의 만신으로, 문화전승자로 살아온 김금화 선생이 제의가 있을 때 머무는 곳이다. 김금화 만신은 백두산 천지 대동굿, 독일 베를린 윤이상 진혼굿, 사도세자 진혼굿, 백남준 추모굿 등을 선보이며 전통 굿을 알리는 삶을 살아왔다.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지만, 그녀의 모습은 안과 밖으로 소박하다. 31년생으로 연만(年滿)하지만,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소녀와 같다.

황해도 연백 출신인 그녀는 나이 12살 때 심한 무병을 앓았고, 17살에 외할머니 김천일 만신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았다. 방수덕 선생으로부터 굿을 전수받기도 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세월을 통해 김금화 선생은 남을 이해하는 법을 깨달았고, 인고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오면서 만신이 되었다.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은 황해도 해주, 웅진, 연평도 지방에서 성행하던 굿이다. 굿의 기본적인 구조나 형식은 서해안 일대의 풍어제와 비슷하다. 서해안 배연신굿과 대동굿이 하나로 묶여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 제82-나호로 지정되었지만, 배연신굿은 선주의 개인 뱃굿이고, 대동굿은 마을의 공동제사이다. 배연신굿은 바다 한 가운데서 이뤄진다. 연희적인 요소가 많으며 아기자기하고 해학적이다. 대동굿은 산의 당굿과 마을의 가가호호를 도는 세경굿, 그리고 바닷가의 강변용신굿으로 이어진다. 연행장소가 산, 마을, 바닷가까지 마을 전체가 굿 공간이 되고, 마을공동체 잔치가 된다.



김금화(1931년생)

TIP

뱃사람들은 무사귀환과 만선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냈다. 배연신굿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데, 김금화 선생도 실제 여러 섬을 다니며 지방굿을 배웠다.

“서낭님 올래 귀히 보시오, 금년에 장원 주시오 어른 수비(귀신) 아이 수비, 수비들도 잘 받고 우리 배 벌이 잘 해서 술 많이 먹게 해주세요. 어이구, 벌이 잘 해가지고 더복을 잔뜩 메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저 대조기만 잡게 해주세요.” <김금화 선생의 굿거리 중에서>



복잔 내림

94 국가무형문화재 제90호 황해도평산소놀이음굿 이선비



이선비(1934년생)

곳, 무속을 두고 현대인들은 반신반의한다. 그럼에도 우리 삶에서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다. 우리 삶과 함께 해온 오랜 정서가 무속에 배여있기 때문이다. 무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여부를 떠나,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에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었던 역사로, 삶의 문화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황해도평산소놀이음굿은 농경문화를 일궈온 우리 민족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무슨 옷을 입고 나왔나면요. 무쇠 팔랑 방울에 배꽃이 퍼서 청룡 황룡은 뒤틀어지고 구름은 펄펄 나가고 별은 똑똑 떨어지고 뇌성벽력 쳐갖고 오로롱 나무에 백비둘기 앉어 행정 나무 바디집에 외곽 제각 짜 갖고 물메즌 세메즌 일곱 물 마저내 석쇠민영에 열쇠 바느질 알뜰살뜰 해 입고 나온거 오백년 멍기다 보니까 이렇게 다 해졌죠 ...

- 목화와 물레에서 옷감을 자아내는 묘사

황해도평산소놀이음굿(이하 소놀이음굿)은 소놀이굿, 소놀이음굿, 소굿, 마부타령굿 등으로 불리며, 환자가 생겨 악귀를 쫓거나 달래는 우환굿과는 달리 '잘 되라'고 하는 경사굿이다. 풍년이 들었을 때, 농토를 마련했을 때, 장사가 잘 될 때, 자손이 번창하였을 때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벌이는 축제다. 이는 마을 사람들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며, 생활에 생동감과 리듬을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놀이다.

소놀이음굿은 1985년 8월 14일 황해도 평산읍 출신인 초대 보유자 고 장보배(1915~1991) 선생이 중심이 되어 현 보유자 이선비(1934~) 선생과 함께 평산 소놀이음굿을 인천에서 재현하였다. 그 후 서울놀이마당과 인천 화도진공원에서 작두그네타기와 함께 여러 차례 발표회를 가졌고, 전국민속경연대회의 참가로 1988년 8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 90호로 지정되었다. 현 보유자 이선비 선생은 고 장보배 선생의 신어머니에게 동문수학한 신형제인 유씨 할머니로부터 입무(入巫)하였고, 유씨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장보배 선생을 모시고 무업에 종사하며 소놀이음굿의 재현에 진력을 다하였다. 1992년 7월 1일 보유자로 인정되었고 현재까지 보존회를 이끌고 있다.

TIP

소놀이음굿은 칠성제석거리가 끝난 후 놀이에 참가하는 모든 연희자가 팔선녀를 앞세우고 소를 탄 칠성님과 마당으로 등장하며 시작된다. 논밭을 갈고 씨를 부리고 김매기, 집을 짓기 위한 집터 다지는 지정뒹이 등이 많은 연희자들의 참여에 의해 노래와 춤과 함께 모방과 재현을 통해 집단적 놀이로 연희된다. 평산소놀이음굿은 농경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와 다양하고 폭넓은 소재를 표현하고 있는 놀이이며 공동체의 대동을 위한 놀이 정신을 강하게 보여준다.

95 국가무형문화재 제103호 완초장 이상재



햇살에 잘 마른 완초(왕골)가 한켠에 수북이 쌓여있다. 연한 빛을 띤 완초는 섬세한 손길에 의해 쪼개지는 작업이 반복되면서 여러 갈래로 나뉘진다. 티끌이 옷에 묻고 바닥에 날려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머릿속으로 작품을 구상하면서 염색을 시작한다. 그제야 완초는 색색의 고운 빛깔을 띤다. 이제 엮는 일이 남았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작은 꽃삼합 한 세트를 제작하는데 열흘이 필요하다. 하루 10시간씩 정성을 들여야 한다. 오랜 세월, 완초장 이상재 선생은 시간을 주고 작품을 얻어냈다.

완초공예는 강화 교동도가 발상지다. 거의 대부분 집에서 완초제품을 생각했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겨우 내내 전 가족이 둘러 앉아 완초제품을 만들었다. 그만큼 교동도 완초제품은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었다.

이상재 선생은 교동도 출신이다. 14세 어린 나이에 어머니로부터 일을 배웠다. 그리고 3년만에 교동도 최고의 완초공예 실력을 갖게 되었다. 화문석이 강화도 명물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평생 업이었어. 14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겹다는 생각은 아직 안 들어.” 왕골이 성행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플라스틱 제품이 나오고, 중국산 완초제품이 수입되면서 교동도의 완초제품은 명맥을 잃고 말았다. 2016년 현재, 교동도에 완초공예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명맥을 두 부부가 강화에서 힘겹게 이어가고 있다. “국가에서 장려하지 않으면 안돼. 젊은이들이 배워야 하는데, 아무도 없어. 고려청자 상감기법처럼 사라지고 말 것 같아.” 이상재 선생의 뇌리에는 완초공예가 우리 곁을 영영 떠나버릴 것 같은 걱정뿐이다.



이상재(1943년생)

TIP

완초는 우리말로 왕골이라 한다. 2m까지 자라는 일년생 식물로 전국적으로 서식하지만 강화지역의 완초가 부드럽고 촉감도 좋아 최고로 친다. 강화도의 완초는 한 줄기를 여러 개로 쪼개 사용하기에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다. 전수교육조교이자 이상재 선생의 아내인 유선자 여사는 완초라 하기에 밍기 어려울 만큼 섬세하고 고운 작품을 제작한다.



96 국가무형문화재 제109호 화각장 이재만



이재만(1953년생)

이재만 화각장의 손은 뭉툭했고, 소뿔만큼 단단했다. 마주 잡은 손에서 힘이 느껴졌다. 소뿔을 종이보다 얇게 만드는 과정은 힘과 섬세함을 동시에 요구한다. 한국의 황소처럼 거칠고 투박하지만, 섬세하기 이를 데 없는 종합예술이다. 소뿔은 전통 활을 만드는 주요 재료였다. 조선조에는 나라에서 소뿔을 관리했다. 민간인들이 쉽게 접하는 재료가 아니다. 화각공예를 왕족공예, 귀족공예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왕족들의 보석함으로 옷장과 사주단지함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주먹보다 큰 소뿔이 종이보다 얇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까다롭고 복잡하다. 삶고, 펴고 깎아내는 수많은 공정이 필요하다. 3~4년 된 황소뿔만 사용한다. 소뿔이 종이보다 얇은 화각판(각지)이 되었을 때 비로소 화각공예는 시작된다. 한국의 전통을 도안하고, 석채(돌가루) 안료로 채색한다. 복채법이라고 하는데, 그림을 그린 면이 뒷면이 된다. 채색면에 비해 불투명했던 면은 섬세한 줄칼질을 통해 투명해진다. 0.023mm까지 깎아져야 그림이 선명하게 살아난다. 오직 손가락과 손바닥 감각만으로 작업한다.

천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는 화각공예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화각 공정은 백골(白骨, 주로 적송과 오동나무 등)을 만드는 소목장, 소뿔을 펴서 종잇장처럼 얇게 만드는 각질장, 뿔 편 위에 그림을 그리는 화공, 옷칠을 하는 칠장 등 4가지 공정으로 나뉜다. 그래서 종합예술이라 불린다. 이재만 화각장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조선시대와 현대 화각공예의 명맥을 이었던 고 음일천 선생으로부터 사사를 받았다. 그리고 40대인 1996년 이재만 선생은 최연소로 국가무형문화재가 되었다. 현재 화각장은 이재만 선생이 유일한 보유자이고, 화각공예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기에 일본과 중국, 유럽과 미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찬란한 우리 전통공예가 지금 인천의 한 작은 공방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TIP

화각 공예에 대한 역사는 정확하지 않다. 화각공예품 중 신라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바느질자가 있고, 통일신라, 고려, 조선조로 계승되어 오늘까지 이어진다. 전통 화각공예에는 주로 황·청·백·적·흑 오방색을 사용했지만, 이재만 화각장은 색을 혼합해 보다 다양한 색을 구현한다. 현재 화각공예 전수교육조교가 없으며, 두 아들이 이수자로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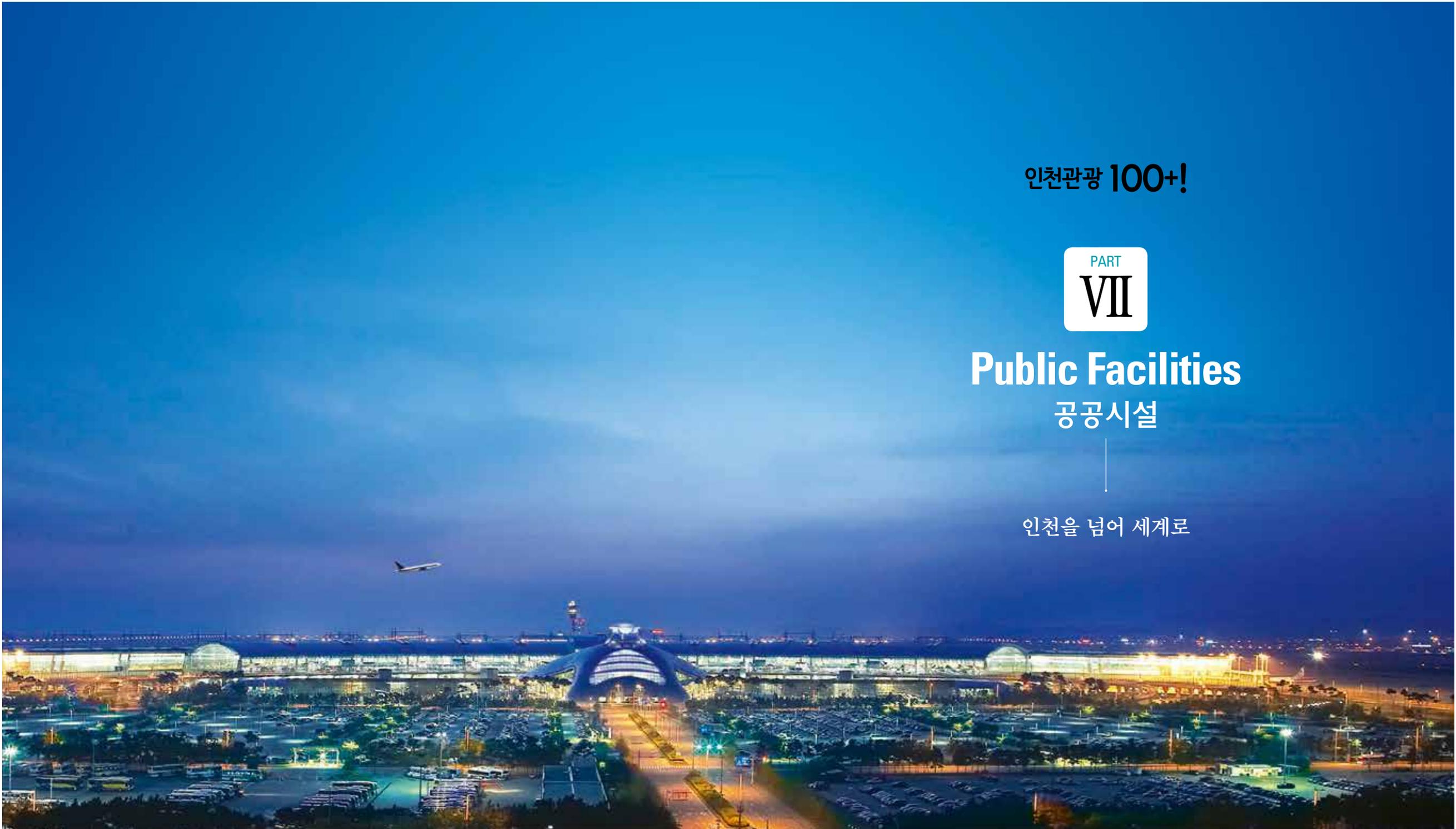
인천관광 100+!

PART
VII

Public Facilities

공공시설

인천을 넘어 세계로



97 세계와 대한민국을 하나로 잇다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은 한국의 첫 얼굴이다. 세계와 통하는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세계인이 첫 발을 딛는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 공항이다. 2004년 GT Tested Awards가 시작된 이래, 11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의 매립공사를 시작으로 총 공사기간 8년 4개월을 거쳐 2001년 3월 29일 개항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은 3단계 공항확장을 통해 또 다른 비상을 꿈꾼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해 제2여객터미널 및 여객·화물계류장, 접근·연결교통시설 등 공항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3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국제공항은 여객 6200만 명, 일운항 약 1000회 이상을 처리하게 된다.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우뚝 서기 위한 인천국제공항의 미래는 창공의 여객기만큼 가법다.

TIP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고객센터 1577-2600
 홈페이지 www.airport.kr



98 하늘길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아름다운 다리 인천대교

인천대교의 프로필은 화려하다. 그 규모와 역할, 최신 토목건축기술이 집목된 인천대교는 동북아시아 중심도시 인천의 랜드마크가 되기에 충분하다. 인천대교는 18.38k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세계적으로도 다섯 번째로 긴 사장교다.

바다로부터 솟은 인천대교 주탑은 238.5m, 거의 63빌딩 높이와 맞먹는다. 다리를 받치고 있는 교각은 10만톤의 충격, 진도 7.0의 지진, 초속 72m의 강풍에도 견딘다. 2005년 6월 시작한 공사는 2009년 10월까지 지난하고도 어려운 과정, 수많은 사람들의 땀방울과 노력을 거쳐 완성되었다.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불과 15분 만에 연결한다. 물류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낮춰 경제와 환경에 중요한 몫을 담당한다. 무엇보다 세상과 사람을 더욱 빠르게 연결한다. 세계의 3대 아름다운 다리를 국내의 토목전문가들이 손꼽고, 특히 야경이 눈부실만큼 아름다운 인천대교는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랑이다.



TIP

인천대교기념관

2010년 3월 5일에 개관한 기념관에는 인천대교 건설과정이 자세히 전시되어 있다. 학습체험공간으로 충분한 자료가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서해의 아름다운 바다와 송도국제도시의 스카이라인, 인천대교의 웅장한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



99 세계로 나아가는 인천 바닷길의 시작 인천항



인천신항

6라장 중영감초



인천은 바다와 함께 성장하였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도시를 살찌웠고, 바다를 통해 주변 나라들과 교류하며 발전하였다. 그 중심인 인천항은 항구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인천의 많은 이야기들이 인천항을 통해 시작되고 귀결될 만큼 우리의 삶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인천항에 접안한 대형선박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교류한다. 연안부두, 북성포구, 화수부두, 만석포구처럼 인천항과 연계된 포구에서는 인천사람들의 삶과 생명이 잔잔하게 이어진다.

인천항은 1883년 부산, 원산항에 이어 한국에서는 세 번째로 개항하였다. 개항 당시는 제물포라는 한적한 어촌포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항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와 통상을 개시하면서 정치, 외교, 군사,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었고, 개화의 물결을 통해 국제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1918년에 이르러 동양에서 보기 드문 갑문식 제1선거가 건설되어 4500톤급 선박이 접안하게 되었고, 1974년 갑문선거가 완공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인 내항 4부두가 개장하게 된다. 현재 인천항은 서해안 최대 규모의 항구로 항내수면적만 276만㎡에 이르고, 황해권 무역의 중심축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TIP

인천항과 연안부두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서해의 100여 개 섬과 연결된 인천연안여객터미널과 중국 여러 도시로 출항하는 국제여객터미널 일대가 연안부두이다. 연안부두에는 여객터미널 뿐만 아니라 해양광장, 종합어시장, 횡집거리, 유람선선착장, 남항 부두 등이 모여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이다. 매년 10월이면 연안부두대축제가 개최된다.

100 나는 8mm 떠서 세상을 달린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누구든 자기부상철도를 보면 반한다. 낯선 모습이지만 친근감과 함께 설렘이 앞선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대변하는 도자기에서 디자인 콘셉트를 가져 온 유려한 곡선미, 눈을 사로잡는 노란 컬러 옷을 입고 레일 위를 미끄러지듯 달린다.

열차에서 들리는 그 혼한 소음, 진동조차 없다. 세계에서 두 번째 상용화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2016년 2월 3일, 첫 운행을 시작했다. 길이 12m, 폭 2.7m, 높이 3.475m 차량은 2량 1편성으로 운행된다. 차량의 전자석과 레일이 서로 붙으려는 힘에 의해 차량은 부상한다. 부상된 열차는 레일과 모터사이 유도기전력에 의해 선로 위 8mm를 떠서 달린다. 기계적 마찰이 없어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바퀴의 마모, 분진 같은 공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도심을 굽이굽이 다니지만 그 혼한 방음차단벽이 없는 것도 소음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무인운행 중인 자기부상철도는 한번에 186명까지 탑승 가능하다. 구간 중 호텔과 오피스텔을 지나는 도심지역에서는 창문이 갑자기 뿌옇게 흐려지는 '미스트 윈도우'라는 신기술도 선보인다. 열차 운행으로 주민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현재 시범운행 중인 구간은 총 6.1km이며 인천국제공항역과 용유역 사이 6개 역을 오간다. 1회 편도에 약 12분이 걸리며 15분 간격으로 탑승가능하다. 운임은 현재 무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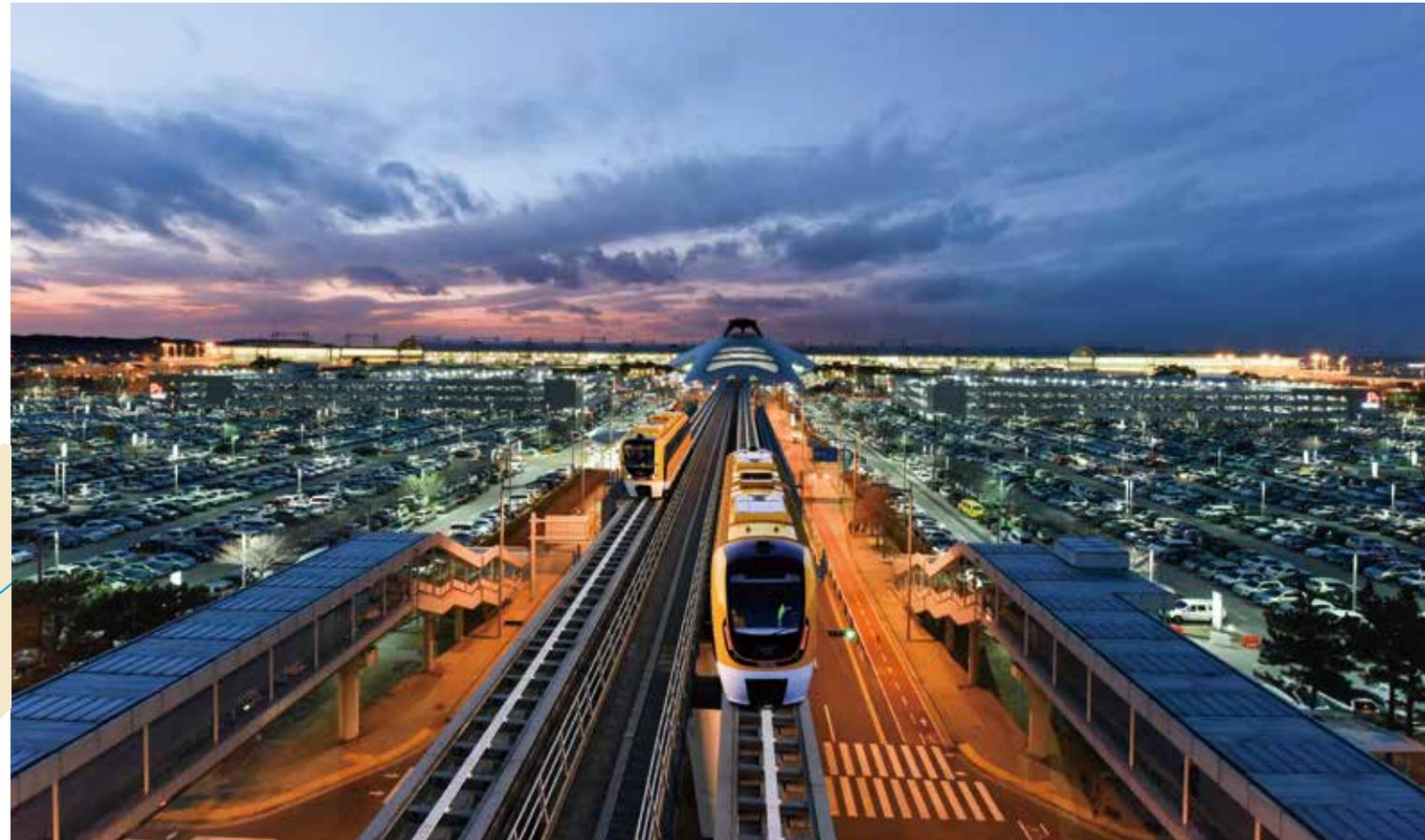


TIP

하늘길과 바닷길을 잇는 자기부상철도 덕분에 영종도는 수도권 여행지로 인기가 높다. 서울에서 한 시간이면 도착하는 영종도. 공중부양해서 달리다보면 색다른 영종도를 만날 수 있다.

찾아가는 길

- 출발역(인천국제공항역) 위치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2층
- 공항철도 이용 :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역(중착역) 하차 → 교통센터 2층 자기부상철도 인천국제공항역으로 이동



100+!

우리나라 해발 높이의 기준점 수준원점



우리나라의 국토 높이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백두산,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은 자기마다의 높이가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그 높이를 정하는 것일까? 높이를 이야기 할 때 우리는 흔히 '해발 몇 미터?' 라는 말을 사용한다. 해발은 기준면으로부터 어느 지점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한다. '표고(標高)', '고도(高度)' 라고도 한다. 표고와 고도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바닷물의 높이는 동해, 서해, 남해 등에 따라 다르고, 밀물과 썰물에 따라 다르다. 다시 말해서 바닷물의 높이는 항상 변화한다. 따라서 0.00m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에 수위 측정소에서 얻은 값을 육지로 옮겨와 고정점을 정하게 된다. 이를 수준원점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1916년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수준원점을 정하였다. 최초의 수준원점은 인천시 중구 향동 1가 2번지에 있었다. 하지만 6.25전쟁으로 기본 수준점이 모두 유실되었고, 새롭게 기준면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거기에 1963년 인천내항이 재개발됨으로써 인하공업전문대학 캠퍼스로 수준원점을 옮기게 되었다. 현재 인천에 있는 수준원점의 해발고도는 26.6871m이다. 수준원점의 표지석은 붉은 벽돌로 쌓은 침성대 모양의 원형기둥 모양의 지름 3.3m, 높이 3.36m의 보호각 안에, 육면체의 화강석 설치대 위에 자수정으로 +표식으로 음각되어 있다. 2006년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247호로 지정되었다. 인천에 대한민국의 높이를 정하는 수준원점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국토 높이 측정의 기준점이 되는 국가적 시설물로서, 학술적·역사적으로 가치가 큰 우리의 근대문화유산이다.



TIP

북한은 원산 앞바다를 수준원점으로 삼고 있기에 우리와는 약 6m 정도 차이가 난다. 백두산 높이를 예를 들면, 북한은 2,750m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2,744m로 기록한다.



인천관광 100+!

부 록

찾아가기
인천시티투어
인천관광안내소

찾아가기
Information

역사문화

관광지명	주소	전화번호/담당기관	홈페이지
갑곶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20	032-933-3624 강화고인돌관광안내소	www.ganghwa.go.kr
강화산성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	032-930-3515	www.storytour.co.kr
강화지석묘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	032-933-3624	www.ganghwa.go.kr
개항장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032-777-1330	www.icjg.go.kr
계양산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목상동	032-450-5825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	www.gyeyang.go.kr
고려궁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	032-930-3515	www.ganghwa.go.kr
광성보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해안동로 466번길 27	032-933-3624 강화고인돌관광안내소	www.ganghwa.go.kr
교동향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남로 229-49	032-933-3624 강화고인돌관광안내소	www.ganghwa.go.kr
내리교회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67번길 3-1	032-760-4000	naeri.co.kr
녹청자도요지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37	032-560-2932 녹청자박물관	www.nokcheongja.or.kr
능허대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54	032-749-7312 연수구 문화체육과	www.yeonsu.go.kr
답동성당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50번길 2	032-762-7613	www.dapdong.or.kr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길 27번길 10	032-934-6171	www.ganghwa.go.kr

관광지명	주소	전화번호/담당기관	홈페이지
대한성공회 인천내동교회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 45번길 21-32	032-765-9004	-
마니산 참성단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032-933-3624 강화고인돌관광안내소	www.ganghwa.go.kr
부평도호부청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사대로 20	032-450-5825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	www.gyeyang.go.kr
연미정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242	032-933-3624 강화고인돌관광안내소	www.ganghwa.go.kr
원인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322	032-749-7312 연수구 문화체육과	www.yeonsu.go.kr
인천도호부청사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589	032-880-7971 남구 문화예술과	namgu.incheon.kr
인천중동우체국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83	032-777-1330 인천역관광안내소	www.icjg.go.kr
자유공원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남로 25	032-777-1330 인천역관광안내소	www.icjg.go.kr
전등사(삼량성)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032-937-0125	www.jeondeungsa.org
차이나타운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26번길 12-17	032-777-1330 인천역관광안내소	www.icjg.go.kr
화도진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14	032-770-6892 화도진 공원관리사무소	www.icdonggu.go.kr

자연경관

관광지명	주소	전화번호/담당기관	홈페이지
강화갯벌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293-37	032-930-7064 강화갯벌센터	www.ghss.or.kr
강화나들길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032-934-1906	www.nadeulgil.org

관광지명	주소	전화번호/담당기관	홈페이지
경인아라뱃길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 1로 41	1899-3650 경인아라뱃길 통합운영센터	www.giwaterway.kr
계양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4	032-450-5653	itour.incheon.go.kr
교동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	032-930-4500	www.ganghwa.go.kr
굴업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032-899-3405	www.ongjin.go.kr
대연평도·소연평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174번지	032-899-2210	www.yeonpyeongdo.com
대청도·소청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032-899-2210	www.ongjin.go.kr/tour
덕적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032-899-2210	www.mydeokjeokdo.com
무의도	인천광역시 중구 잠진도길 146	032)751-2628 잠진도 관광안내소	-
문학산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문학산	032-887-1011	itour.incheon.go.kr
백령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032-899-2210	www.baengnyeongdo.com
석모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9	032-932-6007 삼보해운	www.ganghwa.go.kr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154번길 77	032-466-7282	grandpark.incheon.go.kr
송도센트럴파크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0	032-851-0477(주차장)	www.insiseol.or.kr
승봉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	032-899-2210	www.seungbongdo.co.kr
신도·시도·모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032-899-2210	www.ongjin.go.kr
영종도·용유도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	032-777-1330	www.icjg.go.kr

관광지명	주소	전화번호/담당기관	홈페이지
영흥도·선재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032-899-2210	www.ongjin.go.kr
월미도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문화로 36	032-765-4169 월미도관광안내소	www.icjg.go.kr
이작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032-899-2210	www.myjakdo.com
인천대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032-466-7282	grandpark.incheon.go.kr
자월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032-899-2210	www.ongjin.go.kr
장봉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032-899-2210	www.ongjin.go.kr
팔미도	인천광역시 중구 팔미로	032-885-0001 현대마린개발	www.palmido.co.kr

생활문화·전통시장

관광지명	주소	전화번호/담당기관	홈페이지
NC큐브 커널워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87	032-723-6300	www.elandretail.com
강화풍물시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17-9	032-934-1318	www.gangpoong.com
강화화문석마을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 468번길	032-934-2290	hwamunseok.go2vil.org
거북시장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032-577-3528	-
내동골목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	-
동인천삼치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67번길	-	-

관광지명	주소	전화번호/담당기관	홈페이지
만석등주꾸미거리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	-
배다리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	-
백마장골목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87번지	-	-
부평지하상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69번길	032-523-9991	www.bpsm.co.kr
송월동 동화마을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서로37번길 22	032-764-7494	www.icjg.go.kr
수도국산골목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54번길	-	-
신기시장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7동 1313-16	032-865-5424	www.shingimarket.com
신포국제시장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49번 길 11-5	032-764-0415	www.sinpomarket.com
십정동골목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02번길 45	-	-
싸리재골목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 78번길	-	-
연락골 추어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영동 40-15	-	-
용현시장	인천광역시 남구 용삼길 57-1	032-886-9318	-
인천모래내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76번길	032-471-1427	www.imoraenae.com
인천역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69	1544-7788	-
인천종합어시장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33번길	032-888-4241	www.asijang.com
화평동 세숫대야냉면거리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	itour.incheon.go.kr

축제

관광지명	주소	전화번호/담당기관	홈페이지
고려산진달래축제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994-19	032-933-8120	www.ganghwa.go.kr
소래포구축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67 소래포구 일대	032-453-2142	www.soraefestival.net
인천·중국의날 문화축제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인천아트플랫폼 일원	032-440-4023 인천시청 문화예술과	www.incheon.go.kr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일원	032-509-7516	www.bpf.or.kr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360	032-440-4022 인천시청 문화예술과	www.pentaportrock.com

공공시설

관광지명	주소	전화번호/담당기관	홈페이지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1577-2600	www.airport.kr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1577-3600 인천국제공항공사	www.airport.kr
인천대교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 해안남로	032-745-8200 인천대교기념관	www.incheonbridge.com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88	1599-5985	www.icferry.or.kr

수준원점

관광지명	주소	전화번호/담당기관	홈페이지
수준원점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100 인하공업전문대학 내	-	-

인천시티투어
Incheon City Tour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인천 타임트립

송도~월미·개항장 코스

100년 개항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 **개항장**
최첨단 국제도시 **송도**

인천시티투어와 함께 행복한 여행이 시작된다.

이용안내



운영시간

- ▶ 09:30~18:40(매주 월요일 휴무)
- ▶ 인천역 기준 - 첫차 : 9:30, 막차 : 16:30
송도센트럴파크역 기준 - 첫차 : 10:05, 막차 : 17:35



티켓 구입

- ▶ 티켓 구입처
- 인천역관광안내소/인천종합관광안내소(송도센트럴파크 정류장)
- 각 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 구입(신용카드만 가능)
- ▶ 티켓 결제방법
- 현금 및 신용카드 가능(교통카드 사용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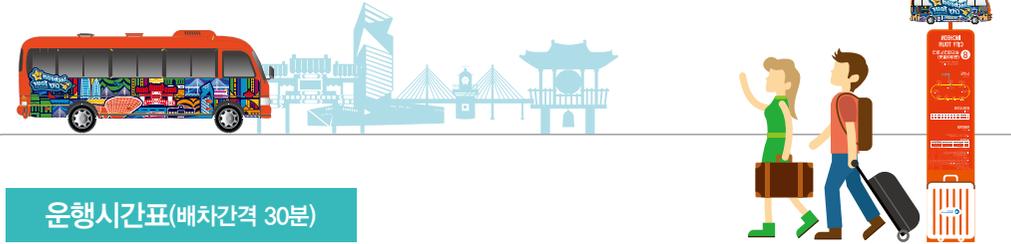
이용요금

중·고생~일반	만36개월 이상~초등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65세이상
5,000원		3,000원



이용안내

- ▶ 티켓 한 장(1인) 구매로 모든 정류장에서 하루종일 자유롭게 이용가능
- ▶ 티켓을 손목에 착용해야 탑승 가능
- ▶ 티켓 착용 후에는 환불 불가
- ※ 예약없이 각 정류장에서 선착순 탑승
- ※ 버스 출발 및 도착 정보는 아래 연락처에서 확인가능(09:00~18:00)
월요일 휴무 ☎ 032-772-4000 🌐 www.travelicn.or.kr



운영시간표(배차간격 30분)

No	정류장명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①	인천역 (차이나타운)	*	9:30	10:00	10:30	11:00	11:30	12:00	12:30	13:00
②	하버파크호텔	*	9:32	10:02	10:32	11:02	11:32	12:02	12:32	13:02
③	G타워 (NC큐브 커널워크)	*	10:05	10:35	11:05	11:35	12:05	12:35	13:05	13:35
④	솔찬공원	*	10:12	10:42	11:12	11:42	12:12	12:42	13:12	13:42
⑤	송도테크노파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	10:20	10:50	11:20	11:50	12:20	12:50	13:20	13:50
⑥	송도컨벤시아 (NEAT Tower)	*	10:25	10:55	11:25	11:55	12:25	12:55	13:25	13:55
⑦	송도센트럴파크 (컴팩스마트시티)		10:05	10:35	11:05	11:35	12:05	12:35	13:05	14:05
⑧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0:20	10:50	11:20	11:50	12:20	12:50	13:20	14:20
⑨	인천개항장 (아트플랫폼)		10:45	11:15	11:45	12:15	12:45	13:15	13:45	14:45
⑩	월미공원		10:50	11:20	11:50	12:20	12:50	13:20	13:50	14:50
⑪	월미문화의 거리		10:55	11:25	11:55	12:25	12:55	13:25	13:55	14:55
①	인천역(차이나타운)		11:10	11:40	12:10	12:40	13:10	13:40	14:10	15:10



운행시간표(배차간격 30분)

No	정류장명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①	인천역 (차이나타운)	13:30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②	하버파크호텔	13:32	14:02	14:32	15:02	15:32	16:02	16:32
③	G타워 (NC큐브 커널워크)	14:05	14:35	15:05	15:35	16:05	16:35	17:05
④	솔찬공원	14:12	14:42	15:12	15:42	16:12	16:42	17:12
⑤	송도테크노파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14:20	14:50	15:20	15:50	16:20	16:50	17:20
⑥	송도컨벤시아 (NEAT Tower)	14:25	14:55	15:25	15:55	16:25	16:55	17:25
⑦	송도센트럴파크 (컴팩스마트시티)	14:35	15:05	15:35	16:05	16:35	17:05	17:35
⑧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4:50	15:20	15:50	16:20	16:50	17:20	17:50
⑨	인천개항장 (아트플랫폼)	15:15	15:45	16:15	16:45	17:15	17:45	18:15
⑩	월미공원	15:20	15:50	16:20	16:50	17:20	17:50	18:20
⑪	월미문화의 거리	15:25	15:55	16:25	16:55	17:25	17:55	18:25
①	인천역(차이나타운)	15:40	16:10	16:40	17:10	17:40	18:10	18:40

인천관광안내소

Incheon Tourist Information

안내소명	전화번호	주소	통역서비스
인천종합관광안내소 (송도 컴팩스마트시티 옆)	032)832-303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34(송도동)	영 어 : 1명 중국어 : 2명
인천국제공항 관광안내소(동) (청사내 B출국장 앞)	032)743-001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271(운서동)	영 어 : 1명 중국어 : 1명 일본어 : 1명
인천국제공항 관광안내소(서) (청사내 E출국장 앞)			
월미도 관광안내소 (월미도문화의거리내)	032)765-4169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문화로 36(북성1가)	영 어 : 1명 중국어 : 1명 일본어 : 1명
인천역 관광안내소 (북성동 인천역광장)	032)777-1330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71(북성1가)	영 어 : 1명 중국어 : 1명 일본어 : 1명
인천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관교동 터미널 1층)	032)435-7257	인천광역시 남구 연남로 35(관교동)	중국어 : 1명 일본어 : 1명
잠진도 관광안내소 (중구 잠진도 선착장)	032)751-2628	인천광역시 중구 잠진도길 146	영 어 : 2명
강화외포리 관광안내소 (강화군 외포리선착장)	032)934-5565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해안서로 918	중국어 : 1명 일본어 : 1명
경인아라뱃길 정서진관광안내소 (경인아라뱃길통합안내센터 앞)	032)561-133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 1로41(오류동) 터미널 앞	중국어 : 2명



24시간 여행 정보 및 번역 서비스(1330 콜센터)

TT는 1330 여행정보 콜센터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빠르고 편리함, 4개 국어로 제공되는 여행자 정보와 번역 서비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인천관광 100+!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인천관광공사 사장
기획·진행	인천관광공사 관광마케팅팀
글·구성	김지숙, 윤지성, 이승원
사진	강화군청, 남구청, 김대호, 유동현, 이덕재, 이주용, 장현선, 정동면, 홍승훈
편집디자인	032디자인(주)
발행일	2016년 11월

본권에 게재된 텍스트와 사진에 대한 임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텍스트와 사진 일부 저작권은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참여 사진가에 있으며 허락을 득하신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